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희 · 강희정 · 김은영 · 송승원 · 이상국 · 이현우 · 최호림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환 · 강희정 · 김은영 · 송승원
이상국 · 최호림 · 이한우

연구자료 10-49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우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 02-2275-8106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222-6

978-89-322-2064-2(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세계 지역 종합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4-13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이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서강대학교 동이연구소	신윤희
		강희정 김은영 송승원 이상국 이한우 최호림
협력연구기관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환 · 강희정 · 김은영 · 송승원 · 이상국 · 최호림 · 이한우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 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 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체성의 구축 및 함양과 관련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기념물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총합적 결과이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후,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는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 및 기념물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은 각국의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공동연구 보고서는 6개의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서론)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 사례 연구는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정치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학제간 시각과 접근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소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채택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설립 및 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의 국립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 자료, 박물관 도록 및 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셋째,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전시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인사 및 관람객들과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기념물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방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머라이언(Merlion)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분석하고, 국립박물관과 상징물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머라이언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관유에 의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다.

신생국가 싱가포르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 못지않게 국가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사회교육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에 기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해 보여주는 것보다 독립국가 싱가포르를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과거의 유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박물관과 상징물을 통해 ‘국가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

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제3장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이 존속되고 국가정체성이 규정되는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탈식민 시대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가 겪는 딜레마는 문화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물관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지만,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던 1920년에 프랑스인들이 프놈펜에 개관한 박물관은 식민주의의 결정체일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문화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19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이다. 20세기 전반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유

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정체성은 현대 캄보디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이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와 식민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고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식민담론이 완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동남아 국가정체성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이면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졌고, 각국 정부들이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세력이 구축한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식민화 노력은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물관이 표상하는 군도의 역사는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식민시대를 강조하여 유럽이 들여온 과학발명품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박물관

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을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5장은 태국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통해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 국가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를 통해 위의 세 기둥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원성을 강조해왔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왕실, 불교 및 타이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왕실이 주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박물관 위치도 왕궁이 있던 자리여서,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쫓라롱꼰 재위시기에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포되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면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더욱더 우대를 받았다. 비록 브라만교, 애니미즘이 아유타야와 현재의 왕실의 의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 종교들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방콕국립박물관은 타이족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하여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非)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민족주의 국가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 기둥에 관한 유물을 취사선택하

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단면과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제6장은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 교육, 선전하는 장이다. 1954년 이후 사회주의 개혁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을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회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와 함께, 문화적 뿌리 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VME는 지난 13년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지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

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은 일정한 갈등이 내재되었다. 첫째,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뿌리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발생한 딜레마이다. 민족학박물관의 대응방식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7장은 베트남의 호찌민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기념과 표상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 호찌민박물관 등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적 단합과 ‘베트남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을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한편,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찌민 묘 옆에 설립되었다. 주 전시실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연계시켜 전시하고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

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으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과 기념물 연구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물들을 둘러싸고 식민세력과 국민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지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연구소재였다. 아울러 현대 동남아 각국이 당면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의 과제에 대해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구성하는 본성과 함께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려는 다양한 역동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의 관람객, 즉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에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이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의 문화적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와 달리,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핵심보다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어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

화하는 데 쓰였을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최소하게 다루어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로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한 일련의 역사적 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 신윤환	2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31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35
가. 서론	36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36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36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37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38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39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40
4. 이론적 함의	40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강희정	43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3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45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47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52
5. 결론	66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김은영 69

1. 서론	69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9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71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74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	76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80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80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	86
4. 결론	90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시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송승원 95

1. 서론	95
가. 연구목적	95
나. 연구방법	97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99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99
나. 박물관 구조	100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101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104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104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112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119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119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120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125
5. 결론	127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이상국 129

1. 서론	129
가. 연구목적	129
나. 연구 방법	131
다. 본문 구성	133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133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	133
나. 박물관 조직 체계	136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137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141
가. 전시관 개요	141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143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145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146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149
4. 결론	154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최호림 157

1. 서론	157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159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159
나. VME의 설립과정	165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173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174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175
다. 야외 전시장	180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182
마. 소결	183
4. 결론	185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이한우	189

1. 서론	189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191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191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194
다. 운영조직	196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196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196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201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204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206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206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207
5. 결론	208
제8장 결 론 / 강희정 · 최호림	210

참고문헌	218

Executive Summary	233

표 차례

표 1-1. 연구 분담표	33
표 1-2. 협력기관	35
표 1-3. 연구추진 일정	35
표 5-1. 2003~09년 연간 방콕국립박물관 방문객 수	139
표 6-1. 베트남 54개 민족집단의 공식적 분류체계	167
표 6-2. VME 방문객 통계(1998~2005년)	171
표 6-3.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실내 전시장의 섹션 구성	177
표 7-1. 베트남의 국가급 박물관	192
표 7-2. 호찌민박물관 및 유적 체계	193
표 7-3.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관람자 수	204

그림 차례

그림 2-1. 싱가포르 앤더스 브릿지 풀러튼 하우스 앞의 머라이언	48
그림 2-2. 머라이언 타워, 센토사	51
그림 2-3.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외관	56
그림 2-4.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전시실 기본 플랜	58
그림 2-5. 아시아 문명박물관	61
그림 2-6.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전시관 배치도	62
그림 2-7. 싱가포르 다문화전시관 외관	63
그림 2-8. 싱가포르 다문화전시관 내부	65
그림 3-1.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북동쪽에서 본 모습	73
그림 3-2. 박물관 중앙의 사각 뜰과 야마(Yama) 상	77
그림 3-3.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도면	79
그림 3-4.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방문객 수	79
그림 3-5. Hevajra, Banteay Kdei, Angkor, Siem Reap, 2nd half 11th C. Bronze, 0. 30m.	80
그림 3-6. Vishnu. Phnom Da, Angkor Borei, Takeo, late? 6th - early 7th C. Sandstone, 2.87m.	81
그림 3-7. Female divinity. Angkor, Siem Reap, 1st half 12th C. Sandstone 0. 865 m.	82

그림 3-8. 캄보디아 국기(1993년~현재)	89
그림 4-1.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전경	104
그림 4-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구관의 전시도면	104
그림 4-3. 수마트라 잠비의 그리스	106
그림 4-4. 반덴 전통악기	107
그림 4-5. 자바 전통 직물	107
그림 4-6. 조상숭배상	108
그림 4-7. 일본 에도시대 접시(18세기 제작)	109
그림 4-8. 중국 접시(시대 미상)	109
그림 4-9. 부처상	110
그림 4-10. 아디티아바르만 상	110
그림 4-11. 발리의 담배상자. 금과 루비 소재	111
그림 4-12. 발리 목걸이. 금, 루비, 다이아몬드 소재	111
그림 4-13. 서양에서 만든 지구본	115
그림 4-14. 유럽에서 제작된 각종 항해도구	115
그림 5-1. 방콕국립박물관 조직도	136
그림 5-2. 방콕국립박물관의 이동식 박물관	140
그림 5-3. 방콕국립박물관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40
그림 5-4. 방콕국립박물관 전시관 평면	141
그림 5-5. 방콕국립박물관 전시관 입체도	142
그림 5-6. 타이역사전시관 평면도	153
그림 6-1. 1996년 VME 건설 당시 모습	169
그림 6-2.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조직표(2005년 이후)	172
그림 6-3. 동고의 형상을 닮은 VME의 실내전시장	173

그림 6-4. 북부의 몬-크메르족의 의식주 전시 모습	179
그림 6-5. 수렵-어로 도구 및 바구니 전시 모습	179
그림 6-6. 마네킹을 활용한 므엥족의 장례식 재현 모습	180
그림 6-7. 아외 상설 전시장의 전경	181
그림 6-8. 아외 전시장의 자라이(Giarai)족 무덤	181
그림 6-9. 배급시대 전시회(2006년): 양식배급소(Bodemer 2010, 285)	182
그림 7-1.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외관	195
그림 7-2.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메인홀	197
그림 7-3.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전시실 구조	198
그림 7-4.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내부: 호찌민과 뚝득탕 간 남북 단합의 악수	203
그림 7-5.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참관	205
그림 7-6.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전	20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이나 기념탑, 동상, 조각물 등 시각상징물을 활용하여 민족통합, 국민형성,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박물관이라고 함은 “박물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유물을 선별적으로 전시하는 협의의 박물관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모든 기념관과 아울러 건물 밖에 건립되어 전시되는 시각적 상징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박물관을 뜻한다. 박물관에는 응당 국가가 정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국립박물관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사적 목적으로 만든 민간(시설) 박물관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본 공동연구는 동 주제에 관한 첫 연구로서 그 범위를 국립박물관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사례 연구가 머라이언(Merlion)이라는 가상의 동물을 형상화한 조각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는 대체로 협의의 국립박물관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

으로 탄생한 이후 - 일부 국가들은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 광의의 박물관들을 설립하고, 확장과 신축을 통해 계속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풀어보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들은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내지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7, 18세기 국민국가(nation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simplification)와 달리(Scott 1999),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주변부에 위치한 탓인지, 다채롭고 역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조사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과 그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이 공동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에 대한 6개의 사례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동남아 11개국 중에 이 5개국만 다룬 것은 본 연구진의 전공국가가 그러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국가이면서 박물관 양상에서 변이가 큰 나라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에서 가장 큰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1~3개의 박물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징성은 유사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미술관(fine arts museum)은 매우 일반적인 박물관의 하나이긴 하지만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방법론과 분석도구를 요하여 본 공동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공동연구를 위해 검토한 선행연구는 크게 보아 첫째, 근대박물관의 역사와 식민주의에 관한 연구, 둘째, 박물관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

구, 셋째, 박물관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존 기능과 타자화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박물관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식민주의가 근대박물관의 태동과 확산 및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Bennett 1995).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사물들을 채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착취와 식민제국 확장의 시대에 맞추어 확대되었고, “신세계”와 “오리엔트”에서 포획한 진귀하고 이국적인 사물들(objects of curiosity and exoticism)의 컬렉션과 전시가 근대박물관을 태동시켰다(Impey and MacGregor eds. 2001). 그러나 유럽에서 근대박물관이 탄생하던 시기부터 수집품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19세기 후반 박물관 컬렉션에 인류학이 개입하여 박물관인류학(museum anthropology)이 시작되면서 비서구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규정을 강화하고 이러한 관행을 과학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Stocking 1985, 8).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민국가의 등장과 산업화와 함께 점차 각 국가들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원시적인 타자의 “사라져가는” 토착 전통을 묘사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Kaepler 1994).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에 신흥 독립국가들은 자기 영토내의 민족의 문화적 사물들과 관습을 분류하고 보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식민주의적 방식을 복제한 박물관을 건설하기도 하였다(Kaplan 1994).

둘째, 박물관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박물관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힘의 산물이거나, 집합적인 정체성의 유형을 만들거나 경합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소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Bennett 1995; Clifford 1997). 이러한 연구들은 “박물관과 박물관화 된 상상은 모두 근본적으로 정치적”(Anderson 1991, 178)이라는 입장에서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일부로

서 박물관이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립박물관은 국가민족의 이데올로기가 공표되는 문화기관으로서 국가의 문화발전을 보여주고 서로 결합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영역에서 여러 통합적 상징들을 유포한다(Davis 1994; Kaplan 1994). 박물관은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되새기는 역할을 하거나(Lavine 1992), 그 사회에서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양식을 재현함으로써, 중심적인 가치와 권위를 재생산하는 헤게모니적 실천양식을 보여주는 문화기관이다(Gomez-Pena 1992). 한편, 많은 박물관이 국가에 의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즉, 박물관이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교육 역할을 하거나(Karp and Lavine, eds. 1991; Karp, Kreamer and Lavine eds. 1992), 박물관이 사회질서를 강화하거나 비판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Karp 1992).

셋째, 역사적으로 서구의 박물관이 비서구의 “타자”를 전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주의 및 오리엔탈리즘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역할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Arnoldi 1992; Hinsley 1985). 박물관은 전통을 복원, 확립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의해 제조되는 전통의 주체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고정된 존재들로서, 대개의 경우 원주민, 촌락민 혹은 소수민족으로서 “타자들”의 모습이다(Stocking 1985). 이러한 타자들은 과거의 유물로 굳어 있는 것으로 되기 쉽다(Bodemer 2010. p. 9). 또한 박물관 전시를 통해 문화적 가치나 관습이 물상화되거나 상품화된(Pala 2008). 박물관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순기능은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전시이며, 특히 근대가 전근대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 보존에 관한 전형적인 담론은 “원시적인”(primitive) 집단들의 물질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통을 선호하여, “선택적 보존”(selective preservation)의 함정에 빠져있다(Jacknis 2002).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의 박물관 전시가 자민족중심적이며

토착문화의 내재적 가치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Kreps 2003).

이와 같이 박물관 연구는 실제 박물관의 역사만큼이나 길지만(Karp and Lavine 1991; Genoways and Andrei 2008), 구미의 박물관이나 문명발생지 국가들의 박물관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의 박물관에 관한 연구의 경우, 베트남의 일부 박물관에 관한 연구(Bodemer 2010)를 제외하고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박물관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며, 특히 이들을 상호 간에 비교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2006). 국내에서는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이다. 비록 본 공동연구가 상기 5개국에 국한되어 있고, 대체로 구조적, 제도적, 공식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근대성, 오리엔탈리즘, 식민주의 등 거시적 함의 도출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비서구 국가들의 박물관 정책과 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선구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또한 대표적인 경제성장 지역인 동남아의 박물관이 계속 증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 주제는 장차 연구보고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동남아 박물관 연구는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게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던져 준다. 동남아 지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인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관광지이며, 여행객 수는 연간 3백만 명에 이른다. 특히 본 연구에 포함되고 있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방문자 수는 외국인 방문객 중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상주, 체류하는 교민들의 수도 또한 커서 각국에서 역시 한 두 번째로 큰 외국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박물관이 현지 한국인들의 중요한 행선지이고 보면, 이들의 문화생활과 관광 행태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데도 박물관을 소개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동남아국가 간의 거리는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며, 상호 교류는 다방면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2004년 464억 달러에서 2008년 902억 달러로 불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화교류의 증대는 동남아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을 낳아 이른바 한류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고, 국내에서는 동남아류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동남아와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에 맞서는 한 축을 형성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유학생 등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남아인들도 급증하여 이제 그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과 아세안이 며칠 전 하노이에서 폐막된 아세안+1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과 동남아는 21세기에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협력관계가 급속히 확대, 심화되어, 이제 통합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는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 지역과 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양과 수준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동남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무역, 투자 통계 등 계량적 지표들을 향한 건조한 접근을 넘어서는, 동남아 각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기반, 이념적 기초 등에 대해 질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문화적 공간과 이를 마련해 준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물관이야말로 국가의 문화프로젝트의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과 국가기념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남아 각국이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양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한 후 국가형성 및 국민통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수 국가들이 현재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이탈해 독립이나

자치를 모색하는 소수민족이나 지방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규정, 확립하고 국민일체감 내지 민족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은 동남아 각국에 절실한 현재진행형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 규정 방식을 이해하는 작업은 동남아 각국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각국에서 국가정체성이라는 공적 담론의 구축과 유포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주요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본 공동연구는 연구대상으로 5개국을 선정하여 6개의 개별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국가 및 사례를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 건설을 시도하면서 국가일체감 형성, 국민통합, 민족의식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근대 국가 건설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국립박물관이나 기념물과 같은 문화적 공간의 역할은 단연 두드러진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는 국립기념탑(Monas: National Monument)과 역사박물관의 설계뿐 아니라 전시형태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박물관 및 기념물을 매개로 하여 국가정체성 이데올로기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선전을 벌이는 현상은 동남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이유로 인해, 20세기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예는 다른 어떤

예보다 특히 흥미롭다. 따라서 국민국가 형성이 문화정책과 맺는 일반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동남아 5개국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 연구디자인과 연구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우선 싱가포르를 ‘역사적 공동체’나 ‘상상된 공동체’의 틀로 설명되기 힘든 신생독립국이며 또 통제가 용이한 도시국가이다. 이러한 역사가 짧은 다민족 이주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머라이언과 같은 국가상징물과 박물관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로와는 다른 국민통합의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캄보디아는 대륙부 동남아에서 최강국과 약소국의 지위를 오가면서 자신의 문화유산에 대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정치적 격변과 이념적 급전을 경험한 현대사 속에서도 이 역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 중 하나인 최빈국 캄보디아에서는 문화 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가 국민일체감이나 민족의식 함양이란 목표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까닭에, 다른 나라의 박물관 사례가 안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을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1945년 독립과 함께 이름을 처음 가지게 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나 수백의 종족을 가진 다민족 대국이었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하나로 통합된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는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등 강력한 지도자들이 기념탑, 동상, 역사박물관, 민속촌 등을 건립하고 민족의 역사 및 국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주제에 가장 적합한 국가에 속한다. 태국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지만 타이족의 문화적 유산을 중심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따라서 태국은 국가정체성 규정의 문제에서 ‘타이족의 국가’와 ‘다민족 국가’를 불완전하게 봉합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불완전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태국의 역사적 상징물들이 어떻게 국가정체성 형성에 기여 또는 방해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사

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을 향한 전환기에 처한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정책을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사례인 동시에 비록 경제적으로는 후진적인 나라이지만 적극적인 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냄과 동시에 상호 비교연구를 통해 박물관을 ‘설명’해내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표 1-1. 연구 분담표 ▣

연구 분담 내용	연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분야
연구 총괄 및 총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신윤환	정치학
싱가포르의 사례	동아연구소 HK교수	강희정	미술사
캄보디아의 사례	동아연구소 HK교수	김은영	역사학
인도네시아 사례	동아연구소 HK교수	송승원	역사학
태국 사례	동아연구소 HK교수	이상국	인류학
베트남 사례 1	동아연구소 HK교수	최호림	인류학
베트남 사례 2	동아연구소 HK교수	이한우	정치학
결론	동아연구소 HK교수	강희정·최호림	미술사·인류학

이 공동연구는 5개국, 6개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 등 7개의 연구로 구성된다. 공동연구자는 각자 한 국가를 선택한 후 그 국가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또는 기념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

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별국가의 각 사례에 관한 연구는 그간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개별 사례를 통해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어 왔다. 정치학, 미술사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학제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공유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시에 시도됨으로써, 결론의 타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각 연구자는 사례로 선정한 동남아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국가적 기념물의 설치과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연구자는 연구대상 국가의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연구대상 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자료, 박물관 도록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대상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셋째, 각 연구자는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전시방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련 인사 및 일반인들을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국가적 기념물을 통한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추구방식 등을 탐구함으로써 이 문화시물들이 가진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표 1-2. 협력기관

국가	기관
싱가포르	머라이언(싱가포르), 싱가포르 관광청
캄보디아	캄보디아국립박물관(프놈펜), 캄보디아왕립학술원(프놈펜), 프랑스 파리1대학 현대아시아사연구소(파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자카르타), 인도네시아문화관광부,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태국	방콕국립박물관, 태국문화부예술국
베트남	베트남민족학박물관(하노이), 베트남사회과학원 민족학연구소
베트남	호찌민박물관(하노이), 호찌민박물관(호찌민시)

본 연구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표 1-3. 연구추진 일정

일시	201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개인 활동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현지조사	현지조사 원고집필	원고 집필	원고 완성	최종보고 서 작성
공동 활동	연구 개시	착수 회의 (26일)			1차 워크숍 (20일)	중간 보고 (3일)	2차 워크숍 (29일)	연구발표 회(13일) 최종보고 (18일)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이상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서론, 6개의 개별 국가 사례연구 및 결론 등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론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리완유에 의해 새로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머라이언이 채택되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신생국가로서 싱가포르에는 아무런 문화유산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징할 만한 시각이미지가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연방과는 다른 독립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내적으로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외적으로는 싱가포르의 대외적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드는 일이 필요했다. 이 장을 통해 보고자는 동남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가 머라이언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각종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어떠한 방식과 내용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민, 즉 싱가포르인을 창출하고 그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결국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는지를 고찰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에 세워진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이들이 지향하는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의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라는 점에 유의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보고자는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이라는 도식이 국가 통합의 차원

에서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역사적 유산들 중 특히 앙코르 와트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실패를 모르는 국제적인 흥행카드로 보인다. 20세기 전반기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 와트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외교적인 면에서, 이 담론은 크메르 문화 및 영토 수호의 근거가 된다.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태국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다. 캄보디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당연히 크메르 문명의 적자인 현대의 캄보디아에 속한다. 이 주장은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이라는 도식에 따라 현대 캄보디아인에게는 지극히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결국 태국으로부터 구 앙코르제국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식민지 근대성 담론은 현대 캄보디아 국가의 경제적 생존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 것이다.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이 장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을 분석하여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통치자들은 다양한 기념물과 민속촌 건설 사업을 통해 국가담론 전파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 된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이 국가적 내러티브를 전파하는 정치적 기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적 기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도 박물관에 대한 인식

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국립박물관 사례나 인도네시아의 여타 국가적 상징물과 비교해 볼 때, 박물관이 국가적 담론을 투영하고 대중을 정치사회화하는 데 소홀했다. 게다가 박물관에 대한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의 관심 부족과 대중들의 인식부족은 식민시대에 건립된 박물관들이 전시를 통해 표상했던 식민지 담론을 불식하지 못하고 독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오류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도네시아 박물관들이 지닌 전반적 낙후성과 이데올로기 표상의 문제점 등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적 담론과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인도네시아 박물관의 역사와 전시형태, 전시 유물의 선택 양상을 분석하여 박물관이 이야기 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국가의 민족주의 담론과 얼마나 유사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과거 식민주의 담론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추적하였다.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이 장은 태국 방콕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문화 유물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의 국가 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핀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 민족주의를 반영하다보니 그간 태국 민족주의에서 그간 비판받아왔던 부분들이 그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의 삶과 타종교의 역사적인 유산 및 타종족의 문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선 보고자는 박물관 전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非)타이족의 유산이 어떻게 ‘태국’의 유산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국의 기반이 되는 주류 종족인 타이족은 13세기 이후에서야 현재의 태국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현재 태국 영토 내에도 여전히 수많은 소수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족이 중심이 된 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 13세기 이전의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또한 북부 산악지역에는 타이족의 불교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소수종족이 거주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남부지역은 무슬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왕이 아닌 일반인들, 불교 이외의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다른 종족의 역사와 유산이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보고자는 불교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간주되는 태국에서, 이렇게 문화적, 종족적, 종교적으로 다른 소수종족의 역사적 유산 및 현재 삶의 형태를 수용해야 하는 태국 박물관이 당면한 딜레마를 그려내고 있다.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베트남 박물관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를 보고하는 이 장은 하노이의 민족학박물관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보고자는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민족학박물관은 베트남 인구의 약 85%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집단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장이다. 이 장은, 첫째, 베트남 문화정책의 주요 요소 및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핵심적 담론 고찰, 둘째, 건립 이후 현재까지 민족학박물관의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베트남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관찰, 셋째, 베트남 문화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 중 하나인 ‘민족화’ 이념이 박물관 전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탐구, 넷째, 박물관의 전시과정에서 소수민족의 다양한 생활양식이 국가의 통합적 국민정체성 담론과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표현되어 왔는지를 해석하였다. 아울러 보고자는 베트남 박물관정책의 시행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긴장과 모순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하는 국가정책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해야 하는 정책 간의 긴장이며, 둘째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가 중시하는 민족주의와 외국 관광객을 의식한 상업주의적 요구 간에 발생하는 딜레마이다.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이 장은 박물관을 통해 부활한 호찌민이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구로 활용되고 국가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에서 호찌민은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다. 호찌민을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국가와 민족을 향한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부터의 계승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호찌민의 도구적 성격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개편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통하여 죽은 호찌민이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 살아 있는 호찌민으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고찰하였다.

4. 이론적 함의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으로 서론을 맺는다. 정책지향의 본 공동연구와 보고서가 박물관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엄격한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겠지만, 본 공동연구를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 몇 가지 점에서 잠재적 가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어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수 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는,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보고서는 머라이언과 여러 박물관을 중심으로 신생국가였던 싱가포르가 스스로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석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시 싱가포르는 다민족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평등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오랜 식민지시대를 거쳐 20세기 중엽에 독립을 성취한 동남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국가는 독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지역을 점유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토대로 한다. 이 점에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싱가포르를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의 경험이 짧은 신생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9년 래플스가 첫 발을 디딘 때로부터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 밖에 갖지 못한 나라,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이후, 45년밖에 지나지 않은 나라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 못지않게 국가 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Merlion)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 등지에서 행하는 사회교육을 적절히 이용했던 것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머라이언의 제막식에 리관유 수상이 참여하여 연설한 것은 그가 이러한 시각상징 기념물의 건립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여러 곳에 건립했고, 초등학교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위치지웠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에 세워진 다양한 형태의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지향하는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박물관이 그 나라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유물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과거 역사에서 공유한 경험이나 종교적인 의례와 문화, 고유의 전통과 관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시한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에 중점을 둔 전시를 기획,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념물과 전시관을 통하여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인지시키는 것은 ‘국가’가 ‘국

민’들에게 ‘싱가포르란 이러한 나라이다’라는 정책적 이상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이다. 과거의 유산이 없는 나라에서 선진국과 같은 ‘문화’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박물관에 접근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를 주제로 한 본 보고서는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이미지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지, 박물관과 전시관의 공간들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국가라는 관념에서 지향하는 바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라는 오랜 기간 통제된 국가이자 엘리트주의의 산물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대싱가포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1965년 말레이반도 남단의 도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동반 관계를 끝내고 독립을 선언했다.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이전까지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AP) 정책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Malaysian Malaysia)’를 선언한 모나키스트 무슬림과는 더 이상 동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밀월은 2년 만에 끝났다. 싱가포르가 공화국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했고, 독립은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어느 정치가도 싱가포르가 독립하기에 적절한 경쟁력을 갖춘 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Turnbull 1992, pp. 285~286).

독립한 싱가포르에 필요했던 것은 국제 교역도시로서 중국의 이민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다민족 사회로 변신하는 일이었다.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인을 중시하고 화교 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인종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민주사회주의 정책을 펴나가던 싱가포르와의 대립이 심화된 것이 독립 선언의 배경이다.

말레이계를 단결시키기 위해 화교를 적대시한 말레이시아와 그에 반하는 정책을 폈던 싱가포르를 동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민족국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와 다민족 공동체 구현은 새로운 국가가 가야 할 목표였고, 동시에 독립의 출발점이었다.

신식민주의 위협을 피하고, 역사, 문화적 공유의식이 약한 자국 국민들을 전체로 묶어주고, 싱가포르라는 신생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의 존립·유지에 필수적인 일이었다. 리관유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국가를 정지된 고정불변의 어떤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싱가포르가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시 각기 다른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었던 서로 다른 종족들로 인해 야기될 문제였다. 리관유는 독립을 선언했을 당시 이미 출발선이 달랐던 종족들이 각각 다른 비율로 발전해나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키리라고 예상했다(Han 외 1998, pp. 398~402). 이와 관련하여 그가 말레이인들은 왜 ‘부(富)’를 추구하지 않는가에 관해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종류의 문제에 주목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다른 여러 종족으로 이뤄진 사회에서 종족들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국가의 통합과 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상 리관유가 1968년 5월 12일 싱가포르 호텔(Singapura Hotel)에서 열린 동남아경제위원회(Southeast Asia Business Committee)에서 “우리는 대다수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이고 (여전히) 싱가포르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¹⁾ 이어서 그는 중국, 인도, 실론과 다른 비

1) 실제 1997년 당시 싱가포르 인구의 77.7%는 중국계, 14.1%는 말레이계, 1.1%는 기타 다른 인종이었다고 한다.

율로 말레이계가 발전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Han 외 1998, p. 399). 리 관유는 ‘말레이인의 가치에 비합리적인 것은 없으며 이를 비판할 수도 없다’면서 말레이계 국민을 현실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 이는 그것이 싱가포르 국가 형성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연설이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 몇 년 되지 않았던 때의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싱가포르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각자의 사회·경제적 위상, 관습과 풍속, 가치관, 전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 아래 하나로 묶어줄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각기 다른 출발선에 있던 이들이 각기 다른 발전을 한다면 그 역시 국가의 미래 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독립 이후 몇 년간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의 비전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관유가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1972년 9월 15일 싱가포르 강 입구, 현재의 앤더슨 브릿지 플러튼 하우스 앞에 높이 8.6m에 달하는 머라이언상이 세워졌다. 이 조각상의 제막식에서 리관유 수상은 직접 축사를 했다. 이 머라이언의 제작은 당시 싱가포르대 학(현재 NUS) 부총장인 관 사이 켝(Kwan Sai Kheong)이 1971년 11월부터 1972년 8월까지 대체적인 도안을 했고, 장인 림남썩(Lim Nam Seng)이 실제 형상화 작업을 했다. 림남썩은 먼저 시멘트로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고 이를 다듬은 후, 조각 표면에 도기 재질을 덧입혀 현재와 같은 매끈한 모습의 머라이언을 만들었다. 머라이언의 제작에는 당시 싱가포르 화폐로 165,000달러라는 비용이 들었다. 조각상징물은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

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머라이언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표상하는 것이면서 대중을 하나로 묶어 일체화함으로써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 그림 2-1. 싱가포르 앤더스 브릿지 플라튼 하우스 앞의 머라이언 ▣



원래 머라이언의 도안은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에서 공모한 로고 디자인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고안한 디자인은 기념품 위원회(Souvenir Committee) 소속 위원이자 밴 클리프(Van Kleeff) 수족관 큐레이터였던 프레이저 브루너(Fraser Brunner)가 만들었다.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는 실제로 그의 디자인을 1964년부터 1997년까지 심볼로 사용했다. 여전히 머라이언 도안과 관련한 법적 권리는 싱가포르 관광청에 있다. 무수한 상인들이 머라이언 도안을 각종 기념품이나 의류, 문구 등에 써서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기본 저작권은 싱가포르 관광청에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디서나 머라이언 도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싱가포르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Information Division 1984, p. 364).²⁾ 관광은 일반적으로 외유와 동일시되지만 실제로는 외유 이

상의 의미가 있다. 자국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외국
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나라 자신’을 주입시킨다. 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기억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상’하게 하는 인식론적 결말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정책과 이미지들은 실제로는 바깥
세계에 보여주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머라이
언을 복제하고 각종 도안으로 사용하는 일은 내부적으로는 싱가포르 국민들
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연상시키는 역
할을 한다. 머라이언 파크에 세워진 머라이언의 동체 명판에는 “싱가포르를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머라이언을 세운다(The Merlion has been
erected as a symbol to welcome all visitors to Singapore)”는 글이 새겨
져 있다. 싱가포르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보는 관광명소이자 도시의 랜
드마크 역할을 하는 머라이언 파크에 어울리는 구절이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모두 5구의 머라이언이 있으며 각각의 크기와 위치는
모두 다르다. 머라이언 파크에 2구, 싱가포르 관광청에 1구, 센토사 1구, 페
이버산(Mt. Faber)에 1구가 있다. 페이버산과 관광청에 세워진 것은 각각
1995년에 완성된 3m 높이의 조각이며 유약을 발라 반짝거리게 만든 머라이
언상이다. 이 가운데 리관유 수상이 제막식에 참석했던 머라이언 파크에 있
는 것이 가장 먼저 제작된 오리지널 머라이언이다. 원래 엘리자베스 거리
(Elizabeth Walk) 싱가포르강 입구에 세워졌다가 200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바로 그 뒤에 약 2m 높이의 작은 머라이언이 있지만 그다지 사
람들의 주의를 끌지는 못한다. 1997년 에스플레네이드(Esplanade) 다리가
완성됨에 따라 머라이언의 시야가 가려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2년
에 어느 시점, 어느 각도에서나 머라이언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되어 마리

2)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은 독립 초기인 1970년 521,654명에서 1983년경에는 2,850,000명으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늘어난 관광객의 숫자만큼 싱가포르와 머라이언의 연결은 보편화되었을 것
이다.

나 베이클 마주하는 현재의 위치로 120m 가량 옮겨 세워졌다. 처음 제막식을 가졌던 1972년 이후 약 30년 만에 리수상은 새로 옮긴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시 머라이언에 대한 환영사를 했다. 일개 조각상의 건립과 이전에 모두 수상이 환영사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머라이언을 도시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우고 관리하는 일은 수상 자신이 내세웠던 ‘싱가포르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머라이언 둘레에는 광장처럼 공간을 두어 관람객들이 머라이언 앞이나 옆에서 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명실공히 싱가포르의 상징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전의 장소에서는 1998년 이래 입에서 물을 뿜도록 만들었던 펌프가 고장 나서 몇 년간 물을 뿜는 일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치에 옮겨지면서 펌프를 바꾸어 다시 입에서 물을 뿜는 분수처럼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이 교묘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새로운 위치로 이전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머라이언을 불과 120M 이전하는데 든 비용은 7,500,000싱가포르 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대대적인 정화 및 정비가 이뤄졌다. 고압증기 청소로 그간의 묵은 때를 벗겼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균열이 간 부분들을 고쳤다. 흥미로운 점은 머라이언이 중국의 풍수에서 가장 상서로운 방향인 동쪽을 향하게 안치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사물과 공간의 배치에서 풍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말레이계를 비롯하여 출신의 기원이 다른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사안은 중국적인 전통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센토사에 있다. 전체 높이가 37m에 달하는 센토사의 머라이언은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이라는 호주 조각가가 도안하고 조각한 것이다. 강철로 기본 열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강화 유리 시멘트(Glass Reinforced Cement)를 덧씌워 조각을 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머라이언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구조물이며 기본적으로 전

그림 2-2. 머라이언 타워, 센토사



망대 역할을 한다. 입구 중앙부에 정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를 타고 올라가면 싱가포르 시가지와 항구를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사자의 머리와 입 부근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두어 센토사 관광의 핵심 명소가 되었다.

머라이언의 도안은 날라 윗타마(Sang Nila Utama) 왕자를 도와줬다는 전설의 사자 머리와 고대 도시 터마섹이 의미하는 바다를 물고기 형상으로 합성한 것이다. 즉, 싱가포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까지 터마섹으로 불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도안이며, 여기에 대다수 중국인이 좋아하는 상징인 사자 머리를 내세워 새로운 국가 싱가포르의 ‘창조’ 설화처럼 만들었다. 센토사의 머라이언 타워에서는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일정한 시간마다 관람객들

에게 상영한다. 이것을 관람하는 것은 관람객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코스이다. 윗타마 왕자가 싱가포르를 ‘발견’하고 이상적 국가를 세웠다는 단순한 플롯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누구나 싱가포르의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느끼고, 필연적으로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학습된다. 5분짜리 애니메이션에서 싱가포르를 발견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머라이언이 이 나라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애니메이션 상영을 통한 간단한 ‘학습’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만드는 것은 쉽고 효율적인 일이다.

더욱이 자기 조상들의 출신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보다 싱가포르가 더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만들기의 효능은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실제로 출신이 각기 다른 몇몇 시민들과의 인터뷰는 이를 더욱 확신시켜주었다. 그들은 인도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정확히 자기 선조가 인도 출신이고, 자기는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북경에서 왔을 뿐, 자신은 여기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조의 고향이 자기가 속한 ‘국가 싱가포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 만들기는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국가 만들기의 상징, 국기, 국가 등으로 출신이 다른 민족들 간의 결속이 강화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신생국가였던 만큼 박물관을 통한 대중 교육에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다. 국립박물관, 민족박물관, 문명박물관, 예술박물관 등의 다양한 박물관 공간이 훌륭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한다. 박

박물관을 통한 교육은 물론 오늘날 흔히 이야기되는 학교 교육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이며,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이다. 싱가포르 시내 곳곳에 분산된 박물관은 시내 어디서든 가까이 가기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인종, 종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선조를 둔 나라답게 그 문화를 골고루 아우르는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다민족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구성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전시 공간을 기획하여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전시품을 선택하고 있다.

박물관의 통상적인 전시는 자신들의 ‘기원’과 ‘전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Hooper-Greenhill 1992). 그러나 푸코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전시의 기본틀은 역사 속의 특수성, 혹은 구성원이나 사건들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데 더 의미를 두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르다. 원래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가 아니었던 상태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와 이념에 걸맞는 국가 구성원들의 공통점을 강조하기는 어려웠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원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편이 솔직하게 보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독립할 때 내세웠던 것처럼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포용력 있게 보였을 것이다. 기령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의 경우는 교묘하게 다양한 문화를 제시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전통이 어디서 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드러내는 전시 구성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라는 두 개의 말레이계 이슬람 국가 사이에 위치한다. 대략 76.8%의 중국계 국민과 13.9%의 말레이계 국민, 7.9%의 인도계 국민으로 구성되어 민족 융합이 최대 과제였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중국계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를 중시하는 전시

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9년 싱가포르대학에서는 <국민통합 - 싱가포르 케이스>라는 의식 조사를 했다. 이는 건국 이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으로 중시되었던 “싱가포르인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선거권자 가운데 임의로 1197명을 골라 국가의식을 측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건국기념일, 국기, 국가, 대통령, 수상의 5가지 항목 가운데 국가나 수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각각 81%, 90%로 높게 나타났지만, 국기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비율인 62%만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긍정하고 있었다(谷澤眞一郎 1986, pp. 70~74).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각적인 ‘각인’과 그로 인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로운 국가의 상징과 이념을 시각적으로 교육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박물관은 구 체제(Ancien Regime)에 대한 공화국의 새로운 공공 이익을 대변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창안되었다. 공공 박물관은 대중을 국가에 유용한 자원으로 변화시켜줄 기관으로 출현했다(Hooper-Greenhill 1992). 유물의 수집, 전시, 관리는 대중들의 교육을 위해 박물관 관계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방식대로 배치되었고, 중요도가 정해졌다. 왕실, 귀족, 교회의 예술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은 새로운 지배층에 의해 자신들의 이념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수집되었던 물품은 전시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로 나열되고, 감정되고, 목록화되고, 문서화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보수, 복원되었다. 그와 동시에 유물들이 지니고 있는 선동적 가치가 평가되었다. 종교적 공간이었던 곳은 행정적이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달랐다. 싱가포르는 이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 20세기 동안 서구에서 근대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국가였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성립 과정에 대한 논란 자체가 필요 없었다. 대신 국가의 통합,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박물관들은 오히려 다민족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동시에 미술관을 건립하고, 아시아 예술의 중심지가 되려는 노력 또한 싱가포르 국가 정체성 구축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까지도 문화적인 불거리가 별로 없던 싱가포르는 90년대 말부터 국가 성장 전략을 바꿔 문화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공전시장을 세우거나 수리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적 측면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아 문명 박물관, 국립박물관, 싱가포르 미술관(Singapore Art Museum) 등이 근 10여년 사이에 완비되었다. 역사가 일천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신하여 자신들의 선진 국형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여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관반민 조직인 국가유산 이사회(National Heritage Board)와 예술협의회(Art Council) 등은 국가가 원하는 고급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는 모두 현재 자신들의 취약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다민족 융화를 목표로 과거 전통을 재구성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글로벌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Singapore)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한때 싱가포르 역사박물관(Singapore History Museum)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두 가지 명칭이 여전히 통용된다. 1887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며, 200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2006년 12월에 재개관한 역사를 갖고 있다. 건

물 자체는 무료입장이지만 역사 전시실과 생활 전시실은 따로 입장료를 받는다. 또 흥미롭게도 역사 전시실은 6시까지, 생활사 전시실은 8시까지로 관람 시간에 차이를 두었다.

이 박물관은 말 그대로 싱가포르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현재의 실생활 용구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유물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로서의 역사가 짧고 이미 현대 미디어들이 모두 실용화된 이후에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독립과 국가 수립 관련 사진과 각종 시청각 자료, 동영상들이 전시되

■ 그림 2-3.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외관 ■



주: 관람시간 역사전시실 오전 10시 - 오후 6시
 생활전시실 오전 10시 - 오후 8시
 역사전시실은 영어, 일어, 중국어 가이드 투어가 있고,
 생활전시실은 중국어 투어만 토, 일, 월 하루 두 차례 있음.³⁾

3)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nationalmuseum.sg>).

거나 상영된다. 싱가포르 독립 이후 현대사를 보여줌으로써 현대의 질곡을 함께 헤쳐 나왔다는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목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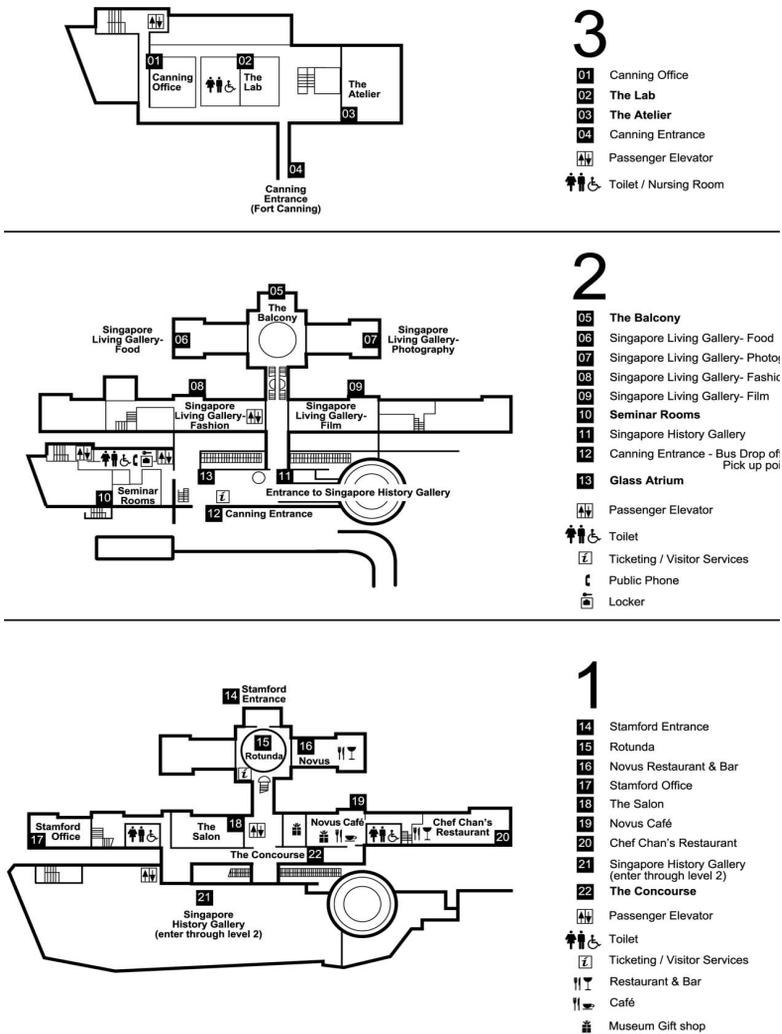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기본 플랜이 보여주는 것처럼 박물관의 전시는 2층이 관람객을 위한 주요 전시실로 기획되었다. 2층의 전시관들은 일종의 생활사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들의 명칭도 싱가포르 생활관(Singapore Living Gallery)으로 붙여져 있으며 6번부터 9번까지의 전시실들은 각각 음식(Food) - 사진(Photo) - 의상(Fashion) - 영화(Film & Wayang)이라는 이름의 특화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11번 전시실은 싱가포르 역사 전시관(Singapore History Gallery)이 되었고 이는 1층의 역사 전시실과 이어진다. 박물관의 규모에 비하면 전시된 유물은 동북아시아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무엇보다 수량 면에서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민속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에 비견될 만하다. 일본의 예로는 오사카의 민족학박물관과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사실상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마치 생활인의 관점에서 보여주듯이 만들어졌고 일반인과 외국인 관람객들은 이들 전시를 통해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서 싱가포르가 역사를 공유해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박물관의 1층 입구와 사무실 명칭이 스탬포드(Stamford)라는 것은 마치 싱가포르의 ‘기원’을 기억하려고 만든 것처럼 보여 흥미롭다.⁴⁾

한편 박물관 측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에 관련된 현대의 창작을 위한 축제나 각종 행사를 통해 단순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보다 역동적인 종합 문화공간을 지향한다고 홍보한다. 기령 따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교양과 취미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박물관이 지니는 특징점이 된다. 또 여느 박물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영화와 와양(Wayang) 전시실인데, 이는 싱가포르의 역사에

4) 명칭은 각각 Stamford Entrance와 Stamford Office이다.

서 완성도나 대중적 기여도 등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자신들 특유의 전시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전시실 기본 플랜



• 아시아 문명박물관(Asian civilizations museum)

관람시간

월요일 오후 1시~오후 7시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금요일은 오후 9시)

상설전에 대한 가이드드 투어

영 어: 월요일 2시, 화~금요일 11시, 2시,

토·일 11시, 2시, 3시

중국어: 토·일 10시, 2시 30분

일본어: 화~금요일 10시 30분, 매월 2주 토요일 1시 30분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아시아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들이 밝히고 있듯이 범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폭넓게 조망하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써 싱가포르의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는 풍부한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정착민들(혹은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조상)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모여든 각기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물질문화에 초점을 맞춘 전시관에 해당한다.⁵⁾ 이로써 다른 배경을 가진 문명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뤘나에 관심을 기울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의 시초는 원래 당시 부수상이었던 리셴룽(Lee Hsien Loong)이 1997년 4월 아르메니안 거리(Armenian Street)에서 개관한 전시관에 있었다. 이 전시관은 2005년 말에 문을 닫고 일부는 2008년 4월 페라나칸 박물관(Peranakan Museum)으로 재개관 전시되었다. 페라나칸 박물관으로의 개관을 주관하고

5) http://www.acm.org.sg/the_museum/about_acm.asp

조직한 것은 아시아 문명박물관이었고, 주도한 인물은 역시 현 수상이자 리관유의 아들인 리셴룽이었다. 반면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엠프레스 플레이스(Empress Place)에 2003년 3월에 문을 열었다.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지의 문명과 관련된 수집품에서 1,300여 점의 유물을 11개 전시실에서 보여준다. 전시된 유물들은 원래 래플즈(Raffles) 박물관의 동남아시아 민족지(民族誌) 수집품에서 승계된 유물과 그 이후 계속 취득한 유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다민족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수집되어 있어 각 지역의 역사·문화의 전시장으로 간주된다. 특히 중국의 종교, 학문, 전통 상징물, 미술품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국 관련 유물이 많은 것은 애초에 박물관을 열었을 때, 이미 전시의 2/3 가량이 중국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후 퍼라나칸 은공예품과 도자기, 보석을 비롯하여 싱가포르의 부유한 퍼라나칸 가정의 기념비적인 저택을 다시 재건축하여 보여주는 등 퍼라나칸 문화를 보여주는 쪽으로 점차 전시의 중심을 옮겼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로써 아시아 문명박물관은 단지 중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말레이,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받은 퍼라나칸 문화유산도 함께 전시하는 종합적인 문화, 문명 전시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박물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것이지만 기증 받은 유물도 적지 않아서 근, 현대 싱가포르 주민의 수집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민들의 기원(혹은 출신)이 되는 민족과 나라의 문화유산이 전시의 핵심이 된다. 즉, 국민의 다수를 접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수집하거나 기증 받은 유물을 전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각종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때로는 고유의 음악을 배경으로 해당 문화의 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는 일종의 이머전(immersion)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를 전시한 곳에는 각기 다른 전자 패널을 두어 센서를 통해, 혹은 전자 장치를 통

해 관람객들에게 자기 문화의 기원과 특징, 혹은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는 나쁜 관습으로 알려진 문화에 대해 해명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각기 기원이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시키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통합된 이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5. 아시아 문명박물관 ■



건물의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시관의 구성은 먼저 가장 이른 시기 동남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해당하는 남아시아 전시실을 1층에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층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각 종족들의 문명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이 구성되었다. 우선 싱가포르강을 따라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싱가포르강 전시관을 제1전시실로 하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의 순서로 전시실을 배치했다. 그 중에서 동남아시

아 전시실과 서아시아 전시실은 3층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도 이들 각각의 고유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고급 미술품과 유물 중심의 전시를 하는 공간과 생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 두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고유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만들었다.

그림 2-6.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전시관 배치도



• 싱가포르 다문화 전시관(Images of Singapore)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싱가포르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놀이 공간으로 떠오르는 센토사의 임비아 룩아웃(Imbiah Lookout)에 위치한 싱가포르 다문화 전시관은 멀티미디어 전시, 멀티스크린 극장에서 등산대 크기의 인형으로 싱가포르의 주요 역사를

재현해 보여주는 전시로 유명하다. 전시는 주로 이른 시기부터 현재까지 연대기적(chronological) 순서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처럼 꾸미는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영국 점령 이전의 말레이시아 지배기, 영국 점령기, 일본 점령기, 리완유 수상이 주도한 탈식민지기에 이르는 전 시기를 망라한 폭 넓은 전시가 포함된다.

■ 그림 2-7. 싱가포르 다문화전시관 외관 ■



1983년 처음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개척자와 항복의 방 박물관(Pioneers of Singapore and Surrender Chambers Museum)이라는 명칭으로 싱가포르의 첫 개척과 식민지 시기 사건과 생활을 보여주는 전시실이었다. 그 후 1994년에 ‘싱가포르 축제(Festivals of Singapore)’라는 섹션을 여기 포함시키고, 다시 현재의 명칭이 붙여지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에 리모델링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2005년에 ‘싱가포르의 네 가지 바람(Four

Winds of Singapore)’을 보여주기 적합한 멀티스크린을 갖춘 시설로 재개관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바람이라는 것은 싱가포르 인구 구성에 핵심적인 중국, 유라시아, 말레이, 인도에 기원을 둔 사람들의 공헌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지닌다. 이 2005년에 있었던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2006년에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수여하는 “세계문화유산센터 베스트 리인벤션(Best Reinvention of a Cultural Heritage Center)”상으로 테아상(Thea Award)을 받았다.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은 ‘국가의 영혼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very soul of the nation)’을 표방한다.⁶⁾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전해지는 민담, 전설, 사실들을 재구성하여 마치 자신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전시관의 기획의도이다. 이곳의 밀랍인형 전시관이 특별히 유명할 만큼 등신대 크기의 마네킹들은 이곳 전시의 현실감(reality)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전시관에 실물 크기의 인형을 통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각종 체험물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은 현대 기술을 적용한 이 전시관이 지닌 중요한 장점이다. 관람객이 보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나 전해오는 일화, 민담을 시각적인 장치나 멀티미디어를 통해 현실화시킴으로써 관람객은 직접 사건을 겪은 사람처럼 느끼고, 상상의 세계를 구체화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국가’의 일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독립 이전의 역사가 특히 빈약한 싱가포르에서 영국 식민지였을 때의 중국 상인들 모습이나, 인도인 노예들이 고무농장에서 작업하는 것, 말레이 어촌을 재현한 것은 부득이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거의 재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공동체 사

6) <http://www.sentosa.com.sg/en/attractions/imbiah-lookout/images-of-singapore>

회를 형성하여 고유문화로 불릴 만한 어떤 공동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의 과거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이와 같은 경험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고안물이다. 싱가포르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라고 하지만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원래 없다. 싱가포르란 나라가 공동체로 형성된 역사는 짧기 때문이다.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가 마치 14세기부터 형성된 문화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14세기의 말레이반도를 재현한다.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허구의 이미지 전시관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 없는 사고를 습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견학이 초등학생, 중학생의 일상 교육활동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된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림 2-8. 싱가포르 다문화전시관 내부 ▣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다문화 전시관이 새로 만들어낸 복합 문화공간인 센토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센토사 종합리조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락의 공간과 비치리조트,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전망대 역할을 하는 대형의 머라이언이 건립되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다문화 전시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의 위치는 레크리에이션을 추구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양면적인 도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Savage 2004, pp. 212~225).

5. 결론

싱가포르에서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고유 문화로 불릴 만한 아무런 유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머라이언을 비롯한 상징물과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이미지를 통한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일은 신생국가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아시아 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의 전시관은 국가가 싱가포르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도시의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일은 정부의 지원과 용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전시관과 전시된 사물은 관계당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센토사의 종합 유희, 오락단지에 대형 전망대인 머라이언을 건립하고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을 전망이 좋은 위치에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다민족 통합국가로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계획적인 시책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

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과 주요 전시관의 각종 장치들은 이러한 의도를 현재화하기 위한 고안물이 주류를 이룬다. 전시관들의 홈페이지와 홍보물, 팸플릿 등은 이들이 싱가포르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이라고 홍보하지만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싱가포르란 나라가 공동체로 형성된 역사는 짧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전시 관람을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국민’의 일원으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머라이언과 박물관, 전시관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 단위로 싱가포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싱가포르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들로 이뤄진 공동체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는 대외적,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중국계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계가 국민의 77% 가량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수적으로도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계의 문화유산과 미술이 적지 않고, 그들의 경제력이 막강하며, 공동체로서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을 멀리 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공산당을 중국이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인데 개방 이후,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현 정세에서는 굳이 친중국계 국민의 지력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대중국 친화정책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중국계 싱가포르 국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까지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박물관 전시관의 유물은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퍼라나 칸 유물을 비롯하여 말레이계나 인도계도 비슷한 비중을 두어 다민족 국민의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현재의 싱가포르를 있게 해온 지력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보고서는 박물관을 통해 드러나는 캄보디아의 국가정체성 규정 행위를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는 현대 캄보디아⁷⁾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을 이해하고 그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 분야는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

7) 2008년 현재 캄보디아의 인구는 1,340만 명(1998년에는 1,100만 명)이며, 크메르인 90%, 베트남인 5%, 중국인 1%, 기타 4%의 비율로 인구가 구성되었다. 전체 인구의 32%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한다(Richer 2009, 209).

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 중 하나인 빈한한 캄보디아(Richer 2009, p. 174)에서 문화 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국민/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이 캄보디아와 건설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게 매우 절실한 이 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한 후 국가통합 및 국민/민족의식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각 국의 역사 서술은 국민국가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 서술에서 정치가 앞서는 반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관심을 얻지 못한다(Ahmad & Ee 2003, p. xviii). 그러나 정치적 풍경 및 일상생활의 문화화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만큼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실재하는 문제이다(Kahn 1998, p. 2). 따라서 문화 구조에 대한 무관심과는 다른 차원으로 국민국가 설립의 시나리오는 문화 부문을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국민국가 설립 이후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국가통합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국립박물관이나 기념물과 같은 문화사물의 역할은 단연 두드러진다. 이미 19세기 중반에 서구에서 이루어진 박물관의 재개념화와 더불어, 박물관은 통치 도구로 활용될만한 문화적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았는가(Bennett 1995, p. 28). 그러나 여러 국가에 공통적인 이 현상에도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가별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겠지만,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식민시대 이전의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민시대 이후 건설된 근대국가의 정통성을 호소하기 위해 신생 국가는 자신의 뿌리를 식민시대 이전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왕조에서 찾을 것인가?

예컨대,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명명되었던 네덜란드 식민지는 독립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라는 명칭을 창작하여 신생독립국의 이름으로 선택하였다. 반

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의 한 지역이었던 캄보디아보호국은 식민지배 이전에도 이미 캄보디아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견 인도네시아에 서보다는 캄보디아에서 현대 국가의 정통성 찾기가 더 단순하고 자명하거나 덜 인위적인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현실은 인도네시아와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복잡적이고 중층적이다. 결국 캄보디아의 국가정체성 규정 작업도 다양한 요인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정체성은 크메르 정체성과 동의어로서, 이 규정은 크게 다음 두 맥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이다. 둘째,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지독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강제된 시기는, 자기 파괴의 광풍이 나라를 초토화시킨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집권기(1975~1979)이다.

현대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 극복 혹은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한국-캄보디아 관계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캄보디아 밖에서 이루어진 캄보디아 관련 연구 중 많은 부분은 대체로 프랑스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중 문화유산과 캄보디아 국가정체성에 집중한 연구로, 프랑스 파리1대학 현대아시아사연구소 소장 위그 테르트레(Hugues Tertrais) 교수가 편집하여 2008년 출판한 『앙코르 7~21세기 크메르적인 기억과 정체성』⁸⁾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발표 시기가 2008년인 점에서

8) Hugues Tertrais(éd.), *Angkor VIIIe-XXIe siècle. Mémoire et identité khmères*, (Paris: Editions

알 수 있듯이, 캄보디아의 문화유산과 국가/민족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최근 현상이다. 상기 연구서의 집필진은 캄보디아와 관련된 역사학자,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문학자, 건축가, 언론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앙코르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이 과거 및 현대 캄보디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 다른 연구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인 페니 에드워즈(Penny Edwards)의 『캄보디아: 국가의 건설, 1860~1945』⁹⁾를 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여러 장에 걸쳐 프랑스 식민시대에 ‘재발견’된 크메르 문화유산, 식민주의, 그리고 크메르 내셔널리즘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본격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미술사 및 고고학적인 접근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¹⁰⁾ 캄보디아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열리는 크메르 예술품 전시회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립박물관은 매우 가치 있는 분석 대상이다. 한편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한국이 캄보디아 정서(크메르 내셔널리즘, 우리에게는 낯선 친프랑스 성향, 뿌리 깊은 반태국 감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다듬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Autrement, 2008).

9) Penny Edwards, *Cambodge, The Cultivation of a Nation, 1860-1945*(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e, 2007).

10) 프랑스 파리1대학의 테르트레 교수는 현재 캄보디아국립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로 역사학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학생 한 명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3-1.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북동쪽에서 본 모습¹¹⁾



설치과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캄보디아국립박물관에 관한 캄보디아 및 프랑스 자료와 박물관 도록, 그리고 캄보디아 문화유산 및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캄보디아국립박물관(프놈펜 소재) 및 앙코르 유적지(씨엠립 소재)를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전시방식 등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관련 인사들을 면접하였다. 연구자의 캄보디아 연구방문은 2010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관련 인사 면접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수행되었다. 면접

11) 건물의 동쪽 정면 높이는 97.09미터에 달한다. 사진 출처 <http://www.cambodiamuseum.info>.

에 응한 인사는 총 세 명으로서 CHAN Somnoble, 언어학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부원장, 국립고등교육회의 의원(차관급); IV Chan, 역사학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국어연구소 소장; ROS Chantrabot, 문학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교수이다. 면접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넷째, 인도차이나 전문가인 프랑스 파리1대학교 현대아시아연구소 소장 위그 테르트레 교수를 파리에서 면접(2010년 7월 16일)하였으며,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크메르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소재 국립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을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전시방식 등을 면밀히 관찰(2010년 8월 1일)하였다.

다섯째, 캄보디아와 프랑스에서 수행된 박물관 참여관찰, 관련 인사 면접 및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현재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은 프랑스의 보호국이던 시기에 프랑스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앙코르 유적지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연구, 선전되었다. 또한 17세기 말 이후 시암(Siam 태국)으로 넘어간 앙코르 유적지를 포함한 캄보디아 북부 지역은(Jacques 2008, p. 90)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의 압력에 의해 캄보디아로 반환¹²⁾되었다. 물론 프랑스의 이러한 활동이 식민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면접한 캄보디아 지식인들은 문화유산 분야와 관련하여 프랑스 식민지 경험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크메르 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이 이 시기에 획득되었다는 데

12) 1907년 3월 23일 체결된 프랑스-시암 조약에 따라 캄보디아보호국은 바탐방(Battambang), 시소폰(Sisophon), 시엠립(Siem Reap)을 시암으로부터 돌려받았다(Tertrais 2008, 221).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독립 이후에는 크메르 루즈의 집권으로 대표되는 오랜 혼란을 겪었고, 1993년에서야 정국의 안정을 경험하였다 (Richer 2010, pp. 97~98; Mikaelian 2008, pp. 143~147).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는 문화 부문에서 프랑스의 식민지배 유산을 극복하려하지 않거나, 극복할 여력이 없다.

요컨대 캄보디아에서 국민/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서구 혹은 식민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 나라(태국)라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예는 상당히 흥미로우며, 이로 인해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앙코르 유적이거나 크메르 미술 및 건축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극동학원(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을 중심으로 왕성히 이루어졌고 수많은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 반면 캄보디아의 국가정체성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본 보고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 역사 및 현황에서는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구성 및 조직적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제3장 분석에서는 박물관의 전시 방식을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먼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를 분석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정체성이 크메르 정체성으로 정의됨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캄보디아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해외 기획전을 관찰함으로써 크메르 정체성의 원류로 앙코르가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것이다. 제4장 소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담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¹³⁾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은 1919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 총독령을 통해 캄보디아의 국립박물관으로 창관되어(Groslier 1931, p. 7)¹⁴⁾, 1920년에 “알베르사로박물관(Musée Albert Sarraut)”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개관하였다. 알베르 사로는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의 총독으로서, 박물관은 행정적으로는 총독부의 캄보디아예술국(Direction des Arts cambodgiens)에 속했으며, 학문적으로는 프랑스크극동학원의 지휘를 받았고, 극동학원 원장의 감독 하에 놓였다.

프놈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역으로 꼽히는 왕궁 주변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은 전통적인 크메르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이 건물을 고안한 인물은 박물관 초대 학예관을 역임한, 극동학원 소속 고고학자 조르주 그로리에(George Groslier)이다. 한편 세부 장식 및 치장은 캄보디아예술국 산하 캄보디아미술학교에 속한 캄보디아 장인 및 학생들의 작품이다. 두 개의 목직판 출입문의 문양은 반테이 스투이(Banteay Srei, 10세기) 사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1968년에는 캄보디아 건축가(Vann Molyvann)의 지휘 아래 건물 정비가 이루어졌다.

박물관의 건면적은 5190㎡로서, 이 중 2800㎡가 전시공간으로 할애되었

1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Georges Groslier, *Les Collections Khmères du Musée Albert Sarraut Phnom-Penh*(Paris : Les Editions G. Van Oest, 1931), pp. 5-14; Khun Samen, *Le Nouveau Guide du Musée national Phnom Penh* (Phnom Penh: Département des Musées, 2007 (2002), 2e éd.), pp. 11-13; Helein Ibbitson Jessup, *Masterpieces of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An Introduction to the Collection* (Hong Kong: Friends of Khmer Culture, 2006), pp. 8-9; Louise Allison Cort and Paul Jett (eds), *Gods of Angkor. Bronz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Singapore: Smithsonian Institution, 2010), pp. 8-11;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공식 웹사이트 <http://www.cambodiamuseum.info/>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 영문사이트는 2007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다.

14) 캄보디아는 1863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다. 엄격한 의미의 식민지와는 달리 보호국은 명목상 주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박물관은 공식 명칭이 어떻든 처음부터 캄보디아의 국립박물관이었다.

그림 3-2. 박물관 중앙의 사각 뜰과 야마(Yama) 상¹⁵⁾



다. 박물관 개관 이후 소장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장품의 상당 부분은 왕실, 다수의 사원, 앙코르 유적지에서 왔으며, 소장품은 선사시대, 전(前) 앙코르 시대, 앙코르 시대, 후(後) 앙코르 시대의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있다. 한편 캄보디아에 있는 다른 박물관이 소장한 수많은 사물들이 1970년 내전 발발 이후 이곳으로 이관되었다. 크메르 루즈 치하에서 폐쇄되었던 국립박물관은 크메르 루즈 실각 직후인 1979년 4월 13일 재개관하였다.

15) 사진 출처 Kent Davis, "Cambodia's National Museum Marks 90th Anniversary"(April, 16 2010), <http://www.devat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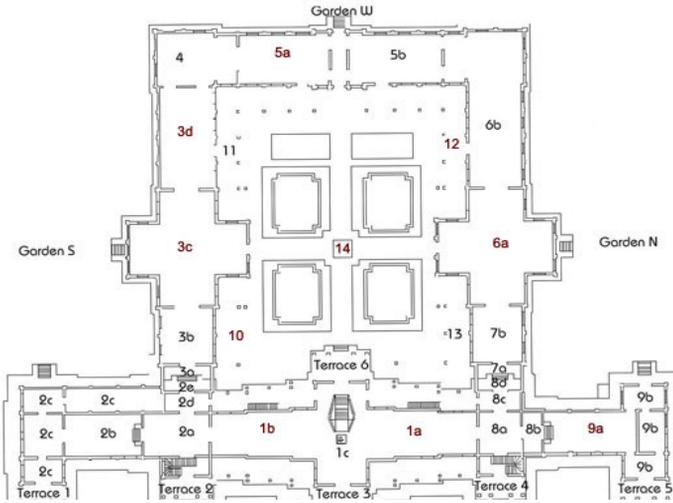
한편 박물관 운영권이 캄보디아 당국에게 넘어 온 해는 독립 직전인 1951년이다.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1953년)한 이후에도 박물관은 프랑스 학예관들의 지휘를 받다가, 1966년부터 캄보디아 학예관이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66년에는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Samen 2007(2002), p. 11). 박물관은 1979년에 “고고학박물관”으로 개칭되었으나, 마침내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오늘에 이른다.

박물관은 캄보디아 전통 건축의 특징을 따라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전시실로 쓰이는 네 회랑은 비율을 철저히 맞춰 설계되었다. 또한 네 개의 회랑은 네모난 뜰을 둘러싸며 4변형을 이루고 있다. 각 회랑의 내부는 굳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20세기 전반기에 건축된 전시관으로서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조도를 유지하는 각 회랑은 구조적으로 원활한 통풍을 보장한다. 지붕, 문, 창문 역시 전통적인 문양으로 제작, 조각되었다. 동쪽 회랑 양 옆의 날개는 1924년 확장 공사를 통해 추가된 공간이다.

소장품은 재질에 따라 돌, 금속, 나무, 도자기 등 크게 네 범주로 구분된다. 전시 공간 외에도 박물관은 기념품점, 도서관, 복원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품 도록은 2001년에 프랑스극동학원에 의해 편집되어 출판되었고, 박물관 가이드북은 2002년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산하 박물관부에 의해 출판되어 2007년 2권이 인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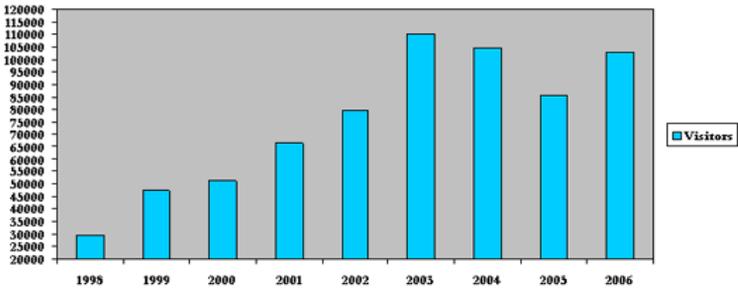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은 캄보디아 정부 문화예술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및 박물관 건물의 복원 작업은 국제 사회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례로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는 후원자들(Bickford Family Trust and FOKCI¹⁶⁾) 덕분에 구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장품 목록화 작업도 후원자(Leon Levy Foundation)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3.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도면17)



한편 아래의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은 자력으로 특별 전시를 개최할 여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중요한 특별 전시회는 외국 우수 박물관에 의해 외국에서 조직되었다.

그림 3-4. 캄보디아국립박물관 방문객 수18)



16) Friends of Khmer Culture

17) 도면 출처 <http://www.cambodiamuseum.info>

18) 통계 출처 <http://www.cambodiamuseum.info>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박물관 방문객 수는 1998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¹⁹⁾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캄보디아의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그림 3-5. Hevajra, Banteay Kdei, Angkor, Siem Reap, 2nd half 11th C. Bronze, O. 30m.²⁰⁾ ■



19) 앙코르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는 1992년이다.

20) 그림 출처 Jessup, Helein Ibbitson, *Masterpieces of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An Introduction to the Collection* (Hong Kong: Friends of Khmer Culture, 2006), p. 73.

상설 전시는 2010년 현재 네 개의 회랑에서 큰 변동사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이다. 동쪽 회랑의 남쪽은 선사시대에 할애되었다. 동쪽 회랑의 중심부에는 6~13세기에 제작된 청동상을 모이둔 청동상의 방이 자리하고 있으며, 방 북쪽에는 후(後) 앙코르 시대(15~19세기)²¹⁾의 불상이 배치되어 있다.

남쪽 회랑에는 6~11세기에 걸친 프놈 대(Phnom Da)양식에서 바 푸온(Ba phuon) 양식의 사암 조각상을 모아 놓고 있다.

■ 그림 3-6. Vishnu. Phnom Da, Angkor Borei, Takeo, late? 6th – early 7th C. Sandstone, 2.87m.²²⁾ ■



21) 캄보디아 역사에서 시대 구분의 중심축은 앙코르 시대이다. 선사시대 - 전 앙코르 시대 - 앙코르 시대(9~14세기) - 후 앙코르 시대(15~19세기) - 식민 시대(1863~1953) - 독립 이후(Albanese 2006, 16~41; Forest 2008, 20~56).

22) 그림 출처 Jessup, *Masterpieces of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p. 27.

서쪽 회랑에는 앙코르 와트 양식(1100-1175)과 바이온(Bayon, 1181-1219/20) 양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북쪽 회랑은 민속 전시실로, 이 공간에는 생활 사물, 공예품, 도자기 등이 배치되어 있다.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박물관이 소장한 작품은 총 약 14,197점에 달하며, 현재 회랑에 전시된 작품은 약 1,877점(전체 소장품의 약 15.2%)에 이른다.²³⁾

■ 그림 3-7. Female divinity. Angkor, Siem Reap, 1st half 12th C. Sandstone 0. 865 m.²⁴⁾ ■



23) <http://www.cambodiamuseum.info>

24) 그림 출처 Jessup, *Masterpieces of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p. 75.

방문객은 캄보디아의 정체성이 크메르 정체성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상설 전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크메르 예술품 소장처 중 한 곳”으로, “네 종류의 소장품 주요 소재(청동, 돌, 도자기, 나무) 각각을 대표하는 사물들은 크메르 정체성과 크메르 양식을 잘 드러낸다. 또한 이 걸작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크메르 장인들이(인도 문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도 예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크메르 특성을 부여하여 전적으로 독창적인 예술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기도 하다.

2009년 프랑스 독자를 겨냥해 탁 토티안(Thach Toan, 프놈펜의대 교수)이 출판한 『크메르인에 대한 이야기. 캄보디아 사람들의 오디세이』²⁵⁾에 따르면, 크메르족은 인도의 문다(Munda)족에서 기원하였는데, 문다족은 인도를 떠나 오랜 세월이 걸쳐 현재의 태국 및 메콩강 중남부 걸쳐 자리를 잡았다. 이 종족이 엄격한 모계 사회를 유지한 데에서 크메르라는 명칭이 나왔으며, 크메르는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는(kh: ~에 속한 + Mé: 어머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Toan 2009, p. 11). 한편 캄보디아라는 명칭은 캄부자(Kambuja)라는 왕국에서 유래했는데, 크메르인으로 구성된 이 왕국은 태국 북동부, 라오스 중남부 및 캄보디아 북부 일부에 걸쳐 존재했던 왕국으로, 전설에 따르면 캄부자는 캄부(Kambu)라는 크메르 브라만이 건설한 왕조로서 ‘캄부가 낳은’이라는 의미라고 한다(Toan 2009, p. 12). 저자가 지지하는 상기 이론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건 아니건, ‘크메르인과 크메르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저자는 캄보디아인 및 캄보디아가 아닌 크메르인 및 크메르인의 나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²⁶⁾

25) Thach Toan, *Histoire des Khmers, L'Odyssée du peuple cambodgien*(Paris: L'Harmattan, 2009).

26) 한편, 1941년 조르주 세데스(George Coedès)의 머리말과 함께 출간된 매우 학문적인 앙코르 가이드북의 저자도 크메르 및 캄보디아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한 이론 및 신화를 소개하지만, 캄보디아라는 용어는 고대 크메르인의 현재 후손을 지칭한다고 결론짓는다(Glaize 2005(1944), 3).

이런 경향은 연구자가 면접한 세 명의 캄보디아 교수들에게서도 관찰된다. 이들 모두 캄보디아의 정체성은 크메르 정체성이라고 주저 없이 단언하였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크메르 문화의 대변자, 혹은 크메르 정체성의 대표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면접 대상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캄보디아라는 명칭은 일개 왕조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명으로 캄보디아왕국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크메르왕국이라는 국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 크메르인이라는 자기규정은 강력한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전제로 이루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 캄보디아를 앙코르 시대 크메르 제국의 직계 후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대 그리스인들과 고대 그리스인들 간의 유사성과 비교하여 현대 크메르인들과 앙코르 시대 크메르인들 사이의 거리는 단연 훨씬 좁다”(Tertrais 2008, p. 11)는 것이 프랑스 파리1대학 테르트레 교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캄보디아의 정체성을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인 크메르로 규정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캄보디아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문화기구인 이 박물관이 프랑스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인들에 의해 소장품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인들의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 크메르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박물관의 초대 학예관 조르쥬 그로리에가 집필하고, 프랑스 극동학원 원장 조르쥬 세대스(George Coedès)가 머리글을 덧붙여 1931년 출판된 박물관 도록은 『프놈펜 소재 알베르사르박물관의 크메르 컬렉션』²⁷⁾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27) Georges Groslier, *Les Collections Khmères du Musée Albert Sarraut Phnom-Penh*(Paris : Les Editions G. Van Oest, 1931).

따라서 식민주의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잊혀진’ 문명을 ‘순수한 학문적 의도’로 발굴하여 자국의 통제하에 놓인 캄보디아의 일부로 인정받는 작업은 상당히 유용한 식민지 팽창의 도구이자 선전 수단이었다. 더구나 이 식민주의 프로파간다 자체는 결과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 확장, 혹은 실지 회복에 기여했다. 이러한 프랑스 식민주의의 팽창 및 학문적 성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나라는 캄보디아라기보다는 시암이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시암인들은 17세기 말 이후 앙코르 지역을 포함한 캄보디아 북부에 자리 잡았으나, 1907년 프랑스의 압력으로 인해 이 지역을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캄보디아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군사력 및 외교력 외에도 프랑스는 이 반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소위 학문적, 문화적 명분, 다시 말해 ‘크메르 문명의 적자 계승’이라는 명분을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식민 시대 프랑스인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유포하고 유행시킨 크메르 유산의 연속성은 현대 캄보디아인들이 갖고 있는 크메르 정체성 혹은 크메르 내셔널리즘의 ‘학문적’ 혹은 ‘과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에게 앙코르는 신화, 더 나아가 전설일 뿐이었다. 연대기와 비망록에서 좁은 의미의 역사는 이 신비한 앙코르 시대 이후에서야 시작된다. [...] 앙코르 신화는 20세기 초부터 학자, 박식한 행정가나 군인들의 작업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 [...] 이 작업을 통해 앙코르라는 과거와 캄보디아라는 현재 사이에, 그리고 앙코르의 건축가들과 오늘날의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캄보디아 역사의 전망이 확장되었다. [...] 동시에 이들의 작업을 통해 식민 사업이 문명화에 기여한다는 정당화가 탄력을 받았다”(Forest 2008, p. 18).

조르쥬 세대스에 따르면 20세기 초의 교양 있는 캄보디아인들조차 앙코르의 건설자들이 자신들의 먼 조상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재인용 Tertrais 2008, p. 8)에도 불구하고, 이후 캄보디아인들은 프랑스인들의 ‘기여’에 기대어 앙코르를 캄보디아 정체성의 정수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인들의 발굴과 복원 작업으로 인해 앙코르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질되었다. 순례지였던 앙코르는 프랑스인들의 손을 거쳐 현지 신앙 체계와의 결합을 상실하였고 유럽 낭만주의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Edwards 2007, p. 126). 또한 ‘프랑스만의 인도’를 갖고 싶어 했던 프랑스는 앙코르 와트의 불교적 요소를 세탁하는 재(再)힌두화를 추진하여, 불상을 이동하고 승려들을 앙코르 구역에서 추방하였다(Edwards 2007, pp. 133~134).

이러한 프랑스적인 개발역사에도 불구하고 크메르 루즈의 학살 및 내전 등으로 인해 한 세대 이상의 수많은 지식인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세기에 이루어진 프랑스인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자 집단이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많은 캄보디아 지식인들에게서 크메르 정체성과 친프랑스 성향은 아직 분리되기 어려운 한 짝이 아닐까?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²⁸⁾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이 자국 내에서 개최한 소수의 기획 전시회는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최초의 기획 전시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시회의 제목은 <국립박물관의 가네시(The Ganesha of the National Museum)>이다. 이후 박물관은 <후(後) 앙코르 양식의 불상(Post-Angkorian Buddha)>, <여신 데비(Preah Neang Devi)>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8)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기획전에 대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공식 웹사이트는 2007년 전시회까지 소개한다. <http://www.cambodiamuseum.info>.

기획 전시회를 조직하였다. 박물관은 새로운 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 외부의 후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반면 캄보디아 국외에서는 다수의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해외 기획전은 1992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ustralia)에서 열린 <앙코르의 시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보물(The Age of Angkor: Treasur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²⁹⁾이다. 이 전시회는 앙코르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1992년에 개최되었다.

1997년 미국 워싱턴 소재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에서 열린 <앙코르와 고대 캄보디아의 조각: 영광의 밀레니엄(Sculpture of Angkor and Ancient Cambodia. Millennium of Glory)>³⁰⁾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과 프랑스 국립기예박물관이 소장한 99점의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워싱턴 전시회 이후 파리와 도쿄 및 오사카로 이동하여 계속³¹⁾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앙코르 와트 보물전(The Treasures of the Angkor Empire)>³²⁾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이 열렸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하는 기획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 다른 전시회 제목을 나열하자면 <세계유산 - 앙코르 와트 전시회(World Heritage - Angkor Wat Exhibition new line)>³³⁾, <앙코르 와트와 크메르 왕조의 영광(Angkor Wat and the Glory of the Khmer Dynasty)>³⁴⁾, <앙코르 - 캄보디아의 신성한 유산

29) 1992년 8월 22일 - 10월 25일.

30) 1997년 6월 29일 - 9월 28일.

31) 1997년 1월 31일 - 5월 26일 / 1997년 10월 28일 - 12월 26일 / 1998년 1월 15일 - 3월 22일.

32) 2004년 6월 29일 - 9월 12일. (앙코르 와트 보물전)은 공식 국문 제목이다. 이 전시회의 확보집은 다음과 같다. 배병우 외, 『신들의 정원, 앙코르 와트』(서울: 글씨미디어, 2004).

33) 2005년 7월 3일 - 8월 28일.

34) 2005년 7월 - 9월 11일.

(Angkor - Sacred Heritage of Cambodia)>³⁵⁾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하반기 현재 열리고 있는 기획전으로는 미국 워싱턴 소재 국립스미소니언재단 산하 아더엠새클러미술관(Arthur M. Sackler Gallery)에서 2010년 5월 15일에서 2011년 1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앙코르의 신들: 캄보디아국립박물관에서 온 청동상(Gods of Angkor. Bronz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을 들 수 있다.³⁶⁾ 이 전시회는 2011년 2월 22일에서 8월 14일 동안 로스앤젤리스 소재 제이폴게티박물관(J. Paul Getty Museum)에서 계속될 것이다.³⁷⁾

이상 해외에서 열린 기획전의 제목만 훑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전시회들이 하나같이 앙코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시회 제목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앙코르의 시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보물>
- <앙코르와 고대 캄보디아의 조각: 영광의 밀레니엄>
- <앙코르 와트 보물전>
- <세계유산 - 앙코르 와트 전시회>
- <앙코르 와트와 크메르 왕조의 영광>
- <앙코르 - 캄보디아의 신성한 유산>
- <앙코르의 신들: 캄보디아국립박물관에서 온 청동상>

또한 이 전시회들은 ‘보물’, ‘영광’, ‘유산’, ‘신’과 같은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앙코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신비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최대한

35) 2006년 12월 15일 - 2007년 12월 2일

36) 2010년 8월 20일 현재 캄보디아국립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소식이다.

37) 이 전시회의 화보집은 다음과 같다. Louise Allison Cort and Paul Jett (eds), *Gods of Angkor, Bronz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Singapore: Smithsonian Institution, 2010).

활용한다.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제목이 필요함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소위 범상치 않은 제목이 잠재적인 미술관 방문자들의 상상에 근접하지 않다면, 그 제목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기획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기대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싶어 하는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요컨대 해외 기획전을 통해 캄보디아 정체성의 실체는 찬란한 앙코르라는 담론이 끊임없이 생산, 재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앙코르의 여러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앙코르 와트는 캄보디아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컨대, 아래 [그림 3-8]의 캄보디아 국기에 등장하는 흰 색의 앙코르 와트는 식민지 시대에 첫 등장한 것으로(Forest 2008, p. 19),³⁸⁾ 이 도안은 현재까지 캄보디아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림 3-8. 캄보디아 국기(1993년~현재)³⁹⁾ ▣



38) http://www.crwflags.com/FOTW/FLAGS/kh_hstry.html; 캄보디아 국기에 관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Whitney Smith, "New flags: State of Cambodia," *The Flag Bulletin*, XXIX-1, 133 (1990), pp. 3-15.

39) 그림 출처 http://fr.wikipedia.org/wiki/Drapeau_du_Cambodge

해외 전시회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밖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메르 작품들”(Jarrige 2001, p. 62)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앙코르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서구에 퍼뜨리고,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앙코르를 크메르 정체성 및 정통성과 결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메박물관은 크메르의 종교적 사물들을 그 맥락에서 건어내어 박제화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며, 앙코르 유적지에서 온 크메르 예술품을 상설 전시함으로써 앙코르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여전히 한 몫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기메박물관은 아시아예술 박물관⁴⁰⁾으로서, 동남아시아실은 1층에 자리한다. 동남아 컬렉션은 크메르 및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컬렉션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크메르 컬렉션은 수적으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공간 활용에서 있어서도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메박물관 화보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이 소장한 동남아시아 컬렉션의 핵심은 크메르 예술이다. 더구나 기메박물관은 앙코르 시대에 명멸한 주요 양식을 반영한 작품을 각각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다(Jarrige 2008, p. 62). 기메박물관에서도 당연히 캄보디아 예술과 크메르 예술은 동의어이다. 특히 관람객이 입구를 통과 하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1층 중앙 공간에는 앙코르 유적지에서 온 조각 및 건축 장식적 요소가 배치되어 있다.

4. 결론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40) 1층에는 동남아시아, 인도, 2층에는 고대중국, 중앙아시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네팔-티베트, 3층에는 고전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온 전시물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 기메박물관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guimet.fr>.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상 캄보디아 국가 차원에서 더 중대한 문제는 박물관을 통한 국민 교육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을 활용한 외교적 및 경제적 이익 추구일 것이다.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은 정작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서는 교육적 및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매우 빈곤한 캄보디아의 현실에 기인한다. 또한 현대사의 비극을 겪은 캄보디아에 지식인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도 박물관을 통한 국민 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실패를 모르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인 것 같다. 20세기 전반기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 와트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캄보디아에서 관광업은 섬유업 다음 가는 소득원으로서, 앙코르는 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그 이후 관광지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96년 90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던 앙코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04년 한 해 동안 1백만 명에 달했다.⁴¹⁾

외교적인 면에서, 이 담론은 크메르 문화 및 영토 수호의 근거가 된다.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태국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11세기 완공) 사원이다.⁴²⁾

41) 2008년에는 관광객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관광객 공급처인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2008년 12월에 방콕공항이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Richer 2009, 174; Jammes 2010, 134).

42) 이 사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국의 최근 분쟁 및 갈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캄 주재 태 대사관 난동 피해 540억 원 (연합뉴스 2003.2.3);” 태국-캄보디아, 고대 사원 놓고 전쟁 벌이나? “(포커스 인 아시아, 2009.11.10);” 태-캄보디아군, 국경서 총격전 “(연합뉴스 2010.6.9);” 캄보디아-태국 국경갈등 다시 격화”(연합뉴스 2010.7.29);” 태-캄보디아, 유엔서 국경분쟁 ‘외교전’

캄보디아 서북부 국경에 위치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에 의해 캄보디아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태국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⁴³⁾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1907년 체결된 프랑스-시암 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심리가 벌어질 당시 태국은 내분으로 인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⁴⁴⁾ 2008년 7월 캄보디아의 신청으로 이 사원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프레아 비헤아르 관리계획을 제출, 승인을 요청하자 태국이 외교 총력전을 펼쳐 이를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⁴⁵⁾

연구자가 면접한 캄보디아 교수들에 따르면, “오늘날 이 유적지가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태국이 재강탈을 시도하는 것”이 분쟁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1907년에 체결된 프랑스-시암 조약을 현재의 태국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크메르인이 건축한 크메르 유산이라는 주장은 캄보디아인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또한 과거에 시암이 이 지역을 침범하여 점령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당연히 크메르 문명의 적자인 현대의 캄보디아에게 속한다는 것이 캄보디아의 입장이다. 이 주장은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이라는 도식에 따라 현대 캄보디아인에게는 지극히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다.

요컨대,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 정체성이 캄보디아 국가정체성으로 자

“(연합뉴스 2010.8.10).” 태 총리, ‘사원 영유권 분쟁 외부개입 불필요’ (연합뉴스 2010.8.11); “캄보디아, 반 총장에 태외 국경분쟁 중재 의뢰 W” (연합뉴스 2010.8.13).

43) “캄보디아-태국 국경갈등 다시 격화” (연합뉴스 2010.7.29).

44) “태국-캄보디아, 고대 사원 놓고 전쟁 벌이나?” (포커스 인 아시아, 2009.11.10).

45) “태-캄보디아, 유엔서 국경분쟁 ‘외교전’” (연합뉴스 2010.8.10).

리 잡은 과정이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현대 캄보디아에게 있어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 담론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그리고 특히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캄보디아를 보호국으로 삼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랑스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량을 늘려가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⁴⁶⁾ 대한민국은 앙코르 유적지의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에 큰 관광 수입을 안겨주는 주요 국가 중 하나⁴⁷⁾일 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가 점점 더 많은 교류를 원하는 나라(Jammes 2010, p. 136)이다. 2009년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낸 예라 할 수 있다(Jammes 2010, p. 136).

물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캄보디아의 비중은 다른 주요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책임감 있는 자세는 캄보디아의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다져져야 한다. 캄보디아인이 가진 민족적 혹은 역사적 자긍심의 원천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 자긍심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화해야 하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와 태국의 긴장관계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라는 사실을 인

46) 2009년 파리정치대학 출판사가 내놓은 저서 및 프랑스외무부 산하 현대동남아시아연구소(IRASEC)가 매년 발간하는 동남아백서의 캄보디아편을 참고할 수 있다. Philippe Richer, *Le Cambodge de 1945 nos jour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2009); IRASEC (dir.), *L'Asie du Sud-Est 2009* (Bangkok: IRASEC, 2009); *L'Asie du Sud-Est 2010* (Bangkok: IRASEC, 2010).

47) 2006년 이후 대한민국은 캄보디아 제1의 방문국으로서, 한국인은 외국인 관광객의 15~20%를 차지한다. 일본인은 8~10%, 미국인은 5~7%로 그 뒤를 잇고 있다(Jammes 2010, 134).

식함으로써, 우리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시각이 국가정체성의 규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또한 외교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연구자가 면담한 캄보디아 교수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캄보디아는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동남아 활동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 이 주장에 우리가 동의하건 아니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의 외교적, 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캄보디아의 역사 및 문화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장기적인 우호 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 및 특징을 탐구한 본 보고서가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 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1. 서론

가. 연구목적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의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Indonesia)의 전시형태에 표상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후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한 국가들은 박물관이나 모뉴먼트, 민속촌 건설 사업 등을 통해 국가적 내러티브를 대중에게 유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것은 이러한 공간들이 사실상 국가정체성을 규명하고 교육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시대에 수집된 다양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의 전시형태 및 전시유물 선택 양상을 살펴보

면 박물관에 표상된 담론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선전해 온 국가적 내러티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사교육과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 네덜란드 식민 영토를 물려받아 탄생한 공화국 내에 거주하며, 공화국 탄생 이전에 역사적·정치적·문화적으로 별다른 공동의 기억을 소유하지 못한 수백 개의 종족에게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사업에는 과거의 공통된 기억을 되살리고 이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국가적 내러티브를 보급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의 전시를 살펴보면 공화국이 수십 년에 걸쳐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 구성을 위해 선택, 재생한 과거의 기억이 국립박물관에서 표상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 취사선택한 과거의 특정 기억에 의해 구축된 과거는 국민 국가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식민 내러티브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이 식민지 시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고수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박물관에 표상된 식민담론의 영향은 관람객들에게 “미지의 동양”에 대한 서구인이 지닌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을 채워주는 데 부족함이 없지만 현지 역사와 문화를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전시방식, 그리고 전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어떤 내러티브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답으로 이 국립박물관이 식민시대의 유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처럼 박물관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효율적인 도구나 매체로 활용되어오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런 목표 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1) 박물관에서 강조되거나 누락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무엇인가? 2) 이 박물관에서

어떤 종류의 유물들이 전시 아이টে으로 선택되었는가? 3) 이 유물들의 전시 형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4) 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에 나타난 식민사관은 어떠한가, 이것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추구해 온 국가정체성의 향방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자 우선 박물관 역사를 개관하고, 박물관의 조직적 특징과 전시양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나. 연구방법

인도네시아 정부들은 수많은 역사박물관과 모뉴먼트, 민속촌 (Taman Mini Indonesia Indah) 건설 사업을 통해 각 정부가 선전하는 정치적 내러티브를 충실히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만한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의식 있는 대중들은 이러한 매체들을 정부의 권위주의를 선전하고 국민들에게 국가통합만을 최상의 가치로 주입시키려는 사상교육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화적 프로젝트를 통하여 상상된 공동체를 창조하고 정부의 정치적 담론을 유포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기존연구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식민항쟁과 공화국 수립, 수하르토의 정권 수립의 빌미를 마련해 준 1965년의 공산당 소요 등의 역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사박물관이나 군 박물관, 인도네시아 전역에 세워져 민족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는 영웅들을 형상화 한 동상들에 관한 연구는 이미 존재한다 (Antlöv 1996; Schreiner 1997; McGregor 2007).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적 기념물이나 역사박물관들과 애초부터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식민통치기간에 수집된 민속 유물을 전시한 이 박물관은 후대의 공화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내러티브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식민정부가 수집한 유물들이 인도네시아의 “과거”를 상상하는 훌륭한 도구임

을 공화국 지도자들이 인식한 결과 그 유물 전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박물관장이나 큐레이터들이 간과한 점은 바로 이러한 식민 박물관이 표상하고 있는 식민담론까지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기존 인도네시아의 박물관 연구에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은 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내러티브를 표상한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므로 학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이 박물관의 정치적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캐서린 맥그레거(2004)만이 이 박물관이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으나 그녀의 짧은 논문은 박물관의 한 전시유물인 전통 가옥 모형에 반영된 식민담론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재로 말미암아 본 논문은 2차 자료 분석보다는 직접 박물관의 전시양상을 관찰하여 박물관에 표상된 내러티브가 국가적 내러티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내러티브를 밝혀냄에 있어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그의 저서,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에서 밝힌 대로 어떻게 식민통치 세력이 박물관을 식민영토를 상상하고 그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했는가에 대해 기술한 인식적 발견을 토대로 사용했다(Anderson 1990, pp. 179~181).

연구자는 이를 위해 7월 23~27일에 걸쳐 국립박물관의 전시를 관찰했으며, 박물관 도록과 박물관 발전계획안 등을 수집했다. 또한 보충 자료로써 자카르타 국립 도서관 등에서 국립박물관 관련 도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대부분의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했으며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전시실(보석전시실 등)의 사진은 박물관 도록에서 발췌했음을 밝힌다.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현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신은 1778년 4월 24일에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세운 <예술 및 과학 증진을 위한 바타비아 협회(Batavian Society for the Arts and Sciences)>이다. 창립자인 라더마커르(J.C.M. Rademacher)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중역으로서 자카르타의 깔리버사르街(Jalan Kalibesar)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박물관으로 기증했다. 당시 동인도회사는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했고, 동인도 회사원들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빴다.⁴⁸⁾ 그러나 라더마커르는 프리메이슨(Freemason) 단체의 회원으로서 계몽을 통한 사회 발전에 꿈을 가지고 있었다(Sedyawati 1997, p. 15). 바타비아 협회는 동인도회사의 총독이자 라더마커르의 장인이었던 드 클레르크(De Klerk) 등을 포함한 동인도회사 중역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공익 증진”을 목표로 발족했다. 바타비아 협회의 자극을 받고 영국도 이후 캘커타에 “벵갈 아시아 협회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을 설립하기도 했다(Sedyawati 1997, p. 16).

바타비아 협회는 1811~1816년 간 군도를 식민통치했던 영국의 식민총독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 밑에서 더욱 발전했다. 래플즈는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타비아 협회의 소장직을 이어받아 박물관 컬렉션을 발전시켰다. 래플즈는 유물의 숫자가 많아지자 전시 공간을 넓히고자 자카르타의 마자파히트가(Jalan Majapahit)에 박물관을 위한 새 공간을 마련했다. 이후 다시 군도를 접수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의 박물관 입지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으며 1862년에

48)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내부 부정부패의 심화로 1799년에 파산했다.

박물관을 대중에게 공개했다(Rufaedah eds. 2008, p. 2).

1923년에 이르러 이 박물관은 과학 증진 및 기타 정부 프로젝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왕실(royal)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후 이름이 <예술과 과학 증진을 위한 왕실 바타비아 협회(Koninklijk Bataviaasch Genootschap van Kunsten en Wetenschappen)>로 바뀌었다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이후 1950년에 인도네시아 문화원(Lembaga Kebudayaan Indonesia)으로 변경되었다(Rufaedah eds. 2008, p. 3). 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네덜란드인들이 경영하던 이 박물관은 1962년에 경영권을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이양했고, 이후 1979년 5월 28일자 교육문화부령(No. 092/0/1979)에 의거하여 국립박물관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후 국립박물관은 대중의 정서와 삶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문명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가 간 화합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정보와 관광자원으로 기능한다는 목표 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Rufaedah eds. 2008, p. 3)

나. 박물관 구조

국립박물관은 자카르타의 중심가인 머르데카 바랏(Merdeka Barat)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은 총 2만 5천㎡의 땅에 총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건물은 유리창으로 외관이 장식된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구관(A관)은 1862년에 1만 여 ㎡의 면적에 지어졌다. 한편 1996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07년에 완공된 신관(B관)은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층부터 4층까지가 전시실이다. 지하에는 아세안 관(ASEAN Room)이 위치해 있는데 아직 개장하지 않았다. 이밖에 건축 계획 중인 C관은 지하 2층과 지상 10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총 4만 ㎡에 달할 계획이다. 현재 박물관에는 전시장 이외에 로비와 강당, 카페테리아, 기념품점, 서점과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구관의 건물 앞에는 태국의 쥘라롱꼰 대왕(King Chulalongkorn)이 1871년에 박물관을 방문하고 기념으로 증정한 코끼리상이 놓여 있으므로 코끼리관(Gedung Gadjah)라고도 불리며 그리스 도리아식(Doric) 건축 양식을 하고 있다. 신관은 조상(彫象)관(Gedung Arca)이라 불린다. 이 두 건물은 식민지 시대 모아놓은 컬렉션을 바탕으로 현대에 발굴된 총 1만 4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공간의 부족으로 아직 그 중 30% 밖에 진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된 유물의 특징으로는 비단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한 유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군도에서 발견된 외국 물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자기와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나침반, 육분의) 등은 모두 중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전시된 유물이 반드시 현지인의 창조적 재능(local genius)이 나타나지 않아도 군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면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 양식을 위해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금석학자, 언어, 고문서학자, 도자기학자 등이 조언을 했다. 이들은 뿌르바짜라카(Poerbatjaraka), 위르요수빠르뜨(Wiryosuparto), 수까르뜨(Soekarto), 숙모노(Soekmono) 만뜨라(I.B. Mantra) 교수 등 역사학자와 쿤짜라닝라트(Koentjaraningrat) 등 유명한 인류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은 식민지 시기 수집된 컬렉션을 전시하는 형태로 유지되다가 2007년 신관 개관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문화 및 교육활동을 시작하려 계획 중이다. 특히 많은 방문 학생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물에 대한 출판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경우 다른 박물관에

비해 전시 이외의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은 아직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듯 국립박물관의 전시가 보다 현대화한 형태로 진화하지 못한 이면에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 이외에 인도네시아인들이 본질적으로 결여한 “박물관적 마인드(Museum mindedness)”를 한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박물관 전시라는 것은 다소 생소한 듯한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수집”에 대한 시각이 서구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유럽인들처럼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탐구 혹은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혹은 본질적인 미나 골동품으로써의 가치 때문에 유물을 수집하지 않았다(Damais 1992, pp. 205~208). 대신 그들은 “권능” 혹은 “초능력”(spiritual power)을 가졌다고 믿는 조상 전래의 가보인 뿌사카(pusaka)들을 수집했다. 따라서 유럽인들의 눈에 전혀 미학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그리스나 창, 구슬, 도자기나 돌, 조각 파편 등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되기도 했다(Damais 1992, pp. 205~208).

그런데 뿌사카들이 이러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들이 주기적으로 이 유물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해야 했다(Kreps 2004, p. 5). 또한 뿌사카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초능력을 상실하므로 주인들은 이 신성한 보물들을 숨겨놓거나 극소수의 측근에게만 공개했다. 따라서 전통 사회에서 뿌사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뿌사카의 초능력이 상실되어도 무방한 것들에 한정되었다. 간혹 백성에게 공개되던 유물들은 진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전시의 개념은 가짜를 공개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Damais 1992).

이에 따라 “의식”에 관련된 의미를 상실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된 세간의 보물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인들의 눈에는 외국적 전시형태로 인식되며, 따라서 다만 서구의 근대성을 습득한 소수의 대중만이 박물관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Damais 1992, pp. 205~208). 그리고 이 같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은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나 문화재 처리에도 많은 어려

움을 초래했다. 비록 공화국 내에서 박물관 수는 늘었어도 정부나 대중이 박물관에 대해 품고 있는 빈약한 박물관적 마인드 때문에 박물관이 다른 문화 상품들, 이를 테면 무용, 의식, 전통마을 등에 비해 박물관이 성공적인 관광 자원으로 부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박물관에 대한 관심 부족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듯하다. 박물관 측은 실질적으로 보다 현대적인 형태의 박물관 운영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시도 도난이나 훼손 등의 문제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박물관 관람에 필요한 기본정보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소: Jalan Merdeka Barat 12, Jakarta, Indonesia
- 개방시간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30분
 -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전 11시 30분
 -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 30분
 -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30분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관, 보석 전시관은 일반 전시관보다 한 시간 일찍 휴관함)
- 입장료: 어른 기준 5,000루피(대략 한화 700원)
- 가이드 관람: 인도네시아 문화유산협회(Indonesian Heritage Society)와 협력하여 다양한 외국어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 영어 가이드 안내관람: 매주 화/목, 두 번째 토요일 및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30
- 한국어 가이드 안내관람: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의 기록에 따르면 2007년도에 167,450명, 2008년

대 대략 15만 8천 명, 그리고 2009년에 대략 16만 명의 관람객이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평균 16만 명의 관람객은 그 이전 해들보다 무려 30%가 증가한 것으로 2007년 개관한 신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림 4-1.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전경 ▣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 그림 4-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구관의 전시도면 ▣



구관은 다음의 도면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전시관이 서로 연결되어있다. 전시실은 각각 지리관, 민속관, 도자기관, 전통가옥관, 석상 전시관, 보석 및 장신구 전시관, 선사시대관, 그리고 식민시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리관과 민속관

지리관은 매우 작은 공간으로, 한쪽 벽면에 인도네시아의 33개의 주(州)가 표시된 지도를 설치해 놓고, 각 주의 주요 종족이 전통복장을 입고 있는 사진을 붙여 놓았다. 또한 벽면의 반대편에는 군도의 지형 모형을 유리관 안에 설치해 놓았다.

지리관은 곧 민속관으로 연결된다. 민속관에서는 각 주의 대표 종족들의 의례 및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민속관은 꽤 넓은 공간으로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 공간들은 인도네시아를 지리적으로 구분한 것으로써 각각 서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포함), 중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발리 포함) 그리고 동부 인도네시아 (누사 땡가라, 술라웨시, 말루꾸, 파푸아 포함) 등을 일컫는다. 각 공간 사이에는 각 지역에 속한 섬들의 모형이 세 지역을 구분하는 잣대로 놓여 있다. 민속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각 지역의 주요 종족들의 일상생활과 의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수마트라의 니아스(Nias)와 바딱(Batak)족, 자바의 바두이(Badui)족, 발리의 발리(Bali)족, 칼리만탄의 다약(Dayak)족, 술라웨시의 토라자(Toraja)족, 그리고 파푸아의 아스마트(Asmat)과 다니(Dani)족 등이다.

각 종족의 문화를 나타내는 유물은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크게 농·어업 기구, 직조 기구, 직조물, 의상, 전쟁무기, 악기, 가면, 전통 인형극에 쓰이는 인형(Wayang), 일상생활의 사치품, 장신구, 그리고 조상숭배에 관련된 유물 등이다. 특히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유물들은 전통 왕실과 귀족들의 보물이었던 크리스(kris: 전통 검), 창, 방패,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장신구, 기타 수공업 제품이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유물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각 지역의 유물은 저마다의 지역적 독특함이 디자인과 색감 속에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크리스의 경우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 발리의 크리스는 각각 손잡이와 새긴 문양, 재질이 다르으로써 생산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바의 크리스는 수마트라나 술라웨시의 일직선 칼날을 가진 크리스와 달리 구불구불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된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족의 전통 종교문화를 나타낼 때 이 민속관에서 일괄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상숭배” 전통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발견된 목상 및 석상으로 제작된 조상상(象)과 조상숭배 의식에 대한 사진 전시를 통해 민속관에서는 조상숭배를 군도의 모든 종족들의 전통 신앙으로 설명하고 있다.

■ 그림 4-3. 수마트라 잠비의 크리스 ■



그림 4-4. 반편 전통악기



그림 4-5. 자바 전통 직물



|| 그림 4-6. 조상숭배상 ||



2) 도자기관과 전통가옥관

민속관과 연결되어 도자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 도자기들은 도자기 큐레이터이자 자선가였던 네덜란드인 에그버르트 빌렘 반 오르소이 드 플리네스(Egbert Willem van Orsoy de Flines)가 식민시대에 군도의 개인들이 소장했거나 현지 고관들에게 공물로 바쳐진 도자기들을 수집하였다가 1959년에 기증한 것이다. 타 국가의 도자기관과 달리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외국에서 수입된 도자기들이다. 전시된 도자기들의 제작 시기는 중국의 한조(기원전 3세기)부터 식민시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대 범주를 아우르고 있다.

이 도자기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록 외국산이지만 군도의 과거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기억의 수단으로써 이 박물관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명서에는 도자기들이 군도가 주축이 된 국제 해상무역이 얼마나 활발히, 어느 지역까지 포괄하며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 적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보다 역동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타 유물, 예를 들어 향료나 범선(빠라후) 등이 전시되

어 있지 않은 것은 도자기관이 보다 역동성 있는 역사적 설명이 결합된 골동품 수집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도자기관에 이어 전통가옥관이 있다. 이것은 각 지역의 특징적인 전통가옥의 모형을 별다른 설명도 없이 모아놓았다. 인도네시아에서 특이한 가옥 형태로 유명한 지역의 가옥 모형들의 사례는 미낭까바우, 또라자, 발리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옥들은 모두 귀족 계급이나 촌락 수장의 집들로써, 서민의 집은 전시되지 않고 있다.

■ 그림 4-7. 일본 에도시대 접시(18세기 제작) ■



■ 그림 4-8. 중국 접시(시대 미상) ■



3) 석상 전시관(Stone Sculpture Collection)

국립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며 박물관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전시관 중의 하나는 바로 석상 전시관이다. 박물관의 안뜰에 위치한 석상 전시관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수집된 불상, 힌두교의 신과 정령상 및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쓰인 비문들이 전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원전부터 인도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며 대략 4세기부터 힌두교와 불교는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한 13세기 이전까지 지역의 주요한 종교로써 이 지역의 문화와 종교 양식을 지배했고, 정치적 행태에도 많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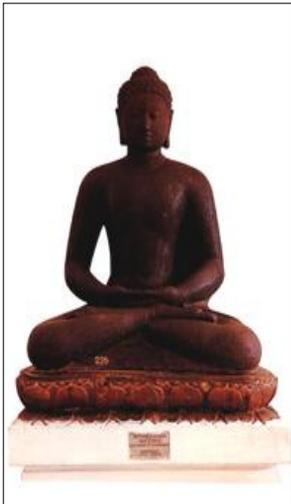
향을 끼쳤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로부드르 사원(Candi Borobudur)과 프람바난 사원(Candi Prambanan)은 각각 인도의 영향을 받은 대승불교와 힌두교 사원들이다.

힌두교는 다신교로서 브라마, 비슈누, 시바 등 3대 주요 신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신과 정령이 숭배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힌두교와 관련된 신상이나 정령 상은 무수히 많다. 불교도 석가모니를 비롯해 다양한 부처와 나한상 등 많은 상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석상들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자바, 발리 등 전역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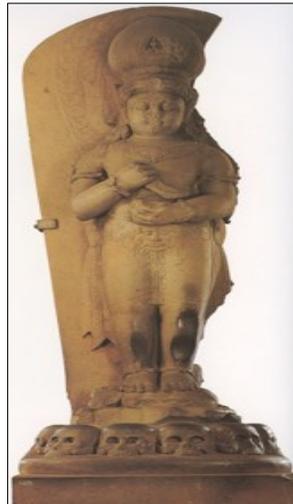
바타비아 협회 회원들은 현지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밀림에 파손된 채 버려져 있던 이 석상들을 수집해서 외국에 팔아 넘기거나 자국의 박물관에 넘겼고, 일부는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렇게 수집된 유물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부 수마트라의 팡당로쑈(Padangroco) 지역에서 발견된 4미터 높이의 아디트야바르만(Adityavarman) 석상이 눈길

■ 그림 4-9. 부처상 ■



■ 그림 4-10. 아디트야바르만 상 ■



을 끈다. 또한 고대 군주가 백성에게 내린 칙령이 새겨진 비문, 링가와 요니 등도 많이 전시되어 있다. 고대 왕조들에 대한 내용이 엿보이며, 마자파히트 왕조에서 발견된 석상이 다수 발견된다.

4) 보석 및 장신구 전시관(Treasure Rooms)

구관의 2층으로 올라가면 보석 및 장신구가 두 방에 걸쳐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금과 각종 보물로 장식된 장신구 및 무기 등이 진열되어 있다. 왕관, 귀걸이, 반지, 팔찌, 발찌, 허리띠 등등 각종 장신구와 금으로 만든 그릇, 우산, 수저, 동전, 그리고 힌두교 신의 형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별히 두 개의 전시관에 보석이 진열된 것은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전시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고대 장신구들이라는 의미가 된다. 특히 고대 마자파히트 등 고대 왕국들의 찬란했던 문명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동시에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시리 상자,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 등도 전시되어 있다.

▣ 그림 4-11. 발리의 담배상자.
금과 루비 소재 ▣



▣ 그림 4-12. 발리 목걸이.
금, 루비, 다이아몬드 소재 ▣



5) 선사시대 컬렉션(Pre-history Collection)과 식민시대관(Colonial Collection)

구관의 로비에서 왼편으로는 선돌, 돌도끼, 청동도끼, 청동드럼, 고대 무기 등을 전시해 놓은 작은 선사시대관이 위치해 있다. 이 전시관에서는 자바의 상이란(Sangiran)과 모조꺼르또(Mojokerto) 지역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 몇 점만이 전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박물관 옆에는 식민시대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역시 식민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몇 점의 유물만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식민시대 사용되었던 유럽식 가구와 직물, 화폐 컬렉션이 작게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관과 식민시대관의 유물들은 신관에서 보다 상세히 전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신관에서 전시된 유물은 구관의 유물과 그 종류가 중첩된다. 다만 전시방식이 달라졌을 뿐인데, 구관의 분류법이 지역적/시대별로 유물을 분류했다면, 신관은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쿤짜라닝라트(Koentjaraningrat)교수가 제시한 “문화를 구성하는 몇 가지 범주”에 의거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범주들은 각각 종교체계와 종교 의식, 사회체계와 조직, 지식체계, 언어, 문화, 생활체계, 기술과 도구 체계 등을 말한다. 이 범주에 따라서 신관의 1층은 “인류와 환경”, 2층은 “지식, 과학, 경제”, 3층은 “사회조직과 거주양식”, 그리고 4층은 “보물과 도자기”의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1) 인류와 환경관

쿤짜라닝라트 교수가 분류한 문화요소의 한 부분으로서 1층에서는 “인류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사시대의 인류

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벽면에는 마이오세(Miocene), 플라이오세(Pliocene), 홍적세(Pleistocene), 충적세(Holocene),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지형학의 단계별 변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홍적세에 살던 초기 인류에 대한 사진과 유물 전시를 시작으로 직립원인 등 초기인류의 진화과정을 담은 그림과 모형을 전시한다. 특히 <인류와 환경관>에서는 자바 섬에서 발견된 인류의 초기 유적지인 상이란과 모조꺼르또 등의 유적지와 충적세의 솔로(Solo)의 동굴 거주 모습 등을 재현해 놓았다. 또한 군도에서의 인류 및 동식물 군의 이동경로와 지리학적 경계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러나 주제별 분류로 인류와 환경을 선택한 이 전시관에서는 인류는 초창기 선사시대 인류에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이란 선사시대 지형학적 및 거주 환경을 조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 지식·과학·경제관

신관의 2층에 위치한 <지식·과학·경제관>에서는 인도네시아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과 물질문명에 대해 전시해놓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과거의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대 주제 속에서 이 전시관에서는 “문자와 언어”, “인도네시아의 법”, “천문학과 항해”, “건축양식”, “의약품과 식품가공”, “호신 도구”, “생산도구”, “통신수단”, “교통수단”,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구획을 나누어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우선 “문자와 언어” 구획을 살펴보면 입구에는 인도네시아에 5~15세기에 걸쳐 전래된 인도의 고대 문자인 팔라와(Pallawa), 나가리(nagari), 타밀(Tamil) 문자 등이 새겨진 비문과 소뿔에 적힌 부적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또한 부처의 주술 등이 적힌 유물도 있다. 이어서 전시되고 있는 외래문자는 이람문자로, 현지에서 이람문자를 현지 식으로 차용된 자위(Jawi) 문자라는 이두문자가 새겨져 있는 비문 등을 전시해 놓았다. 구획 한편에는 중국문자

가 새겨진 비문도 전시되어 있는데, 힌두나 아랍 문자와 달리 중국문자는 학습이 어렵고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던 까닭에 현지화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발견되는 비문은 모두 중국인들이 제작한 것이다(Rufaedah 2010, p. 15). 라틴 문자는 16세기에 향료무역로를 따라 군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럽 세력인 포르투갈세력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전시관에는 포르투갈 상인들과 현지 무역상, 혹은 군주들 사이에 맺어진 무역 조약이나 건물이나 무덤의 기공을 기리는 문서 등이 전시되고 있다(Rufaedah 2010, p. 15)

이어 군도의 전통 법에 대한 구획에서는 인도, 아랍, 유럽 등의 영향이 반영된 전통 관습법이 새겨진 비문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새겨진 법문의 내용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중부자바에서 발견된 청동 비문에는 한 마을 구성원이 크메르 출신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아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가 토착인이라는 것을 법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천문학과 항해에 관한 구획은 군도의 해양 문명권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로써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달력, 지도, 나침반, 육분의, 측연(수심 측정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16세기 이래 지역에 도래한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며 대부분이 유럽에서 제작된 것이다. 건축 구획에서는 종족별 특색이 있는 가옥과 종교 건축물의 모형을 전시하고, 건물 외벽에서 발견된 부조의 단면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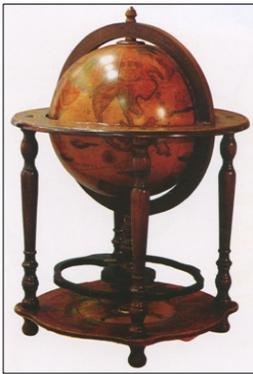
구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물로 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의약품과 식품 가공에 관한 유물들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약재로 널리 쓰이던 허브와 약 보관용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치료능력과 관계된 조상숭배나 다양한 애니미즘 전통 등에 관련된 유물도 전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사민이 쓰던 도구와 치료에 대한 독특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물품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또한 이 전시관에서는 갑옷과 창, 방패, 활과 화살, 끄리스 등 호신용 무

기와 더불어 농기구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도구, 옷감 및 옷감을 짜는 도구 (예를 들어 바찌 무늬를 찍는 도구), 전통 통신수단으로 사원의 종, 북, 교통 수단으로는 동물이 끄는 마차와 빠라후(Perahu: 돛단배) 등을 전시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경제 구획에서는 생산, 유통, 교환 및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화폐, 천으로 만든 지폐, 그리고 조세제도를 보여주는 비문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 그림 4-13. 서양에서 만든 지구본 ■



자료: 박물관 카탈로그.

■ 그림 4-14. 유럽에서 제작된 각종 항해도구 ■



3) 사회조직과 거주양식관

<사회조직과 거주양식관>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조직과 거주 형태를 표현하는 유물을 전시한다. 사회조직을 알려주는 인도네시아 토착 문화는 바로 사회 계급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전시유물으로써 신분에 따른 다양한 의복과 장신구, 직업을 나타내는 유물과 젠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유물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계급은 선사시대부터 식민시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선 선사시대의 계급과 사회조직을 나타내는 유물로서

는 유골매장지에서 발견된 구슬 목걸이와 토기 항아리 등의 장례품들을 전시했다.

박물관에서 두 번째 전시시기로 강조하고 있는 힌두-불교 시대에는 직업과 직급에 따른 계층이 분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 전시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마트라에서 7~8세기에 융성하였으며 약 13세기에 멸망한 스리비자야 왕국의 비문을 전시해 놓았다. 이 비문에는 직업군에 따른 계층의 분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왕자, 지방군수, 대장군, 판관 등의 고위직으로부터 하위직 관료, 조각가, 노예 등 하위직군으로 계층이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바의 마자파히트 왕국에 존재하던 레시(Resi)라 불리는 성직자계급을 나타내는 유물도 전시되고 있다.

이어서 나타나는 구획에서는 이슬람 시기의 사회조직의 분화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된다. 그런데 이 구획은 국립박물관에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처음이자 극소수의 전시유물 중 하나이다. 이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설명문에 따르면 이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통적으로 현지사회에 존재하던 귀족과 평민, 노예의 구분을 바꾸어놓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식 계층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이슬람 도래 이후 새로 등장한 직업군인 깬야이(이슬람 학자)의 가옥과 이슬람 사원의 모형을 두서너 점 전시해 놓고 있다.

이슬람에 관한 구획과 연결되는 식민시대의 계층을 설명하는 구획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사회가 분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설명서에 따르면 당시에 유럽인을 일등시민(First Class citizens)으로, 현지인과 중국인, 아랍인 등 외국인들을 이등시민(Second Class citizens)로 분류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계층 분화를 위해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은 17세기의 네덜란드산 유리잔, 17세기 독일산 목각함, 20세기의 네덜란드 동전 등이다.

식민시대에 관한 구획에 이어 나타나는 구획은 종족의 삶에 투영된 계급

의식이다. 사실 이와 같은 전시형태는 관람객에게 혼동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사회조직과 거주양식관>에서 사회조직을 나타내기 위해 시기적 분류법(선사시대, 힌두-불교시대, 이슬람 시대, 식민시대)를 따르다가 갑자기 이러한 시기적 분류법이 아닌 종족의 계급의식에 대해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보다 세심하게 전시형태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찌됐든, 토착 종족 사회에서 발견되는 계급들은 직업군에 따라 농부나 어부, 귀족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계급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의복, 장신구, 베텔 너트와 담배 보관통, 주방용품, 기타 권위의 상징품이나 교통수단 등이 전시유물로 선택되었다. 예를 들어 수마트라 람퐁(Lampung) 지역에서 발견된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목조의지는 족장의 취입식 때 사용한 의례품으로써 계급과 관련된 유물로 선택되었다. 또한 금실과 은실로 엮은 모자, 귀족속 장신구 등과 의복도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상위계급의 의복으로 고급 바틱(batik) 천과 계급을 상징하는 다양한 무늬가 그려진 천, 일정 계급이 참여하는 의례 때 착용하는 의복 등을 전시하여 사회제도를 나타내려 했다. 특히 지도자의 권력과 계급을 상징하는 유물로 끄리스가 선택되었는데, 금과 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끄리스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정통성을 백성에게 확인시켜주는 도구였다. 또한 귀족과 평민, 종교사원 및 마을 회관 모형을 전시함으로써 계급에 따른 거주공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려 했다. 또한 거주지역의 촌락 수장과 관습법 지도자, 은행 기능을 하던 뗏목위에 지은 가옥 등의 모형을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직종에 따른 계층을 표현했다.

4) 보물과 도자기

신관의 4층에는 구관과 매우 유사한 보물과 도자기 전시관이 위치해있다.

이러한 컬렉션을 중첩되게 둔 이유는 자바와 수마트라가 금 생산지였고, 따라서 이 지역이 수와르나부미(Suwarnabhumi), 즉 황금의 섬이라 불린 만큼 수많은 수공업품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물 전시관은 박물관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 중의 하나인 만큼 넓은 공간을 통해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신관의 보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구관의 보물들과 마찬가지로 8~15세기의 힌두-불교권 시기에 기원한 보물들로, 동인도 회사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굴되어 수집된 것들이다. 이중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중부 자바의 워노보요(Wonoboyo)지역과 모조꺼르뜨(Mojokerto) 지역에서 발견된 보물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된 유물들은 각종 장신구 및 의식에 사용된 그릇, 우산, 그리고 끄리스와 같은 무기 등이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힌두-불교 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들어진 라마야나 식기(Ramayana Bowl)에는 인도네시아에 전파된 인도의 유명한 힌두 설화인 라마야나의 일부 내용이 부조되어 있다.

특히 이 전시관에는 왕실의 보물인 왕보(王寶 regalia)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를 상실할 때 군주의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카리스마가 같이 상실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반덴, 반자르, 팔렘방 등 여러 왕국들로부터 많은 왕보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유물들로는 금부채, 나기(naga: 인도 설화에 등장하는 뱀신)와 사자의 이미지, 베텔(Betel: 구장)세트, 물 보관 통, 공연에 쓰인 가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유물 선택에 있어서 다분히 식민 담론과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이 지어질 당시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식민지의 문화와 자연, 지리 등을 탐구, 이해하려는 경향이 크게 대두했다. 박물관은 식민 박물관학자들이 주장했듯, 지식을 확산하고, “이성적인 기쁨”을 대중에게 주고, 과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박물관이 소장한 견본들을 관찰하게끔 하는” 역할, 즉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시기의 박물관들은 식민통치자들의 식민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Lucas 2008, p. 58). 보더머(Bodemer)는 이에 대해 식민시대 박물관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대한 허상(imaginary)의 일부였으며, 식민영토의 권력과 특권을 상징한다고 보았다(Bodemer 2010, p. 32).

박물관 전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진열된 유물의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특정 시대가 유독 강조된 반면 특정 시대는 아예 전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법 속에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민속관에서 종족문화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종족문화의 일부 유물을 추출해 전시하는데, 그 유물들이 종족들의 다양한 삶을 얼마만큼 충실히 대표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대표 유물 선정에 있어서도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가 스며들어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식민담론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의 식민주의를 정

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통해 동양을 서구 근대 문명의 ‘타자’로, 그리고 문명화되지 못한 미개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문명화와 기독교화, 나아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Said 1979, pp. 12~13). 식민세력이 규정하는 타자의 이미지는 종종 서양인이 가진 것, 즉 이성이며 질서, 일상생활 속의 부르주아적 태도 등을 결여한 미개하고 감정에 의거한, 비이성적 존재로서의 타자이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상상하고 날조한 동양에 대해 일괄적으로 “열등하다”하는 인식만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많은 서양인들은 인도의 명상과 요가, 인도네시아의 보로 부두르나 앙코르와트 사원이 표상하듯 신비로운 정신의,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닌 환상 속의 공간을 재창조했다. 여기에서 추론되는 식민담론은 바로 동양이 과거에 찬란했지만 이후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누락되어 현재의 게으르고 낙후한 열등한 족속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즉, 고대와 식민시기 사이의 시기에 일어난 현지의 내재적 발전과 근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러한 내재적 낙후성을 식민통치의 정당화를 위한 담론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의 이미지는 원주민의 현재적 미개성과 더불어 고대의 찬란함을 묘하게 대조시키는 양상으로 서구의 문학과 담론을 지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반영되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박물관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성한 역사적 내러티브와는 구별되는 시대구분법을 이용하여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크게 세 시대를 강조해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선사시대, 힌두-불교 시대, 식민

시대이다. 또한 민속관에서는 종족문화 전시를 주제로 하면서 식민시대 이전의 시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들 중 박물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시기는 힌두-불교 시대이다. 이 시기는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전기 고전동남아기(early classical age)”라고 불리는 시기로, 이후 13세기경 이후 도래하는 “후기 고전동남아기(late classical age)”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전기 고전시대에 동남아시아가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정치체제와 문화적 요소를 정비하였고 중국과 인도, 아랍을 잇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면, 후기 고전동남아 시기에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도래하여 종전의 힌두-불교권 지역을 접수하였으며, 유럽 무역상들이 도래하여 보다 활기찬 인도양 국제무역을 주도한 시기이다. 이 후기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중앙집권제와 관료체제가 정비되고 많은 이슬람 왕국들이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부흥했다.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가진 보다 중요한 의의는 이때 성장한 왕국들과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적 영향력이 근·현대의 인도네시아 사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역사 구성에 있어서 후기 고전시대는 전기 고전시대와 비견되는, 혹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에서는 후기 고전시기에 대한 유물이 거의 전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석상 전시관과 보물 전시관을 통하여 박물관에서 일괄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기, 즉 전기고전동남아 시기이며, 이슬람에 대한 기억은 고작 두서너 점의 유물로써 표상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유물은 이슬람 사원과 가옥 모형, 그리고 아랍어로 쓰인 비문 등이다.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전시는 아예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웬만한 눈썰미와 인도네시아 역사에 지식이 있지 않고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군도에 미친 광범위한 이슬람의 영향력이나, 제한적이지만 군도의 일부를 포교화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박물관 전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를 배제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우선 이슬람 종교 자체는 이슬람과 관련한 성상이나 우상 제작을 금하고 있는 종교이므로 힌두교나 불교상과 달리 유물 전시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상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슬람권의 박물관의 경우에 코란이나 이슬람 의복, 이슬람 예술이나 건축물 등을 통하여 이슬람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박물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기억을 전시에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힌두-불교 유물 중심의 전시의 또 다른 이유로는 바타비아 협회의 회원들이 유물을 수집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이슬람은 17세기 중반까지 자바와 수마트라, 그리고 술라웨시에서 주요 종교로 등장했다. 그리고 무슬림 세력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거해 힌두교나 불교, 애니미즘 요소가 있는 유물을 많이 파괴했으므로, 유럽 식민세력이 유물을 수집할 당시 유럽인들의 눈에 엄청난 “보물”로 보이는 석상이나 비문 등이 19세기까지 밀림에 버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수집가들이 이러한 “고대의 보물”을 타치는 대로 수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네덜란드 인들이 이슬람에 가진 부정적 시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기독교와 이슬람이 보여준 신앙적 이단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시에 이슬람은 반(反) 네덜란드 항쟁의 이데올로기적 기치였다. 19세기 초반에 자바의 디뽀네고로(Diponegoro) 왕자가 이끈 자바전쟁과 이후의 아찌의 30년 항전, 수마트라 남부의 빠드리 전쟁(Padri War) 등은 모두 이슬람을 내세워 기독교도인 네덜란드인과의 전쟁을 지하드(聖戰)로 규정하고 민중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렀다.

박물관에서 이슬람에 대한 기억이 누락된 것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더러 식민담론과 부합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확산 보다도 후기 고전 동남아 시기가 갖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슬람 왕국이 가진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이슬람 왕국들은

후기 고전 동남아 시대에 국제무역을 주도했고, 이슬람을 바탕으로 사회조직과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사실상 무슬림 왕국들의 이러한 창의성과 주도력은 이 지역을 인도양 국제무역의 공고한 파트너로 부상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이슬람 왕국이나 기독교 문화권, 왕국의 역동적 발전에 대한 기억은 거의 고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에 대해 네덜란드 식민세력이 이것은 당시의 네덜란드인들이 이슬람교에 가진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이슬람이 근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전기 고전동남아시아대에 이어 박물관 전시는 후기 고전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식민시대(Colonial Era) 전시로 넘어간다. 그런데 전기 고전 시기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의 식민시기 전시에 나타난 내러티브도 공화국의 내러티브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관에 대한 박물관 도록을 살펴보면 식민시기의 사회조직을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두 가지 계층이 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유럽인을 일등시민(First Class citizens)로, 그리고 현지인 및 중국인, 이람인 등 외국인들을 이등시민(Second Class citizens)로 분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계층 분화와 식민시대를 나타내는 유물로는 17세기의 네덜란드산 유리잔, 17세기 독일산 목재상자, 20세기의 네덜란드 동전 등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 분류법과 유물 선택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오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17세기는 후기고전동남아시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는 유럽세력이 식민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등시민 혹은 이등시민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불과 19세기에 네덜란드가 본격적 식민경영에 들어간 이후에 해당되는 것으로, 따라서 17세기를 식민시기로 소급하는 이러한 시대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전시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모두 유럽에서 제작된 수입품들이란 점이다. 이 유물들은 식민시대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가구, 과학적 발명품(유럽에서 제작된 육분의, 나침

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전시물들은 식민국가를 과학적으로 발전했으며 고상한 취향을 가진 문명화된 존재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사에서 강조하는 식민시기의 이미지는 식민정부의 수탈과 현지인의 항쟁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국사에서는 이 시기에 식민정부에 의해 이식된 근대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식민의 수탈과 착취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인들이 주도한 다양한 지역적 식민항쟁을 국가적 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공화국이 그리는 식민시기도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식민시기에 이식된 근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식민통치의 수난을 전 민족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 각 지역반란을 마치 인도네시아 민족의 저항인 듯 묘사하는 태도는 민족이 다양한 종족과 지역의 역사의 역동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식민시기가 분명 현지인들에게 위기의 시기였고, 현지인들이 이 위기에 대처해 다양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에서는 식민기 현지인의 역동적인 저항 및 사회변화 등을 모두 생략하고 다만 식민시기에 유입된 서양 과학품만 전시함으로써 “이식된 식민지적 근대론”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시기를 끝으로 시대적 구분을 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 및 현대사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어떻게 다양한 종족이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모두 생략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 즉 전기 고전 동남아 시기이다. 이 시기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유물들은 힌두-불교 석상, 갖은 보석으로 치장된 장신구와 무기, 그릇, 의식용 도구들로서, 이들은 모두 과거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는 도구들이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 고전 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식민시기는 17세기까지 소급되어 그 시대폭이 훨씬 넓어졌으며, 이 시기가 유럽이 들여온 과학 발명품과 도자기 등 유럽인의 수집품이 전시됨으로써, 유럽을 문명국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발견된다. 이 시기에 현지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 식민에 대한 저항 등은 모두 전시에서 생략되었다. 또한 현대에 대한 전시는 단순히 생략되었다.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른 과거에 대한 이미지는 고대시대(전기고전시대를 의미)를 힌두-불교 문화가 매우 발전하고 재화가 풍부했던 찬란한 문명으로 묘사하지만, 이후의 시대에 나타났던 현지인들의 역동성을 생략함으로써 “고대에는 찬란했지만 이후에는 내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현지인”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한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식민사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구관에 위치한 민속관은 앞서 말한 대로 군도의 다양한 종족의 삶의 형태와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민속관에서 종족문화를 묘사하고 있는 양상은 역시 식민사관이 가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의 종족 문화를 표상하기 위해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은 일정한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무기, 악기, 일상생활의 사치품, 장신구, 직조물, 의상, 농기구 및 어업 기구, 그리고 조상숭배에 관련한 유물들이다. 이 유물들은 모두 원주민들의 원형문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됐다.

일정한 카테고리의 전시물들을 통해 드러난 종족들의 문화는 다양하나 묘한 통일감을 보여준다. 장신구나 무기에는 힌두-불교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며, 생산양식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례양식을 보여준다. 귀족이나 족장들의 장신구 등의 사치품과 베텔 보관통 등의 전시를 통하여 현저사회에 계급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로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조상숭배가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이들 유물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무늬를 보여주고 있지만 모양과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전시를 통하여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군도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의 원시문화가 꽤 정교했으며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족사회의 묘사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은 시간의 변동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시된 유물들로만 보면 이 종족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상 이 종족들 중에는 조상숭배 등 전통 신앙을 고수한 집단도 있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이 13세기 이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종교가 되었고,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무슬림 국가에서 종족의 종교가 일괄적으로 조상숭배라 “규장”된 것은 식민담론이 드러난 사례라 볼 수 있다. 식민세력의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식민지 문화의 후진성과 주변성을 강조해야 했고, 근대화 사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문화의 야만성을 주시시켜야 했다. 따라서 조상숭배 전통을 선택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미신에 사로잡힌 미개한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야만적인 토착인들에 대해 스스로 ‘근대화의 사명’, ‘문명화의 사명’을 자칭함으로써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키플링 식 “백인의 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고대나 전기 고전 동남아 시대에 대한 네덜란드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에 후기 고전 동남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문화의 빈약, 정치의 문란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식민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문화적 원인을 찾는 이른바 문화 진화론적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은 인도네시아 문화의 “대표”라고 판단되는 유물들을 선택하여 전시공간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구축해냈다. 정치적 맥락에서 선택된 유물들로 구성된 박물관은 따라서 단순한 유물의 나열이 아니라 전시 목적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공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관람객 수가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박물관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의 정체성 고양을 위해 고양해 온 민족주의적 역사관 등과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네덜란드 식민지시대에 수집된 다양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 중 특정 기억만 취사선택해서 전시하고 있다. 즉, 이 박물관에서 한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여, 어떤 진실만을 궁극적 진실이라 일반화하는 박물관의 메커니즘을 통해 표상되고 있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 담론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 담론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 고전 동남아시아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식민시기는 17세기까지 소급되어 그 시대폭이 훨씬 넓어졌으며, 이 시기가 유럽이 들여온 과학 발명품과 도자기 등 유럽인의 수집품이 전시됨으로써, 유럽을 문명국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발견된다. 이 시기에 현지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 식민에 대한 저항, 그리고 20세기에 구축된 민족의식 등은 모두 생략되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이 식민지 시대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고수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이 표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애매모호함의 원인이 바로 이

박물관이 식민 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박물관을 이어받아 국민국가의 도구로 활용해야 할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박물관 전시형태를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과 국가적 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이 어떤 형태로, 어떤 유물을 전시하여 어떤 메시지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 박물관이 식민시대의 유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처럼 박물관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효율적인 도구나 매체로 활용되어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시형태는 관람객들에게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1. 서론

가. 연구목적

이 장은 태국 방콕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문화 유물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의 국가 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둔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태국의 역사문화유산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발전해왔다. 이 박물관이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만큼, 태국 국민들은 무엇보다 이 박물관을 통해 자기들의 역사를 배우고 익혀왔다. 태국 왕실과 정부는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학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박물관의 전시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역사문화유산의

취사선택과 의식적인 전시형태를 통해 태국의 국가정체성에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앤더슨(Anderson 1991)이 논의하듯, 이 박물관은 태국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위의 세 기둥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국의 민족주의는 19세기말에 싹트고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태국은 비록 식민지배는 받지 않았지만 서구식민지배의 통치원리를 내부를 통치하는 데 적용하면서 근대국가로 성장해나갔는데, 그러한 성장 과정 중에 세 기둥 중심의 태국 민족주의가 통치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역할을 한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니(휴스봄 외 2004), 태국 국민들에게 영속불변한 태국의 국가정체성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태국의 국가정체성은 태국 내의 복잡한 종족지형, 문화지형, 종교지형을 드러내지 않는다. 태국은 다종족, 다문화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북부 산악 지역에는 타이족의 불교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소수 종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남부 지역은 무슬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왕”, “불교”, “(타이)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이 그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기독교, 이슬람교 등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위의 세 기둥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태국 민족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태국의 역사문화유산 중에서 왕과 불교, 타이족에 대한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반면,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소수 집단의 역사적인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 전시를 통해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구체화하며 그

것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태국의 국가정체성은 시원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시원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태국은 오히려 자기부정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된다. 태국 역사에서 불편한 역사적인 사실중의 하나는 태국의 기반이 되는 주류 종족인 타이족의 거주가 13세기 이후에서야 현재의 태국 땅에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 곳에 몬족, 크메르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세기 이전의 유물들을 타이족이 중심이 된 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타이족의 시원성을 강조하는 태국 민족주의는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이족의 역사 유산보다 이민족의 역사유산을 찬양해야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는 것이다. 태국 땅에서 일군 크메르족의 문화유산을 찬양하는 것은 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키는 것인가, 또는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를 오히려 높이는 것인가? 방콕국립박물관이 어떻게 이러한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는가는 흥미로운 점일 것이다.

이렇듯 이 장은 태국 내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방콕국립박물관이 어떻게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정체성에 어떠한 논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려고 한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0년 6~7월 중 수차례에 걸쳐 박물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방문 초기에는 방콕국립박물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박물관의 구조와 전시형태를 개괄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는 관찰 방식을 취했으며, 이후에 이루어진 방문에서는 특정 전시관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유물의 특징과 전시형태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연구자는 또한 박물관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과 면접을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방콕국립박물관의 학예사, 태국문화부 행정 관료들이 주 대상자들이었다. 이들과 면접을 통해 박물관의 역사와 위상, 왕실과 정부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 박물관과 태국의 민족주의 및 국가정체성과 관련성 등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과 리쑤(친밀감)를 형성하는 시간은 부족했으나, 이들 중 한국의 국립박물관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들도 있어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초청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연구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뜻 제공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가이드투어에도 참여하여 박물관 안내원이 어떠한 유물에 강조를 두며 어떠한 역사적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투어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찰했다. 연구자는 안내원의 설명에 의해 박물관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지,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자는 방콕국립박물관과 비교분석을 위해 방콕 내에 있는 시암박물관(Museum of Siam)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암박물관은 싱가포르의 아시아문명박물관(Asian Civilizations Museum)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설립된 박물관으로서 타이족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 박물관이었다. 이와 비교를 통해 연구자는 방콕국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서 어떻게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민족주의 및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다.

연구자는 또한 문헌조사를 위해 여러 자료실을 방문했다. 우선 방콕국립박물관내에 있는 자료실을 방문하여 문헌자료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의 위용에 비해서 자료실의 규모는 상당히 협소했고 자료의 양과 질도 기대했던 것에 비해 떨어졌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근에 위치한 탐마삿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이용했고 태국국립아카이브를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 내부에서는 사진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시각적인 자료

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는데, 주로 박물관 도록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했으며 학예사와 관료들로부터도 사진 자료들을 입수했다.

다. 본문 구성

1절인 서론에서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서술하며 태국 국가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서술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서론에 포함되어 있다. 2절에서는 우선 방콕국립박물관이 어떠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박물관의 현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서 박물관이 행정적으로 태국 정부조직상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박물관의 예산, 방문객수, 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박물관의 운영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박물관내 전시 형태를 분석하면서 태국국립박물관이 어떻게 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왕”, “불교”, “타이족” 중심의 전시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타이역사전시관의 전시 형태 분석을 통해 박물관이 태국 국가정체성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드러낸다. 그리고 박물관이 태국 국가정체성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4절은 이 장의 소결에 해당한다.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⁴⁹⁾

방콕국립박물관의 기원은 몽꿋왕(Mongkut)의 재위시기(1851~68년)로 거

49) 박물관 역사에 관한 것은 주로 방콕국립박물관 홈페이지(www.thailandmuseum.com), 태국 정부 문화부 산하 예술국에서 출간한 44 National Museums of Thailand(2008), Cary(1994) 등을 참조했다.

슬러 올라간다. 몽꿋왕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승려로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때 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유물들을 수집했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 몽꿋왕은 그동안 수집한 유물들을 모아 왕궁(Grand Palace)의 랏루디홀(Rajrudee Hall)에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박물관을 설립했다. 이 컬렉션에 대한 운영이 태국 내에서 박물관 운영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1856년에 그 홀에 있던 유물들은 더 큰 규모의 전시관인 프라팻피피타관홀(Praphatpipitthaphan Hall)로 옮겨졌다. 오늘날 박물관을 일컫는 태국어 명칭인 프라팻피피타관이 바로 이로부터 유래되었다. 몽꿋왕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왕족들을 포함하여, 정부 관료들, 일반인이 예술품과 역사 유물들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쭈라롱꼰왕(Chulalongkorn, 1868~1910년 재위)은 선왕의 관심을 이어나갔다. 그는 해외로부터 전시 디자인과 박물관 운영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관리했다. 선왕의 전시물들은 프라팻피피타관홀에서 왕궁내에 새롭게 건립된 건물인 콘코디아홀(Condordia Hall)로 옮겨졌다. 이러한 이전은 1874년 9월 19일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날이 국립박물관의 창립일로 기념되고 있으며 콘코디아홀의 박물관은 태국 내에서 최초의 공공박물관이라 여겨지고 있다.

1886년에 쭈라롱꼰왕은 왕궁에 있던 그 박물관을 왕나궁(Wang Na Palace)으로 옮겼다. 왕나궁은 짜끄리왕조가 시작된 18세기 말에 부왕(Uparaja, Second King)을 위해서 지어진 궁으로 전위궁(Palace of the Front)으로도 불리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방콕의 방어를 담당하던 궁이었다. 박물관은 한동안 그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라마 7세인 빠라차티벡왕(Prajadhipok, 1925~34년 재위)이 즉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나궁의 다른 부지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며 1926년에는 박물관의 명칭도 “방콕박물관”(Bangkok Museum)으로 변경하고 왕립문학교고학예술연구소(Royal Institute of Literature, Archaeology and Fine Arts)가 그 박물관을 관장하

도록 했다. 공식적으로 1926년 11월 10일에 방콕박물관 개관식이 거행됐는데, 주요 참석인물로 이 박물관에 관여를 깊게 해온 세대스(George Cœdès)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왕립연구소에 쫓라롱꼰왕 재위 시절에 왕의 이복동생으로 내무부장관을 역임하며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해나갔던 담롱 라차누팜(Damrong Rajanubhap)이 회장으로 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역사와 고고학에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은 인물로서 박물관의 유물수집과 전시 방식에 깊숙이 관여해나가며 오늘날 방콕국립박물관의 기초를 닦았다.

1933년에 태국 정부는 공공교육부(Ministry of Public Instruction) 산하에 예술국(Fine Arts Department)을 설립하고, 방콕박물관을 그 산하 조직인 박물관고고학과(Division of Museums and Archaeology)가 관장하도록 했다. 그 과는 명칭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박물관유물과(Division of Museums and Antiquities)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관장하는 책임을 가진 고고학과(Division of Archaeology)로 바뀌었다. 1934년에 방콕박물관이 “방콕국립박물관”으로 개칭됐다. 1935년에는 “고대유적지, 고대예술품 및 국립박물관에 관한 법령, BE 2477”(Act on Ancient Monuments, Antique Objects of Art and National Museums, BE 2477)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법령은 1961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개정으로 인해 태국 내의 모든 국립박물관이 교육부 예술국 고고학과 산하에 들어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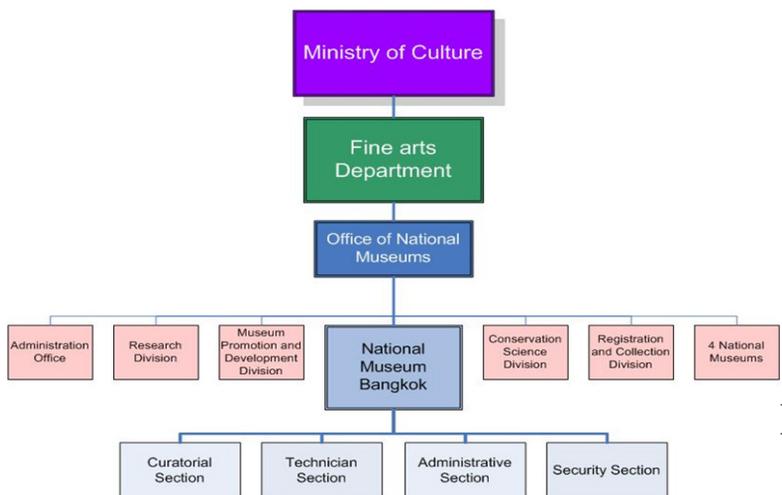
1975년에 국립박물관과가 기존의 고고학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면서 국립박물관에만 한정하여 관장해나갔다. 그러나 1995년에 그 두 개의 과가 합쳐져 고고학국립박물관과(Office of Archaeology and National Museums)가 되었다. 태국정부는 2002년에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를 새롭게 설립하고 교육부 산하의 예술국을 문화부 산하로 옮겼는데, 그 계기에 예술국도 조직 개편을 하여 국립박물관과(Office of National Museums)가 새로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전국의 44개의 국립박물관을 두었다. 2008년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는데, 지방분권화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의 국립박물관이 각 지역단위의 예술국의 산하에 들어가게 됐다(인터뷰, 위산타니 Wisanthanee, Head of Museum Promotion and Development, 2010년 7월 2일).

나. 박물관 조직 체계

박물관과 관련된 현재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방콕국립박물관 조직도



자료: 방콕국립박물관.

방콕국립박물관에 99명의 인원이 위의 조직도에 나와 있듯이 “큐레이터섹션”, “기술섹션”, “행정섹션”, “보안섹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위조직인 박물관(Organizational Office of National Museums)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2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 박물관 운영상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절반을 차

지한다. 참고로 예술국(Fine Arts Department)은 근무 인원이 2,000명가량 되는데, 이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부내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태국 왕실, 특히 짜끄리(Chakri) 공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조직의 규모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인터뷰, 솜차이 나 나콘파놈 Somchai Na Nakhonphanom, Senior Expert on Research and Museum Development, 2010년 7월 2일). 이 공주의 생일인 4월 2일에 매년 “태국 문화유산축제”(Festival of Thai Heritage)가 열린다는 것에서도 짜끄리 공주가 얼마만큼 문화예술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왕실과 문화정책 간에 밀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고, 그만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정책에 태국 왕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방콕국립박물관은 총 7 에이커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13개의 전시관 건물(building)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38개의 전시실(gallery)이 그 건물 내에 배치되어 있다. 전시되고 있는 유물수량은 총 12,053점에 이른다. 그 유물들은 크게 4개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태국 역사, 둘째, 예술사와 고고학, 셋째 민족학과 수공예품, 넷째 역사 유적물이다.

방콕국립박물관 관람에 필요한 기본정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소: 4 Na Phrathat Road, Phra Nakhon District, Bangkok 10200 Thailand
- 개방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수요일~일요일, 국경일(신년, 송끄란휴일 제외)

- 입장료: 200บาท(외국인), 50บาท(내국인)
- 가이드관람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영어, 불어, 일본어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영어, 불어, 독일어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태국어

개방시간에 언급되었듯이 방콕국립박물관은 보통 일주일에 이틀씩(월·화)이나 문을 닫는다. 많은 국가들의 박물관에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휴관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또한 이중 입장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박물관에 종사하는 한 직원은 그 이유로 내국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200บาท 정도는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화부 예술국 박물관과의 담당관으로부터 입수한 예산 관련된 사항을 보면, 2010년(회기년도 2009년 10월~2010년 9월)에 박물관과에 편성된 예산은 28,446,600บาท인데, 그중 방콕국립박물관에 3,636,300บาท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 박물관과에 편성된 예산은 34,665,500บาท으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으며, 방콕국립박물관에는 15,000,000บาท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방콕박물관의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0년 4~5월에 발생한 정치적인 혼란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당시 시내 주요 건물들이 방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방콕박물관도 2주간 문을 닫으며 폭탄, 방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겪고 박물관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어 보안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가 된 것이다.

이래 표에서 나와 있듯이 연중 방콕국립박물관 방문객은 20만 명이 넘는 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5만 명 정도에 이른다.

표 5-1. 2003~09년 연간 방콕국립박물관 방문객 수

연도	외국인	내국인	계
2003	60,196	207,480	267,676
2004	58,438	200,578	259,016
2005	48,450	207,434	255,884
2006	54,049	195,986	250,035
2007	47,687	166,967	214,654
2009	52,448	775,404	827,852

자료: 예술국 박물관과 *2008년 자료는 미입수.

그런데 [표 5-1]에서 2009년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왜 갑자기 내국인 관람객이 증가한 것일까? 2008년 1월 2일에 타계한 깔라야니 왓다나(Galyani Vadhana) 공주(현 푸미폰국왕의 누이)의 장례식이 오랜 애도기간을 거쳐 2008년 11월 14~19일 사이에 거행되었는데, 당시 그 의식에 사용되는 왕실 상여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일반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달에만 63여만 명의 관람객이 대부분 그것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입장객수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는데, 관광 시즌인 겨울(12~2월)에 좀더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한다고 했다. 계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관람객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0년에 4~5월의 정치적인 혼란 기간 중에 하루 관람객수가 20여 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인터뷰, 덴다오 실파논 Dendao Silpanon, Head of Curational Section, 2010년 7월 1일). 참고로 입장료 수입은, 그 관계자에 따르면 연평균 3백만 бат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전시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박물관내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 예술과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 둘째,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셋째, 주니어박물관가

이드, 넷째,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섯째, 소외학생들을 위한 이동식 박물관, 여섯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콕국립박물관은 역사유물을 교육시키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

▣ 그림 5-2. 방콕국립박물관의 이동식 박물관 ▣



자료: 방콕국립박물관.

▣ 그림 5-3. 방콕국립박물관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방콕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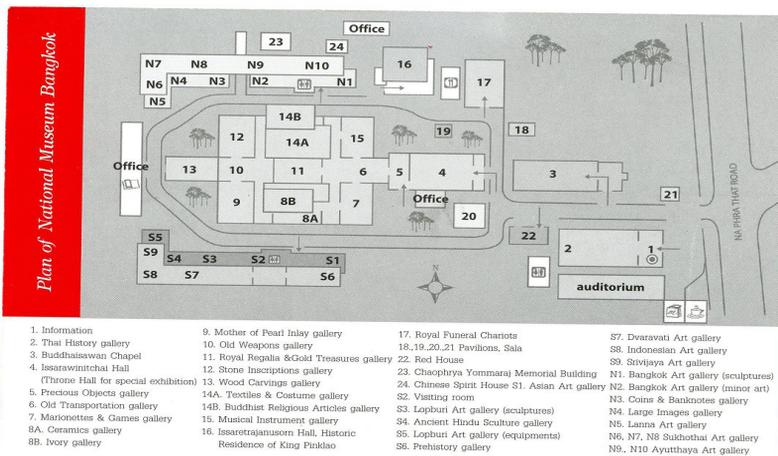
고, 소외 계층에게도 박물관의 유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가족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포근하고 친근한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태국인들에게 생활 속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박물관 당국의 시도로 태국의 국가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전시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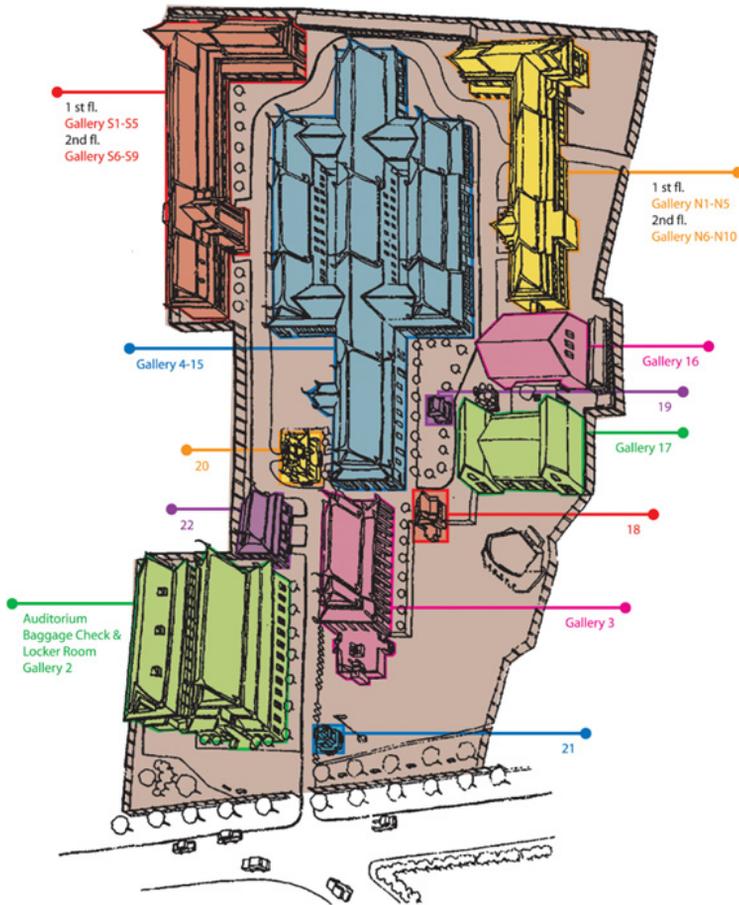
박물관내 여러 전시관들은 박물관의 도면에서 보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박물관 건물들의 건축 양식은 태국 전통 양식을 따르거나 이에서 조금 변화된 양식을 따랐다. 각 전시실은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관람의 편의를 위해 각 전시실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 도면의 가운데에 위치한 전시

그림 5-4. 방콕국립박물관 전시관 평면



자료: 방콕국립박물관, 이 그림은 박물관 입장시 배포되는 안내 팸플릿에 수록됨.

그림 5-5. 방콕국립박물관 전시관 입체도



자료: 방콕국립박물관.

실들(4번실에서 15번실)이 예전에 왕궁이었던 공간으로 박물관 안내도에 의하면 “동서측”(East-West Wing) 전시관이라고 일컬어진다. 남측과 북측의 전시관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966년에 개관했는데, 남측(S1-S9)에는 주로 고대유물과 해외유물이, 북측(N1-N9)에는 수코타이(Sukhothai) 이후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 두 전시관은 1950년대에 걸쳐 박물관이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단행한 이후인 1966년에 개관했다. 박물관 전시실 관람 순서는 보통 박물관의 입구에 있는 타이역사전시관(2번실)을 둘러보고 동서측 전시관, 남측 전시관, 북측 전시관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가이드 투어일 경우에는, 그것이 보통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한 전시실만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자가 참여한 영어 가이드 투어의 경우, 왕실 병거(17번실), 왕실 거주공간(16번실) 등 주로 왕실 유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 안내원(외국인 자원봉사자)은 그러한 왕실 유물들을 소개하며, 태국 왕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러한 맞춤 관람을 통해서도 방콕국립박물관이 어떻게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인 왕실, 불교, 타이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가장 뚜렷이 두드러지는 점이 바로 왕실 유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박물관은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현재의 박물관 자리도 왕궁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었다. 각 전시실마다 그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령 3번실(Buddhaisawan Chapel), 4번실(Issarawinitchai Hall, Throne Hall), 11번실(Royal Regalia & Gold Treasures Gallery), 16번실(Issaretrajanusorn Hall, Historic Residence of King Pinklao), 17번실(Royal Funeral Chariots), 22번실(Red House)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3번실인 붓타이사완채플은 1795년에 세워진 건물로 왕자의 개인

채플로 사용되었었다. 4번실인 잇사라위니차이홀은 특별전시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래 라마3세 시기에 왕의 보좌가 있던 자리이다. 11번실은 왕실에서 사용하던 의복,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16번실은 몽꿋왕의 동생으로 부왕(Second King)으로 재위했던 뻬끌라오(Pinklao)왕이 거주했던 공간이었다. 17번실은 왕실 장례식에 사용되는 병거(Chariot, 상여)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앞서 언급한 깔라이니 공주의 장례식 때에 이 병거가 사용되었었다. 22번실은 원래 라마1세의 누이를 위해 지은 건물이었다. 이외에도, 다른 전시실 역시 직간접적으로 왕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악기를 전시해놓은 15번실(Musical Instrument Gallery)이나 의복을 전시해놓은 14A실(Textiles & Costume Gallery) 등에서도 왕실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방콕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왕실 중심 물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져도 그 박물관의 대표성에 대해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태국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왕실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입헌군주제의 왕과 달리 태국의 왕실은 역사적으로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해왔고 왕실 중심의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왕실은 태국민족주의의 세 기둥이라 일컬어지는 “왕”, “불교”, “국가”에서 제일 앞 순위를 차지하면서 태국민족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태국의 문화정책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문화기관인 박물관은 왕실이 우선이 된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콕국립박물관은 왕실의 유물 전시를 통해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핵심인 왕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상 속의 왕실의 존재를 실제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왕실의 일원이 아닌 농민들, 상인들, 이주민들 등 일반인들의 삶의 궤적이 그곳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태국의 역사에서 불교를 제외하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방콕국립 박물관 그러한 역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앞서 박물관의 역사에서 언급했듯이 몽꿋왕은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승려로서 지내면서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을 다량으로 수집하며 컬렉션을 구축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박물관의 효시가 되었다. 즉 박물관은 태생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이다. 그 이후로도 불교에 관련된 유물들은 왕실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수집되고 전시되었다. 태국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제도적으로 불교를 강화시켜나갔다. 특히 쥘라롱꼰왕은 불교를 국교로 공포하기까지 했다. 왕실의 불교에 대한 각별한 대우는 자연스럽게 불교 유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쥘라롱꼰의 형제인 나리스(Naris) 왕자는 불상 수집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컬렉션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쥘라롱꼰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이렇게 왕실은 불교문화를 진흥하는 불교국가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Cary 1994, pp. 168~172).

불교의 이러한 지위는 박물관의 전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방콕국립박물관은 각기 다른 시대의 수많은 불상들을 전시해놓고 있다. 타와라와디(Dvaravati), 롭부리(Lopburi), 수코타이, 란나(Lanna), 아유타야(Ayutthaya), 방콕왕조 시기에 제작된 좌상, 입상, 와상, 흉상, 두상 등 다양각색의 불상들이 이 박물관의 컬렉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쥘라롱꼰왕이 자비를 방문했을 때 선물로 받은 불상들도 S8전시실(Indonesian Art Gallery)에 전시되어 있다. 각 시대의 불상이나 불교관련 유품들의 변화상을 비교하는 것이 박물관 안내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National Museum Volunteers Group 1987).

물론 비시누(Vishnu)상, 우마(Uma)상 등 힌두교에 관련된 조각들도 전시되어 있으나 불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량이 적다. 이것들은 주로

타와라와디 시기나 룽부리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몬족, 크메르족 등 비타이족이 거주하던 때의 유산이다. 불교가 힌두교에서 파생됐듯이 힌두교의 유물 역시 불교의 유물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면들이 있다. 불교도가 다수인 타이족 역시 힌두교 등 타종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브라만교의 의식이 현재의 왕실 의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히 몬족과 크메르의 유산이 타이족의 유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런 “섞임과 스맘”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들은 이 박물관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현재 태국 북부 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종족이나 도시의 화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며, 태국 남부에는 이슬람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며 기독교 선교사, 이슬람 상인들을 받아들였다. 분명 이들 종교들도 태국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문화는 이 박물관에서는 사장되어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에서 보여주는 태국의 종교는 오직 불교뿐이다. 그만큼 방콕국립박물관은 불교가 한 축이 되는 태국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앞서 남측 전시관은 고대유물과 해외유물이, 북측 전시관은 수코타이 이후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일면 남측과 북측의 분리는 수코타이가 기준이 되어 자연스럽게 시대 순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박물관의 이러한 유물 분류는 태국 역사 기준의 한 단면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북측 전시관은 타이족의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남측 전시관

은 비타이족의 역사 유물을 전시해놓은 것이다. 오늘날 태국 땅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비타이족이 타이족보다 훨씬 앞서서 거주하면서 문화를 일구어왔던 반면, 타이족은 1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수코타이 왕조를 세우면서 태국 땅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태국 역사나 방콕국립박물관의 시대분류 기준이 바로 수코타이가 되면서 남측 전시관은 그 이전의 비타이족의 유물을 해외 유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순수한 타이족의 역사 유물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남측 전시관의 주요 유물들을 살펴보면, 일단 타와라와디 시기(6세기~13세기)의 유물들을 들 수 있다. 타와라와디 문명을 일군 종족들은 몬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버마남부와 태국중부에 걸쳐서 불교와 브라만교에 영향을 받은 문명을 일궜다. S7전시실에 그 시기의 불상과 법륜(Wheel of Law)이 전시되어 있다. S3전시실은 룽부리 예술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사실 룽부리는 태국 중부의 한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앙코르제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며 크메르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곳에 거주했던 종족들도 크메르인들이었다. 사실 룽부리 문화는 크메르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태국 역사와 방콕국립박물관은 이를 “크메르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룽부리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크메르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 강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태국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한 때 현재의 캄보디아 영토가 태국 땅이었음을 내세우면서 크메르의 유산, 심지어 앙코르와트 사원마저 태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에도 캄보디아와 인접한 국경 지역에 위치한 프레이 비헤아르(Prah Vihear) 사원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면서 “종족 중심이 아닌 “영토”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크메르 문화를 외래문화로 여기면서 그 이름조차도 언급하기 꺼려하고, 아유타야가 앙코르의 유산을 상당부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종족중심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S9실은 스리위자야(Srivijaya) 유물들을 전시해놓았다. 이 역시 타이족의 역사는 아니지만 태국남부에서 말레이족들이 일군 문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태국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리위자야는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 아니었지만 수마트라에 그 중심 세력이 위치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마치 스리위자야의 중심이 태국 남부에 있었다는 듯이 설명하고 있으며, 스리위자야와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관련성은 아주 미미하게 나와 있다. 즉 타이족의 역사가 아니어서 “우리의 역사”라고 하기에 불편하지만 과거의 이민족의 영광을 현재의 태국의 유산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S8실은 인도네시아예술전시실로 주로 쪰라롱꼰왕이 바타비이를 방문할 때 받아온 보로부드르(Borobudur) 사원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S8실과 더불어 S1실은 아시아 예술을, S4실은 고대 힌두 조각들을 전시하며 태국 주변 나라들과 역사적인 연관 관계를 표현하려 했다. 주변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증거 유물이나 설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러한 전시실을 타와라와디, 룽부리, 스리위자야 전시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시킴으로써 태국명에서 일군 문족, 크메르족의 역사적인 유산이 태국의 유산이 아니라 주변국의 유산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준다.

북측 전시관은 그야말로 순수한 타이족의 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수코타이, 란나, 아유타야, 방콕왕조의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비록 이 시기의 유물이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란나 왕조는 사실상 중부 중심의 태국 역사에서 주변부의 역사로 취급받고(버마 왕조의 식민지로 한동안 점령당했음)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방콕왕조에 통합되었지만, 타이족이 세운 왕조라는 이유로 수코타이와 아유타야와 같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란나왕조가 수코타이보다 앞서

설립된 순수한 타이족의 왕조였다. 그러나 같은 타이족의 일파로서 라오스쪽에 존재했던 란상(Lan Xang) 왕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타이족 왕조 시대에 관한 북측의 전시관에서 역시 주로 불교중심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타이족과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방콕왕조에 관한 전시실에서는 불교 관련 물품이 아닌 도자기, 탈, 내부 장식품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물품이 아니라 왕실에서 사용하던 물품들로서 민족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관람객들이 박물관 경내에 들어서면서 처음 마주치는 전시관이 바로 “타이역사전시관”(Gallery of Thai History)이다. 사실상 이 전시관은 표를 구입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입장권을 확인하는 곳이 이 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당국은 원칙적으로 이 전시관도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전시관은 사실상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방치를 해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전시관은 태국의 역사를, 아니 타이족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그 역사를 알게 하는 데 이처럼 효과적인 공간이 없는 것이다.

태국은 비록 타이족이 중심이 된 국가이지만 다수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태국땅에 카렌족, 리수족, 몬족, 아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북부산악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는 말레이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인들, 인도인들이 방콕 등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다문화국가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족적·문화적 다양성은 무시되고 방콕박물관은 오로지 주류 종족인 타이족만을 위한 전시관을

“국립” 박물관에 설치해놓은 것이다.

타이역사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의 원래 명칭은 “시와목카피만”(Sivamokkhabhiman)으로 1782년에 건립됐다. 이 건물은 라마 5세의 동생으로 부왕의 지위에 있었던 마하 수라 싱하랏(Maha Sura Singhanart)이 사용한 곳으로 연회나 종교행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됐었다. 라마 5세 시기에 이 건물은 박물관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926년에는 라마 7세가 이 건물을 사료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곳은 다시 방콕국립박물관의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한동안 사용되어 왔다. 1982년에 이 건물은 보수작업을 거쳐서 방콕천도 200주년을 기념하여 태국역사전시관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선사시대 유물들은 남측 전시관으로 옮겨졌다(Fine Arts Department 2002, pp. 6-7).

박물관내 다른 전시실은 유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이역사전시관은 내러티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등 현대적인 시설을 구축해놓았다. 아래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타이족”의 기원이다. 이 전시관은 타이족의 기원을 여러 가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족은 중국 남부로부터 13세기에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박물관의 내러티브는 그렇게 주장하는 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타이족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현재의 태국 땅으로 이주해 살아왔다는 입장을 여러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밝힌다. 즉 타이족이 현재의 태국 땅에 오래전부터 주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족의 기원에 관한 전시실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가면 고대시대 유물과 13세기 이전 시기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타와라와디, 룽부리 문명은 비타이족의 유산으로 어쩌면 이 전시관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런 불편함을 나타내듯, 이 전시관은 13세기 이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스쳐지나가듯 설명한다.

이곳을 벗어나면 수코타이 전시실로 이어진다. 이 시기부터 태국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타이역사전시관은 수코타이가 타이족의 문명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람감행비문”이다. 이 비문은 수코타이 전시실에서, 아니 타이역사전시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유물이다. 이 비문에 수코타이 시기에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타이족의 영광이 새겨져 있으며, 문자 문명을 가진 타이족의 우수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부에 위치한 수코타이가 중부에 근거를 둔 정통 타이족의 역사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Cary 1994, p. 319). 태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과거의 빛나는 유산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 속에 수코타이와 람감행비문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타이족 역사의 시작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태국 민족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20세기 초 와지라웃(Vajiravudh)왕 재위 시기에 확고히 굳어져 수코타이와 람감행은 타이족의 빛나는 과거와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다.

수코타이 전시실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향하면 아유타야 전시실에 들어서게 된다. 아유타야 전시실에는 당시 아유타야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아유타야의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활발했던 해상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시실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버마와의 전쟁”이다. 아유타야는 1560년대와 1760년대에 버마에게 함락 당했는데, 이는 타이 역사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버마는 아유타야와 그 이후의 태국 역사에서 적으로 확고하게 굳어졌고, 내부적으로 타이족의 정체성과 태국 민족주의를 확고히 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아유타야 전시실은 버마에 함락된 아유타야를 해방시키며 타이족의 순수성을 지킨 나레수안(Naresuan) 왕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근대 태국 민족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한다. 즉 나레수안왕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내세우며 이를 통해 우리 타이족의 역사의 영

광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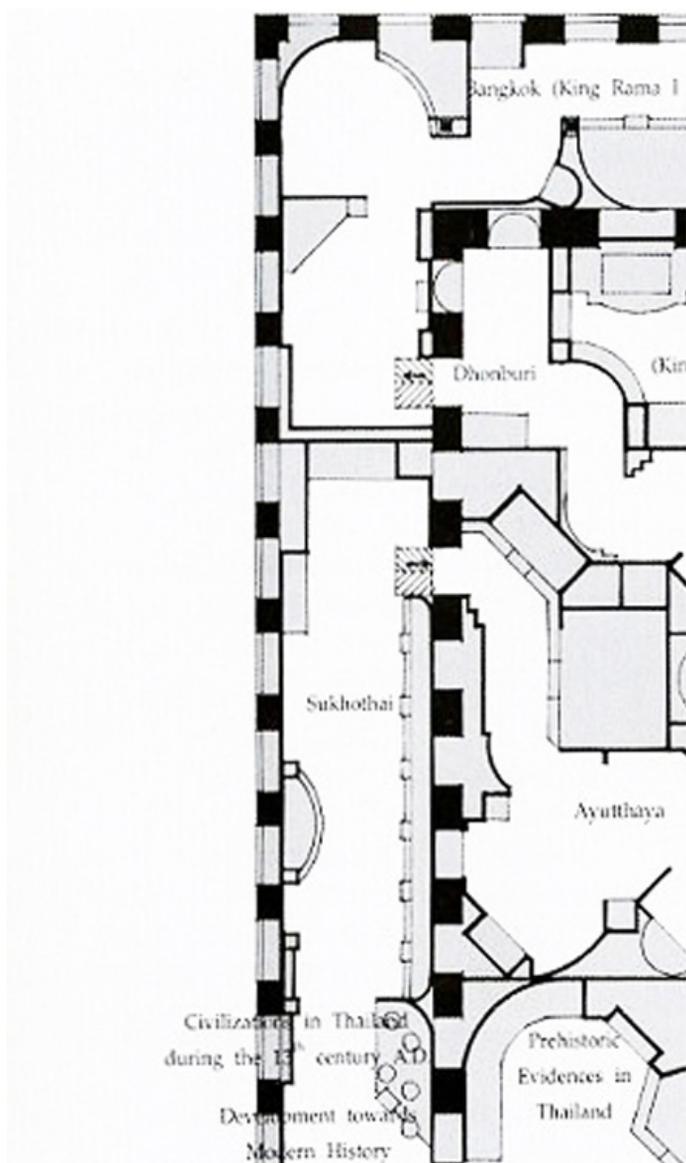
아유타야 전시실 위쪽으로 툰부리 전시실이 소규모로 마련되어 있다. 툰부리는 딱신(Taksin)왕 시기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역시 미얀마의 속박으로부터 타이족을 구해낸 딱신왕에 대해 영웅사적 관점에서 묘사해 놓았다. 타이역사 전시관은 딱신왕이 중국계였다는 사실, 치세 말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 등 빛나는 역사에 누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극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타이족 및 태국의 역사를 그려놓았다.

툰부리 시대를 이어 현 방콕왕조에 관한 전시물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아래의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전시가 타이역사전시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처럼 이 전시관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현재의 방콕왕조의 치적을 강조하면서 현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실이 근현대 태국 민족주의의 중심 기둥임을 드러낸다.

방콕왕조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라마 1세, 4세, 5세에 관한 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마 1세에 대해서는 타이족의 역사가 단절을 겪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벵마의 위협으로부터 타이족을 지켜냈다는 점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 라마 4세에 대해서는 근대화를 이루고 태국이 굳건히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서양의 문물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인 몽곳왕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서술해 놓았다. 라마 5세는 선왕이 닦아 놓은 터 위에 태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개혁적인 왕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서구 열강의 위협 속에 현명한 외교술로 태국의 독립을 지켜낸 부분도 강조되어 있다.

이처럼 세 왕들에 대한 치적이 강조가 되었다고 해서 라마 2세, 라마 3세 시기가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역사가의 눈에는 라마 2세와 3세가 별로 내세울만한 치적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그림 5-6. 타이역사전시관 평면도



자료: National Museum, Bangkok(2002. 8).

이 역사전시관은 그들이 아주 중요한 치적을 세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20세기의 방콕왕조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국왕들 중에서 현 국왕인 라마 9세에 관한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타이역사 전시관은 라마 9세가 그간 태국 국민들을 위한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며 그 공적을 높이 치사하고 있다. 라마 9세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 비록 근현대 태국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어둡고 억눌렸던 시기가 그 왕들에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고 밝고 긍정적인 면들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라마 6세, 7세, 8세 모두 태국의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고 발전시킨 국왕들로 그려져 있다. 태국 근현대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1932년 군부 쿠데타는 가볍게 스쳐지나가고 한동안 군인들의 영향하에 억눌려 지내던 어두웠던 왕실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점의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타이역사전시관은, 특히 현 방콕왕조를 다룬 전시실은 왕실이 현재의 태국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서술하며 왕실이 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근현대사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군부,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전시관내 태국 근현대사는 오로지 왕실의 역사로만 점철되어 있다.

4. 결론

이 장에서 방콕국립박물관이 왕, 불교, (타이)민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박물관의 명칭에 “국립”이 들어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이 박물관을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다. 위의 세 핵심요소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시된 유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방콕국립박물관의 태생이 왕실 유물 컬렉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박물관이 뿌리부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또한 이 박물관의 현재 위치도

왕실의 티였다는 것도 그 관련성을 강화시켜준다. 실제로 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왕실에서 사용한 유물들이 주를 이루며 왕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왕이 아닌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은 거의 전시되어 있지 않다.

이 박물관은 또한 불교 중심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도 드러났다. 타와라와디, 룬부리, 수코타이, 아유타야, 방콕 시대를 거치면서 제작된 수많은 불상들이 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교 이외의 타종교의 유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령 남부의 이슬람에 관련된 유물, 북부 산악지역 소수민족들의 기독교 문물 등에 대한 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내세우면서 방콕국립박물관은 불편한 역사적 사실과 직면해야 했다. 즉 크메르족 등 이민족이 타이족에 앞서서 현재의 태국 땅에 문명을 일군 역사적 사실과 마주쳐야 하는 것이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이 부분을 교묘히 다루었다. 즉 “룬부리” 문명에 관한 전시에서 크메르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되도록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남부에서 일궈낸 스리위자야 문명에도 적용된다. 되도록 말레이의 색채가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 역사에서 이민족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강조하지 않는다.

태국의 역사는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곧 박물관 앞쪽에 위치해 있는 타이역사전시관이다. 이 전시관은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태국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있다. 수코타이, 아유타야, 현 방콕 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철저하게 타이족 중심으로 서술해놓고 있다. 그 타이족의 중심이 된 집단이 바로 왕실임을 이 전시관은 드러낸다. 왕실은 난세를 극복한 영웅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로, 근대화를 이룬 개혁의 기수로, 근대국가의 체제를 닦은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되어 있다. 오늘날 태국을 있게 한 집단이 곧 왕실이라는 것을 그 전시관은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집단, 가령, 소수민족, 군부, 민주화운동 세력, 기업가 등의 집단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방콕국립박물관은 왕, 불교, 타이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태국의 국가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태국 민족주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또한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방콕국립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의 삶과 타종교의 역사적인 유산 및 타종족의 문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1. 서론

본 연구는 베트남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집단(ethnic group)들의 ‘전통문화’가 베트남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소개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박물관정책 등 베트남 문화정책의 특징을 민족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Bao Tang Dan Toc Hoc, Vietnam Museum of Ethnology)’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다민족적 베트남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특징적인 ‘문화적 사물들’(cultural artifacts)이 소개되고 이해되는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사회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및 사회 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어서 베트남의 국립박물관이 국가정체성 및 민족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 고찰하는 데 적절한 대상이 된다. VME는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Viet)족 혹은 ‘깁’(Kinh)족을 비롯하여 베트남 정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54개 민족집단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전시해 왔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관을 만들어 동남아 각국의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전시와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전통시대뿐 아니라 1954년 사회주의 국가수립 이후 ‘가까운 과거’의 베트남 사회상에 대한 전시를 비롯하여 해마다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박물관은 국내의 청중들에게 베트남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전통과 역사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베트남의 민족구성과 함께 ‘풍부한 미풍양속’과 ‘유구한 문화적 유산’을 자랑하는 장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박물관정책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 문화정책의 주요 요소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에 관해 고찰한다. 둘째, VME의 건립과정과 전시시설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특히, 베트남 문화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 중 하나인 ‘민족화’ 이념과 ‘뿌리 지키기’ 담론이 박물관 전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셋째, VME의 전시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총체적인 개념의 ‘문화’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은 VME의 전시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참여관찰과 주제보자 면접 등의 현지조사이고 문헌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2010년 7월과 8월에 하노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지의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면담과 그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정체성 및 민족문화정책과 관련된 박물관 전시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박물관 정책 및 법규자료, 전시 도록, 팸플릿, 통계, 출판물,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여 참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VME의 설립, 발전과정 및 현황에 관해 조사하였다. 아울러 VME의 조직구성, 관련 규정, 전시, 교육, 연구, 흥

보, 국제협력 등 박물관의 주요 프로그램과 기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거리 곳곳에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커다란 선전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지방의 주요도시의 큰 거리에서도 이러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점마다 다양한 민족의 전통 문화와 민속에 관한 무수한 출판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러한 서적들을 펼치면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인민의 주요한 요구이자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간부들이나 주요 국립 연구기관의 학자들은 누구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사업이 공동체적인 국가 및 민족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어디에서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박물관과 전시시설이 산재하고 전통의례, 축제, 순례 등의 의식과 행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은 무엇인가?

베트남의 근대적 문화정책은 ‘문화’를 사회주의 혁명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43년 쩌엥 쩌(Truong Chinh, 1941~56년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은 ‘베트남 문화에 관한 테제’에서 문화를 혁명 투쟁에 있어서, 경제 및 정치 전선과 함께 세 가지 전선(mat tran, front) 중 하나라고 선언하였다. ‘문화간부들’, 즉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억압자들의 문화적 식민지화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문화전선의 전사들”로 간주하였다(CPV 1970, 7). 1945년 8월 혁명 이후, 베트남공산당은 ‘민족화’(dan toc hoa, nationalization), ‘대중화’(dai chung hoa, popularization), ‘과학화’(khoa

hoc hoa, scientism)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지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쓰엉 찌은 이중에서도 특히 민족화는 “독특하게 베트남적인 것을 실제로 회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념”으로서, “모든 노예제와 식민지의 영향에 대한 투쟁을 통해 독립을 향해 진보하는 베트남 문화 건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Truong Chinh 1985, p. 359; 최호림 2007, pp. 65~66).

당의 지도자들은 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는 민족적 유산 중 ‘최고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래의, 부패하고 봉건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좋은 베트남 전통과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미풍양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Truong Chinh 1994, pp. 250~251). 이러한 당의 정책 담론은,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위한 일종의 ‘베트남식 문화혁명’인 ‘새생활(*doi song moi*) 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부터 본격화된 ‘새생활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주도의 총체적인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당은 국가이념을 보강하기 위한 선택적인 의제를 통하여 ‘문화’의 구성요소들을 선별하여 ‘봉건’, ‘미신’, ‘낭비’와 ‘낙후되고 반(反)과학적인 전통’을 부정하였다(최호림 2003, pp. 186~88).

사회주의 혁명 이후 토지개혁(1955~56년)과 함께 종교적 성소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어, 그러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인민의 봉건적, 전근대적 습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 여러 유적과 유물을 ‘우수한 민족문화’ 또는 ‘고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을 벌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1945년 11월 23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 주석의 명의로 공포된 “제65호 칙령”(Sac Lenh So 65, 1945/11/23)에 따르면 “고적의 보존은 베트남 국가건설 사업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5년 11월 23일 하노이에서 호찌민 임시정부 수반이 포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칙령은 모두 6개 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극동학술원(Ecole Francaise d'Extreme Orient, EFEO)을 폐지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베트남동양학술원(Dong Phuong bac co hoc vien, Vietnam Oriental Institute)이 전국의 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임무를 지닌다. 여러 형태의 지방의 성소들, 궁전이나 왕의 무덤이 있는 성곽과 같은 의례장소의 파괴를 금하고 보존한다. 묘비, 유물, 책, 학위증서, 문서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파괴를 금지하고 보존한다.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 행정기관이 베트남동양학술원의 발굴 및 보존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토지개혁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당과 국가는 소위 역사유적과 명승지 보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정부가 지방의 역사유적을 보존하는 정책은 민간의 관습과 전통을 세속화하고 국가와 당의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민간 종교적 요소를 박물관의 전시를 위한 민속품화 또는 세속화하는 정책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1956년부터 보존·박물관 영역을 창립하고, 1957년 10월 29일, 수상이 519호 규정, 즉 ‘역사유적과 명승지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을 공포하여 박물관 건립 및 관리를 통한 지방문화의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Cong Bao So 13, 1966/10/31). 1960년대 중반 이후 소위 ‘남부 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유적지와 동굴 등을 방공대피소로 활용하거나 전시 작전에 활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에 다양한 행정안내와 지시를 통해 항전기간 중 유적 보호 및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보강하였다.

이와 같이 보존·박물관 영역을 강화하는 문화정책의 근간에는 ‘뿌리지기’ 담론이 내재해왔다. 국가는 의례개혁과 지방의 유적을 보존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어젠다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즉, ‘호찌민 주석의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삼아 당

과 국가가 주도적으로 ‘찬란한 민족의 본색전통’(本色(傳統)과 함께 새로운 ‘혁명의 전통’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Dinh Xuan Lam & Bui Dinh Phong 2001).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담론의 핵심은 ‘민족의 근원(goc)’을 잃지 않도록 ‘뿌리의 문화’(van hoa nguon goc)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최호림 2007).

국가는 이와 함께 국영연구기관에 소속된 역사학 및 민족학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민족에 대한 연구 기록과 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은 산간오지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전통과 생활양식 또한 위대한 베트남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호찌민 주석의 인식과 오랜 전쟁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각 소수민족의 지리, 경제, 민속 등에 대한 약 20년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는 1979년에 비로소 베트남이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Bodemer 2010, p. 17).

1960년대 들어 국가는 ‘전통문화’와 ‘민족의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2년까지 정부는 ‘국자 감’(Quoc Tu Giam), ‘레말 사당’(Den Le Mat), ‘홍왕 사당’(Den Hung Vuong) 등 모두 14개의 유적을 중앙정부급(국가급) 유적으로 공인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에서 종교적 성소와 고적을 국가의 유적으로 공인하고 ‘베트남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표본으로 보존하는 정책과 함께 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속해 왔다.

미국과의 전쟁 기간에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함축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 가령, 1966년에는 ‘항미구국 기간 중 역사유적의 보호와 발취에 관한 제188호 지시’와 같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항전기간 중 유적 보호 및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보강하였다. 특히 이 제188호 지시의 앞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면을 할애하여 역사유적, 문화유산 및 명승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당

시 베트남 국가의 민족주의적 문화정책 담론의 주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매우 아름다운 문화와 함께 투쟁으로 조국을 지키고 건설한 영웅의 전통을 지녔다.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역사유적들이 있다. 산과 들, 강과 바다에 많은 명승지가 있다. 이러한 유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역사발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여러 시대의 조상들이 자연과의 투쟁 및 사회의 투쟁경험을 학습하였다. 역사유적과 명승지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적들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애국심, 창조적 노동의 전통, 그리고 외침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투쟁의 전통과 민족의 자부심, 혁명 영웅주의 등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회주의의 사업과 미국을 물리치는 전투와 구국투쟁에 기여해야 한다. 1956년부터 보존박물관 영역이 창립되고, 1957년 10월 29일, 정부 수상이 519호 규정을 통해 역사유적과 명승지를 보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8, 9년이 경과하면서 보존박물관 영역에서 일부의 성과를 올렸다. 수백 개의 유적과 명승지가 등록되거나 공인되고 보호되었다. 일부 건축공정을 통해 훼손된 유적을 복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성마다 역사유적을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 혁명박물관, 역사박물관, 군대박물관, 미술박물관과 20여개의 여타 박물관 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존박물관 영역에 일부 취약한 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유적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유적 보존 의무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다. 일부 행정위원회와 책임기관들이 보존, 박물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불충분하다. 이 영역에 참여하는 인민이 여전히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다. 과학연구사업 또한 결핍되어 있다. 이 영역에 관련된 조직도 부실하고 인력양성과 교육 분야도 적절하지 못하다(Cong Bao So 13, 1966/10/31).

1975년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점차 유적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한다. 정부의 유적공인 사업은 199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여 매년 약 40개 이상의 유적이 공인되어 왔다. 유적공인이 급증

한 것에는 우선 1984년 정부가 ‘역사문화유적 및 명승고적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때부터 지방의 ‘문화 간부’들은 공개적으로 공인 신청을 격려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특별중요유적’, ‘혁명항전유적’ 등을 포함한 ‘역사유적’ 898개, ‘예술건축유적’ 690개, ‘명승유적’ 52개, ‘고고학유적’ 19개 등 모두 1,659개의 유적이 국가의 역사문화유적으로 공인되었다(Cuc bao ton bao tang 2000). 2005년 말까지 약 2,200여개의 유적이 공인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는 공인의 대상이 되는 유적은 “나라와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족정체성과 본색문화의 보존에 공적을 쌓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전승되고 있는 입증된 역사적 인물이나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정해 내려온 경우”라고 정하였다(Nguyen The Long 1998, p. 14). 또한 당은 우수한 민족문화를 보전, 계승하는 것은 호찌민 주석의 주요 사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Dinh Xuan Lam & Bui Dinh Phong 2001; Bui Dinh Phong 2001). 즉, ‘민족의 근원’을 잃지 않도록 ‘뿌리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유적을 지속적으로 공인하고 보존박물관 사업을 확대해 왔다.

한편, 1986년 도이머이(loi moi) 정책을 통해 민간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전과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화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베트남 인문-사회과학계는 국가담론에서의 민속 전통의 재확인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인류학, 사회학, 종교연구 분야 뿐 아니라 민속학을 비롯한 소위 ‘민간문화 연구 분야’가 특히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박물관에 관한 연구에 기여해 왔다(최호림 2007, pp. 76~80).

1998년 7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5차 대회에서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보적인 베트남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Van Hoa 391. 1999/08/16, pp. 1~3). 이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통문화가 발현하는 민족정체성은 “민족 건설 과업의 오랜 역사 동안 결정(結晶)되어 온 것”이며, 베트남 인민의 이상화된 “정화”라고 규정된다. 이러한

담론은 베트남 민족에 일련의 ‘기본 가치들’이 공유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 가치들로는 열렬한 애국심, 민족 독립자강을 위한 강한 의지, 단결의 정신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평화롭게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념적, 문화적 전선에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적대적 힘들”에 대항하여 베트남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널리 유포되고 있다. 마약과 약물 남용, 범죄, 매춘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 외에, 당은 새롭고 외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열망이 점차 이기적인 생활양식을 확산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족의 문화적 가치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강한 문화적 정체성은 현대성의 사악한 정신에 대항하여 민족의 ‘미풍양속’을 지켜줄 것으로 보았다.

이제 중심이 되는 모티브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지만,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미 1940년대 중반 쓰영 쩌의 ‘민족화’ 원칙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림 2007, p. 82).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영도적인 개념 중 특히 강조되는 한 가지는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며,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상기하라”(uong nuoc nho uguon)는 속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원래 자신의 것’이 곧 ‘최고의’ 민족 문화라는 의미를 다시 내포함으로써 ‘이방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원래 자신의 것’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베트남의 국립박물관, 특히 VME는 이러한 ‘민족화’ 담론에 근거하여 베트남 국가를 구성하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발굴, 재현하고 보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 VME의 설립과정

이러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박물관을 중앙과 지방에 설립해왔다. 이중에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국가급 박물관’ 즉, 국립박물관은 현재 민족학박물관 외에 역사박물관(1958년 개관), 혁명박물관(1959년 개관), 인민군대박물관(1959년 개관), 미술박물관

관(1966년 개관), 민족문화박물관(1976년 개관) 호찌민박물관(1990년 개관) 등 모두 7개가 설립되어 있다(Pham Mai Hung, Nguyen Van Huy *et al.* eds. 2001 참조). 이 중에 타이응웬(Thai Nguyen)성에 소재하는 민족문화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노이에 건립되었다. 민족문화박물관은 VME와 유사하게 베트남의 다양한 민족집단의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주로 소수민족에 관한 전시에 집중해 왔다. 베트남에는 이러한 국가급 박물관 외에도 각 지방 성(省)별로 성급 박물관과 국가급 박물관의 분관이 산재해있고, 기타 특정한 주제의 박물관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해왔다.

54개 민족집단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는 하노이에 VME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87년 12월 14일 공식적으로 VME 건립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처음에는 2,500m²의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1988년에 9,500m²의 부지가 추가로 할당되었다. 이후 학계와 문화부의 요구에 따라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결국 1990년 수상은 총 3.27헥타의 부지를 VME 건립에 할당하도록 결정하였다. 1987~1995년의 건설 기간 동안 사업 관리위원회(Project Managing Board)와 박물관부(Museum Dept.)가 민족학연구소(Institute of Ethnology)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었다. 1995년 10월 24일 수상이 국립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CSSH)의 산하에 민족학박물관 설립을 결정하였다.

표 6-1. 베트남 54개 민족집단의 공식적 분류체계⁵⁰⁾

대분류	소분류	민족명	수
I. 남아 Nam-Á (오스트로아시아 계)	a. 비엣-므엥 그룹	1. 비엣 Việt (Kinh), 2. 므엥 Mường 3. 토 Thổ, 4. 좡 Chút	4
	b. 몬-커메(크메르)	1. 커메(크메르) Khor-me, 2. 바나 Ba-na 3. 썬당 Xo-đăng, 4. 흐레 Hré 5. 꺼호 Co-ho, 6. 므농 Mnông 7. 쓰띠엥 Xiêng, 8. 커무 Khor-mú 9. 브루-반끼에우 Bru-Văn Kiêu 10. 꺼뚜 Co-tu 11. 지에-뜨리엥 Gié-Triêng 12. 따오이 Ta-ôi, 13. 마 Mạ 14. 꼬 Co, 15. 찌로 Chơ-ro 16. 썬문 Xinh-mun, 17. 캉 Kháng 18. 망 Máng, 19. 저맘 Ro-mãm 20. 브라우 Brâu, 21. 어두 Ó-đu	21
II. 남 다오 Nam Đảo (오스트로네시아)	a. 말레이-폴리네 시안 그룹	1. 자라이 Gia-rai, 2. 에데 Ê-dê 3. 찜(참) Chăm, 4. 라글라이 Ra-glai 5. 찰루 Chu-ru	5
III. 타이-까다이 Thái-Kadai	a. 타이 그룹	1. 따이 Tày, 2. 타이 Thái 3. 농 Nùng, 4. 산짜이 Sán Chay 5. 자이 Giáy, 6. 라오 Lào 7. 르 Lự, 8. 보이 Bó Y	8
	b. 까다이 그룹	1. 라찌 La Chí, 2. 꺼라오 Cơ Lao 3. 라하 La Ha, 4. 뿌삐오 Pu Péo	4
IV. 중국-티베트계	a. 중국계 그룹	1. 호아(중국인) Hoa 2. 산지우 Sán Diu, 3. 응이이 Ngái	3
	b. 티베트-버마계	1. 하니 Hà Nhi, 2. 푸라 Phù Lá 3. 라후 La Hủ, 4. 로로 Lô Lô 5. 풍 Công, 6. 실라 Si La	6
V. 호몽(몽)-자오		1. 호몽(몽) Hmông, 2. 자오 Dao 3. 빠텐 Pà thên	3
합 계		54	

50) 베트남어 민족명에 대한 한글표기는 가급적 베트남어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하였다. 국가에 따라 자국 내의 민족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이 글의 취지상 베트남의 분류방식을 가급적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익숙한 한국어 표기가 있는 민족명의 경우에는 그것을 () 안에 병기하였다.

VME설립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인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설립에 관한 수상의 제689호 결정”(Prime Minister’s Decision 689/TTg, 1995년 10월 24일)은 “1992년 9월 공포된 정부 제 30호 법령(Government Law 30)과 1993년 5월 22일의 국립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정부 조례 23번 (Decree 23/CP) 및 국립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장, 문화통신부 장관 및 여러 정부 지도자들의 제안에 근거하여 정부수상실의 공식적 법적 결정에 따라 국가급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결정의 제1조 규정을 보면, NCSSH 산하의 연구기관이던 민족학연구소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VME를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CSSH의 원장이 VME의 활동 조직과 구조를 강화하는 책임을 지고, 원장 외에 당시의 문화통신부 문화유산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간부들이 이 결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Luu Hùng and Vi Văn An 2006, pp. 12~13). 즉 VME는 당시 최고 국립연구기관의 지휘를 받는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VME는 하노이시 꺼우저이(Cau Giay)군 응웬반후엔(Nguyen Van Huyen)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하노이시 중심가에서 8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이 지역은 원래 농촌지역이었으나, 박물관 건설을 위해 호앙꾸옥비엣(Hoang Quoc Viet)로에서 박물관 입구에 이르는 700m 도로를 만들고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여 현재는 인근이 하노이의 주요 부도심의 하나로 변모하였다.

박물관 건물은 타이(Tay)족 출신 건축가인 하득링(Ha Duc Linh)이 담당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프랑스 건축가 베로니크 돌푸스(Veronique Dollfus) 여사가 담당하였다. 1997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7차 프랑코포니(Francophony)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12일 박물관이 공식 개관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97년 개관에 이르기까지 건설비는 총 270억 동(약 190만 달러)의 예산이 들었고, 전시물의 수집과 전시 예산으로 40억 동(약 28만 5천 달러)이 소요되었다.

■ 그림 6-1. 1996년 VME 건설 당시 모습 ■



자료: Luu Hung and Vi Van An(2006).

2005년 베트남 국영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을 통해 베트남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이 기존의 NCSSH를 비롯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및 각 지역연구 분야의 주요 국영연구기관을 통합하는 최고기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NCSSH와 산하 기관이었던 VME도 베트남사회과학원 산하의 기관으로 편제가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5월 30일 당시 도 호아이 남(Đỗ. Hoài Nam) VASS의 원장이 공포한 “제956호 결정”(956/QĐ/KHXH)에 따라 VME의 역할, 과제, 지위 및 조직에 관한 주요 원칙이 정해진다. VME는 VASS의 전략과 5개년 및 매년의 계획과 사업에 근거하여 박물관 사업 추진하되, VASS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1항). 즉 VME는 최고 국립연구기관인 VASS 산하기관으로서 VASS의 결정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VME는 베트남 국내 및 외국의 민족집단의 역사적, 문

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수집, 보존, 발명, 복원, 전시를 임무로 한다. 또한 민족집단에 관한 연구 자료를 각 분관에 제공하고, 박물관인류학(museum anthropology)과 민족학적 박물관학(ethnographic museology) 분야의 전문가, 연구진 및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도 포함한다. 민족학박물관이 베트남의 민족학 및 박물관 분야의 학자들을 동원하는 중심적인 연구기관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각 민족집단의 문화의 근본적인 것에 관한 연구”(Research the fundamentals about the cultures of the ethnic groups)를 VME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정해둔 점이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것”은 각 민족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규정하는 근본적 에토스가 근원적으로 존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불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의 전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 민족집단에 관한 실용적, 이론적 연구도 주요 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의 연구는 대부분이 각 민족집단의 관습과 민속 및 문화적 사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 및 조사활동은 주로 각 민족집단의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원천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빙에 초점을 두고 수집된 자료의 목록작성 및 관리, 보존 임무를 포함한다.

VME는 전시 및 연구·교육 기능 외에 각종 도록과 민속자료의 출판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방문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중교육사업 등의 대중화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의 분관, 지방의 여러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무도 지닌다.

한편, VME는 개관을 준비하던 1990년대 초부터 박물관 전시사업과 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박물관의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활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 프랑스측은 박물관

의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내부 장식 디자인 전시 조직 등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역을 해왔고 현대 박물관에 걸맞는 많은 기술적인 장비들을 제공해주었다. 프랑스의 전문가들 중에 특히 민족학자인 크리스틴 험멧(Christine Hemmet)과 건축가 베로니크 돌푸스(Veronique Dollfus) 등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박물관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VME는 설립 초기부터 미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Intergovernmental Francophony Agency, Ford Foundation, Asian Cultural Council(ACC), Japan Foundation Asian Center 등의 지원을 받았다.

관람객 수를 보면, 개관 이후 1998년에는 3만 7천 명이 방문하였고, 2001년에는 약 7만 6천 명, 그리고 2005년에는 16만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Pham Mai Hung, Nguyen Van Huy *et al.* eds. 2001, pp. 369~70; Nguyen Van Huy and Margaret B. Boodemer eds. 2008, pp. 14~15). 최근에는 하루 평균 5백 명에서 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연간 평균 20~30만 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장은 “방문객들은 단지 방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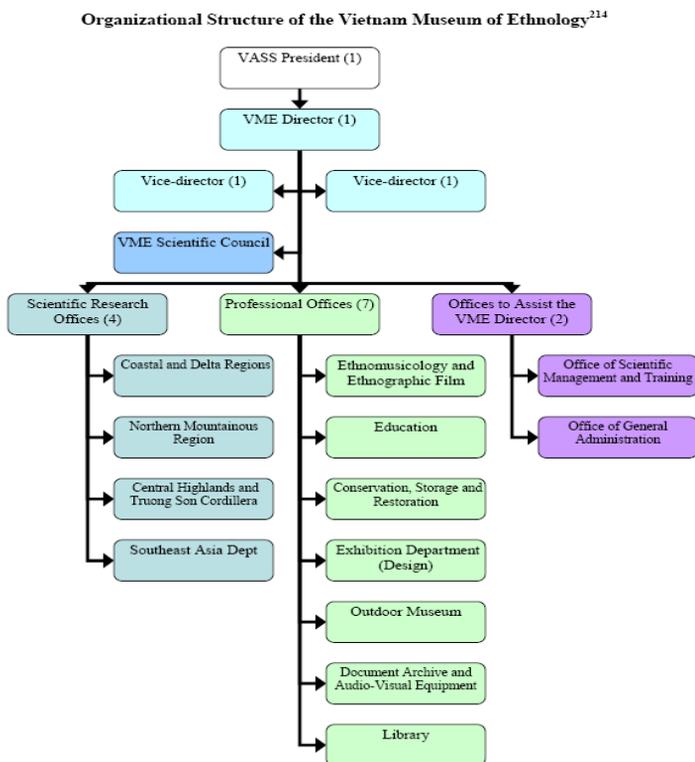
■ 표 6-2. VME 방문객 통계(1998~2005년) ■

연도	총수(명)	내국인		외국인	
		수(명)	비율(%)	수(명)	비율(%)
1998	37,091	24,900	67.1	12,191	32.9
1999	42,668	25,113	58.9	17,555	41.1
2000	56,032	31,257	55.8	24,775	44.2
2001	75,943	41,656	54.9	34,287	45.1
2002	97,511	48,179	49.4	49,332	50.6
2003	91,865	55,240	60.1	36,625	39.9
2004	132,550	77,637	58.6	54,913	41.4
2005	163,635	82,092	50.2	81,543	49.8
누계	697,295	386,074	55.4	311,221	44.6

구경하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종족집단의 문화적 다양성과 각각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기회가 된다. 국내외,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방문하고, 전문가와 일반인도 폭넓게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ME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한 명의 관장과 두 명의 부관장 아래에 과학연구부(Scientific research offices), 전문분야연구부(Professional offices), 행정관리-관장보좌부(Departments, offices to help the Museum Director)

그림 6-2.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조직표(2005년 이후)



자료: VASS President's Decision 956/QD/KHXH, May 30, 2005, articles 3-5; Bodemer 2010, 234 재인용.

등 크게 세 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관장에 대한 자문역으로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uncil)를 설치하였는데, 과학위원회의 위원들은 VASS 원장의 재가에 따라 박물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과학연구실은 해안-평야지역 연구-수집과, 북부산간지역 연구-수집과, 쓰엉선-중부고원지역 연구-수집과, 동남아지역 연구-수집과 등 4개 하위부서를 두고 있다. 전문분야연구실 산하에는 민족학-민족박물관학(시청각자료)과, 교육과, 보존-목록-복원과, 전시과, 야외전시과, 아카이브-시청각시설과, 도서관 등 7개 하위부서가 포함된다. 행정관리-관장보좌부 산하에는 과학관리-훈련과, 행정실 등 2개 부서를 두고 있다. “제956호 결정”에는 VME의 특수한 과제의 요구에 따라 임시부서와 특정업무 수행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uu Hùng and Vi Văn An 2006, pp. 14~17; Bodemer 2010, pp. 231~33 참조).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 그림 6-3. 동고의 형상을 띤 VME의 실내전시장 ■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공간적 구성은 크게 실내전시장과 야외전시장 등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실내전시장은 전시실과 사무실, 연구센터, 도서관, 유물보관 창고, 기술실험실 및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실은 유물보관 창고 750㎡를 포함하여 총 2,480㎡의 면적이다. 2005년 완성된 야외 전시장에는 10개의 소수민족의 대표적인 가옥이 건축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많은 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층으로 된 원통 모양의 전시장 건물은 베트남에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동고(銅鼓, bronze drum)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고, 실제 동고를 비롯하여 전시유물을 영구 보관하고 공간이 되도록 건축되었다. 입구에서 2층으로 오르는 복도는 다리의 형태로 만들어져 베트남 농촌과 산촌의 전통 가옥형태인 주상(柱上)가옥을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고 박물관 내부의 바닥은 S자 모양의 어두운 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데, 베트남 영토의 해안선 모양을 상징하며, 이 중에 육지 부분은 어두운 타일로, 바다는 밝은 회색 타일로 표현하고 있다. 박물관의 안내책자에는 박물관 시설의 접근편의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전시장의 디자인은 베트남의 기술적 과학적 수준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건축양식과 전시 기법에도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장애우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계단에는 손잡이를 두어 노인들도 편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의 많은 훌륭한 박물관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박물관에 사용되는 문자는 가급적 소문자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면 전시물은 대부분 성인 과 어린이 모두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였다. 유물이나 현물뿐

만 아니라, 사진, 텍스트, 비디오와 많은 참고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서로 다른 교육 수준과 필요에 부합하도록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VME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54개 민족집단의 문화유산의 전시와 보존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위해, 1997년 개장 이후 박물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수행한 사업은 유물관 전시-연구 자료의 수집이었다. 그 결과 2000년까지 15,000점의 유물, 2,190점 슬라이드, 42,000점의 사진, 273점의 오디오테이프, 373점의 비디오테이프 및 25개의 CD-ROM을 보유하게 되었다(Pham Mai Hung, Nguyen Van Huy *et al.* eds. 2001, p. 370). 2005년까지 약 2만 점의 유물, 9만 점의 사진자료, 400개의 오디오테이프, 1천여 점의 비디오테이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Nguyen Van Huy and Margaret B. Boodemer eds. 2008, p. 15).

전시 안내는 베트남어, 불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진행된다. 박물관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어 안내는 없지만, 한국인 관광가이드나 현지인 한국어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VME는 개관 당시 처음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안내팸플릿을 만들었고, 곧 이어 프랑스어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이후에 국제 관람객의 출신국별 수요에 따라 일본어 팸플릿이 제작되었고, 2000년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 팸플릿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박물관은 단체관람이나 특별관람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관람을 원하는 경우에 예약을 통해 해당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각 민족의 일상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물들이 VME의 실내 및 야외 상설 전시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이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로 견지해 온 관점은 전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단순할수록 관람객의 관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즉, 관람객들이 전시물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감상하기 좋도록 가급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시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과 비디오 자료를 통해 각 민족의 생활을 설명해주고 있다.

박물관에는 골동품이나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적 사물뿐만 아니라 각종의 생활필수품 및 일상용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관장은 “이러한 사물들은 베트남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이고, 사람들의 삶과 창조적인 활동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박물관에는 각각의 개별 종족집단에 따르는 54개의 컬렉션이 있다. 이들은 다시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의류, 보석류, 농기구, 어업도구, 무기, 가재도구, 악기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다양한 종교, 신앙체계 및 혼례, 장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의례와 영적 활동과 관련된 항목별로 분류된다. 또한 특정 컬렉션에 따라 박물관은 전시회를 조직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관객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도서자료를 출판하고 카탈로그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 실내 상설 전시장에는 700여 점의 유물과 280점의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설전시장의 유물과 사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도 되지만, 관람객들에게 문화적 사물을 지나치게 많이 전시하여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실내 전시장 벽면에는 설명과 함께 사진과 지도가 포함된 수백 개의 패널을 만들어 설치해 두었다.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 설명 자료는 매우 축약적이다. 많은 자료가 영어와 불어로 번역되어 병기되어 있고, 일부는 일본어, 한국어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관람객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한 큐레이터는 “이 박물관은 여행 가이드 없이 외국인이 혼자서 찾아와서 관람을 하여도 주요 전시물의 주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자랑하였다. 전시장 내부에는 포커스 라이트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전시물의 핵심적인 요소와 그 아름다

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주요한 부위에 초점을 두고 빛을 비추도록 라이트를 설치하였다. 또한 마모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통풍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실내전시장은 상설전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별·임시 전시회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상설전시장은 모두 9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유리 장식장의 현물과 축소모형세트, 투시화 등으로 구성된다. 방문객이 실내전시장 1층 입구를 들어서면, “베트남, 역사적 문화적 시기들(Vietnam, Historical and Cultural Periods)”라고 적힌 패널이 보인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역사적 시대구분

■ 표 6-3.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실내 전시장의 섹션 구성 ■

섹션 구분		주요 내용
I	General Introduction	
II	Viet(Kinh)	- 인구 86%를 차지하는 비엠큐(깁)족
III	Muong, Tho, Chut	- 므앙(Muong) - 툴(Tho) - 쑤트(Chut)
IV	Tay-Thai, Kadai	- Tay-Thai 언어계열 민족 - 까다이(Kadai)
V	Hmong-Yao, Tang-Mien, San Diu, Ngai	- 호몽-야오 언어계열 민족 - 호몽 - 야오 - 파텐(Pathen)족 - 썬지우(Sandiu) 및 응아이(Ngai)족 - 티벳-버마어 언어군
VI	Mon-Khmer ethnic groups (산간 및 고원지역)	- 북부베트남의 몬-크메르 그룹 - 중부고원지역-쯔엥썬(Truong Son) 산맥의 몬-크메르
VII	Austronesian language ethnic groups (산간 및 고원지역)	-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그룹의 고원부족
VIII	짬, 중국인 및 크메르 (남부-남중부 지방)	- 짬 - 크메르 - 중국인(Hoa)
IX	종족집단 간의 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와 발전 - 문화변동의 추세

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베트남의 다양한 민족집단과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서로 통합되어 공존하고 화합해왔다”는 설명이 들어 있다.

그 옆으로는 언어집단별 분류에 따라 종족집단의 분포를 보여주는 커다란 칼라지도가 걸려 있다.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등 베트남의 세 지역 구분에 따라 각각의 종족집단이 거주분포 양상이 그려진 패널이 걸려 있다.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패널은 5개 종족 언어집단 범주에 따라 분류된 54개 종족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담고 있다. 그 각각은 Austro-Asiatic, Austronesian, Hmong-Yao, Thai-Kadai, 그리고 Sino-Tibetan 등이다. [표 6-3]과 같은 섹션 구분에 따라 54개 종족별 의식주와 민속 등 중요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층 전시장은 언어집단의 분류에 따라 종족집단을 분류하여 문화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97개의 유리 장식장에 전시된 유물들은 모두 진품 유물들이다. 진품 유물 장식장은 한 면만 유리도 된 것과 네 면이 모두 유리로 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물의 모양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다. 하나의 장식장에 한 개의 유물을 진열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장식장에는 한 장식장에 여러 개의 유물을 나란히 진열하여 4면을 통해 여러 명의 관람객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모든 유물에는 이름표와 함께 유물이 출토되거나 만들어진 장소와 민족집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유물의 이름 뿐 아니라 유물에 관한 간략하게나마 초보적인 설명문이 포함된 것은 50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장식장에는 진품 외에 마네킹, 지도, 도표, 도서자료, 사진,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모형 등과 33개 섹션의 현판이 제작되어 전시되어 있다. 큐레이터들은 VME의 규모가 다른 세계적인 박물관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각 종족집단의 특징의 관습과 문화적 특질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특징 요소를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달리 대개의 전시품에 부착된 설명 방식은 물질로서 유물의 형상과 그 유물이 존

재하였던 공간적 위치를 보여줄 뿐 그 유물이 살아 있는, 혹은 살았던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서 문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 그림 6-4. 북부의 몬-크메르족의 의식주 전시 모습 ■



■ 그림 6-5. 수렵-어로 도구 및 바구니 전시 모습 ■



그림 6-6. 마네킹을 활용한 므엥족의 장례식 재현 모습



다.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은 대부분 각 종족과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양식을 다양하게 전시해두고 있다. 야외 전시장은 10여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완성되었다. 2000년까지 에데(Ede)족의 롱하우스와 타이(Tay) 족의 주상가옥, 야오(Yao)족의 반(半)주상가옥, 포무(pomu)나무로 된 지붕을 가진 흐몽(Hmong)족의 전통 가옥, 기와지붕으로 된 비엣 족 가옥 및 자라이(Giarai) 족의 무덤 등이 이미 완성되었다. 이후에 차레로 바나(Bahnar)족의 공동사당(communal house), 째족의 전통 가옥, 훼손된 벽을 묘사한 하니(Hanhi)족 가옥 등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각 가옥들 사이로는 각 지역에 고유한 수종의 나무를 심었고, 지그재그 형태의 통로를 만들고 사이에 냇물과 작은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6-7. 야외 상설 전시장의 전경



그림 6-8. 야외 전시장의 자라이(Giarai)족 무덤



야외 전시장의 건축물들은 베트남 각지의 소수민족의 주거양식을 보여준다. 그 내부에는 각종의 가구, 가내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밀랍인형이나 부착물을 통해 실제 생활과 행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실내전시장의 전시는 베트남 민족문화의 단면들을 총체적인 생활양식과 연계시키지 않고 단지 사

물로서 수집된 유물들은 편재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야외전시장은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야외전시장의 전시 또한 실내전시장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민족집단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특정의 공간에 늘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어온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실내와 야외의 상설전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지하는 한편, VME는 매년 다양한 기획-특별전시회, 공연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VME가 주도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기획-특별전시회 및 공연프로그램은 99건에 이른다.

▣ 그림 6-9. 배급시대 전시회(2006년): 양식배급소(Bodemer 2010, 285) ▣



한편, VME는 상설 전시 및 특별기획 전시회 등 전시 행사 외에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와 시설을 통해 관련된 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1) 살아 있는 전통(Living Traditions): 이것은 민속예술 공연 및 시연회를 말한다. 여러 소수민족이나 지방 출신의 공연예술가의 음악 공연, 수공예 장인들이 수공예품 제작 시연회, 각 민족의 민속예술 전시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야외 전시장 한 곳에는 수상인형극 무대가 마련되어 하루에 몇 차례씩 수상인형극 공연을 한다.

(2) 체험교실(Discovery Rooms): 이것은 일종의 어린이 체험교실이다. 전통그림 그리기, 민속 장난감 만들기, 천 염색과 무늬그리기, 과학실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베트남의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3) 뮤지엄 샵: 박물관의 정문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 벽을 따라 1층 기와 집을 지어 샵을 만들었다. 실내 전시장의 정문과 거의 마주하고 있다. 이곳은 “Craft Link”라는 베트남전통수공예품 제작 및 공급 전문 업체와 제휴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소수민족과 베트남 각 지방의 주요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4) 서점: 베트남 역사와 문화 관련 서적, 특히 각 소수민족의 민속과 전통생활양식을 소개한 연구서와 도록을 판매하고 있다. 민족학박물관의 연구부서에서 편찬한 도서와 도록도 다수 전시 판매되고 있다. 그밖에 사진엽서, 카탈로그, 우표 등도 판매한다.

(5) 기타 시설: 멀티미디어 자료실, 문서보관실, 회의 공간, 음향감상실 등이 있고, 식당, 카페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

마. 소결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은 베트남의 다양한 민족

들의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전시이다. 그러나 이 박물관의 전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화 보존에 관한 전형적인 담론은 “원시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민족집단들의 물질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다양한 민족들에 원래 내재한 고유한 전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보존”(selective preservation)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은 전시 유물의 수집과 제조 및 전시프로그램에 민족학이 강하게 개입함으로써 다양한 민족문화에 관한 전시프로그램이 확충되어 왔으나, 베트남이라는 국민국가의 이념 아래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원시적인 타자의 “사라져가는” 토착 전통을 묘사하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박물관은 전통을 복원, 확립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데, 베트남민족학박물관에 의해 제조되는 전통의 주체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고정된 존재들로서, 대개의 경우 원주민, 촌락민 혹은 소수민족으로서 “타자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타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과거의 유물로 굳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Bodemer 2010, p. 9). 또한 박물관 전시를 통해 문화적 가치나 관습이 물상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다수 민족의 전통이 상품화되고 있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또한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유사하게 국가·민족의 이데올로기가 공표되는 문화기관으로서 국가의 문화발전을 보여주고 서로 경합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영역에서 여러 통합적 상징들을 유포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베트남의 공식적인 민족분류체계와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되새기는 역할을 하며, 베트남 사회에서 유구하고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양식을 재현함으로써, 문화와 전통에 관한 중심적인 가치와 권위를 재생산하는 실천양식을 보여주는 문화기관이다. 한편,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역할도 일부 하고 있다. 즉, 박물관이 오지의 다양한 민

족들의 생활양식과 물질문화를 전시하고 다양한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국립박물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문화정책 담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의 다양한 민족문화가 어떻게 전시되어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혁명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1930년대 근대 민족학의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고고학, 역사학 특히 민족학 분야의 역할을 토대로,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함께, 베트남식 문화적 뿌리 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에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은 1997년 개관 이후 지속적인 쇄신을 통해 베트남의 핵심적인 민속박물관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심화되고 확대

된 민족학적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지방의 새로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다. VME는 지난 13년 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지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은 베트남이 54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1979년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가 54개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념은 현재 확고하다. 베트남의 문화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 강조해 온 “민족문화의 뿌리정체성”을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수 민족인 비엣(Viet)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이라는 개념과 53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족들”이라는 개념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실제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서 소수민족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표상들을 통해 소수민족들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의 통합과 형제애에 관한 국민국가적 내러티브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한편, 1986년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강화되고 세계시장경제의 영향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 시행과정에는 일정한 긴장이 내재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사회주의 정부가 강조해온 민족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시선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업주의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이다.

이런 딜레마에 대해 민족학박물관의 전시가 지속하고 있는 대응방식은 소수 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 시대 한 사회의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상호연관된 체계로서 구성된다. 첫째는 흔히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혹은 ‘문화적 사고’(cultural thought)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정신 활동의 산물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및 사물로서 ‘문화적 사물’(cultural artifact)인데, 흔히 물질문화 또는 문화재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이다. 셋째는 ‘문화적 행위’(cultural behavior)인데, 한 시대, 한 사회의 규범, 삶의 목적과 구도 및 가치들이 반영된 것이다. 문화적 행위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고 학습된 것으로 서로 의사소통되고 준수되는 차원의 행위를 말한다. 이 세 영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를 반영하는 총체성의 부분을 구성한다.

박물관에서 한 사회의 문화가 그 총체성의 의미와 함께 소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영역의 차원들이 의사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이 특정 문화를 재현하는 전시공간이 되는 것은 문화적 사물을 전시함으로써, 문화적 지식과 행위를 표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VME에서 문화적 전통이 전시되고 소개되고 소통되는 양상은 많은 경우 이러한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 2003년 말 개최된 한복전시 행사의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가 일곱 점의 박제화된 한복과 관련 소품 및 사진 자료를 통해 단순히 볼거리로서 배치되어 있었다. 한복이 전시되었지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한복을 착용하는지, 한복이 어떠한 위상에서 한국문화의 어떠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지, 베트남에서 한복 전시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상호소통과 교류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과 대답은 찾을 수 없었다. 한복은 전시되었지만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한국문화는 없었고, 다만 당시의 양국관계와 유행을 반

영하는 일회적인 행사라고 판단되었다.

많은 박물관에서 문화는 물화(物化)된 개념에 국한하여 해석되고 있는데 VME에서 전시되어 재현되는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흔히 복원하고 향유하고 전승해야 할 것으로 중시해 온 것은 대부분 ‘문화재’이고 ‘작품’으로서 물화된 민속품이거나 예술품이었다. 사람들은 이 ‘재’만 갖다 놓으면 그 현저성 때문에 저절로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VME의 전시에는 이 물화된 사건의 반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유물의 형태, 재질, 상대연대에 대한 편년(編年), 그 물건에 결부된 역사적 기원과 고정적으로 부착된 듯한 공간 등 유물 자체의 속성 외에는 정보가 드물다. 요는 유물이 생성된 지역조건과 사람들의 관계 및 삶의 방식이 통합적으로 전시되지 않고, 유물 혹은 그것을 둘러싼 해당 풍습만 파편적으로 전시되어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 삶을 느끼기’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異)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문화유산이나 ‘재’의 물리적 현저성에 만족하던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존재와 관계에 대한 성찰로 바뀌어 간다. 사람들의 문화향유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문화유산에 감동하고 그 지식이 채워짐에 만족하지만, 점차 정체성의 관념과 결부되어 문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문화가 존재를 설명하는 틀로 기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타자(他者)의 인식이 짝튼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문화를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으며, 나와 너의 상호주관적 교류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VME에서 재현된 자신의 문화를 관찰한 어느 소수민족이 이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할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아직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 정체성

1. 서론

각국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은 매우 보편적 현상이었다. 국기, 국가 및 국가 문장(紋章)은 독립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 세 가지 상징이다(홉스봄 2004, p. 36). 국가 박물관 역시 국가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박물관이 그 규모나 형태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의도하에서 가치의 조정이 동반되는 이상 그 안의 정치성은 불가피하게 내포될 수밖에 없다(가네코 아쓰시 2009, p. 13). 특히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에 따른 변화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Vickers 2007).

베트남의 경우에도 역사박물관, 혁명박물관, 군사박물관, 여성박물관, 미술

박물관, 소수민족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을 설립해 놓고 해당 분야의 국가적 담론을 유포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호찌민박물관은 베트남의 국부(國父)인 호찌민을 숭상하고 그의 사회주의 혁명과 독립에 기여한 과정을 베트남의 근현대사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호찌민은 민족독립 운동을 이끈 국부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다. 호찌민에 대한 숭배는 국가정책 이전에 국민들의 자발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지만(Tai 1995, p. 273), 동시에 베트남 학교 교과서에서 그는 독립과 사회주의를 구현한 “현대 신전(神殿)의 핵심 인물이며 정치적, 문화적으로 정권의 응집에 필수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Salomon & Vu Doan Ket 2007, pp. 357-358). 호찌민을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국가와 민족에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통하여 현재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필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호찌민의 혁명적 유산으로 자신들을 감싸 도덕적 권위로 삼고자 한다(Tai 1995, p. 278).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호찌민의 도구적 성격은 호찌민 묘와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개편과정을 통하여 밝혀 볼 수 있다. 그 도구적 성격은 호찌민이 사망 시 화장을 요구했던 것을 무시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그를 방부처리하여 보존하였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하노이와 호찌민시 소재 호찌민박물관을 중심으로 설립과 이후 개편과정을 통하여 죽은 호찌민이 현대 베트남 사회에서 살아 있는 호찌민으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호찌민이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국가통합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트남의 박물관 체계 속에서 호찌민박물관의 위상을 파악하고,

호찌민박물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수집 및 분석, 박물관 인사들과의 면담, 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조직, 구조 및 전시형태 등을 파악하여, 베트남에서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하노이 호찌민박물관과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시 지부(이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으로 칭함)를 탐방하고, 관련 인사와의 면담, 전시형태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 정치사회적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1) 박물관 개황

베트남의 각 도시에는 역사박물관, 혁명박물관, 호찌민박물관, 군사박물관, 여성박물관, 미술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2010년 현재 국가급 박물관 7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127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Trung Chau 2010, p. 29). 이 가운데 국가급 박물관은 다음 [표 7-1]과 같으며,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Bo Van hoa The thao va Du lich)(이전에는 문화정보부, Bo Van hoa Thong tin)의 관리책임 하에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역사박물관으로 1932년 프랑스 식민지배 하 1932년 설립되었다가 1958년 재개장하였다.

국가급 박물관은 베트남민족문화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두 하노이에 소재한다. 베트남민족문화박물관은 타이응웬(Thai Nguyen) 시에 소재하며, 당초 1961년에 비엠티박물관(Viet Bac Museum)으로 설립되었다가, 1976년 국가급 박물관으로 공인되어 문화정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국가급 박물관 중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상대적으로 늦게 1990년 개관하였다. 베트남

표 7-1. 베트남의 국가급 박물관

구분	박물관명	소재지	설립년도	비고
1	베트남역사박물관 Bao tang Lich su Viet Nam Vietnam Historical Museum	하노이	1958 (1932)	
2	베트남혁명박물관 Bao tang Cach mang Viet Nam Vietnam Revolutionary Museum	하노이	1959	
3	호찌민박물관 Bao tang Ho Chi Minh Ho Chi Minh Museum	하노이	1990	
4	베트남인민군대박물관 Bao tang Quan doi Nhan dan Viet Nam Museum of the Vietnam People's Army	하노이	1959	
5	베트남민족학박물관 Bao tang Dan toc hoc Viet Nam Vietnam Ethnological Museum	하노이	1997	
6	베트남미술박물관 Bao tang My thuat Viet Nam Vietnam Fine-Arts Museum	하노이	1966	
7	베트남민족문화박물관 Bao tang Van hoa Cac Dan toc Viet Nam Vietnam Ethnic Cultural Museum	타이응웬(Thai Nguyen) 성, 타이응웬 시	1976	

자료: Cac Bao tang Quoc gia Viet Nam: National Museums of Vietnam.

남의 각 지방에는 성(省, province)별로 성박물관 및 국가급 박물관의 지부(분관), 기타 특정 목적의 박물관 등이 있다.

2) 호찌민박물관 체계

베트남에서 공인된 호찌민 관련 박물관 및 유적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이외에 전국에 12개소이다. 호찌민박물관의 지부(분관, chi nhanh)는 후에(Hue), 다낭(Da Nang), 플레이꾸(Pleiku), 판티엣(Phan Thiet), 호찌민시,

컨터(Can Tho) 등 6개소에 있고, 유적지는 4개소, 상념지구(想念地區)는 2개소에 있다(표 7-2 참고).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하노이 이외에 소재하는 전국 12 곳의 호찌민 관련 박물관 및 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7-2. 호찌민박물관 및 유적 체계

구분	박물관명	소재지	설립년도	비고
1	호찌민박물관	하노이	1990	북부 소재
2	트어티엔-후에(Thua Thien-Hue) 호찌민박물관	후에(Hue)	2000	중부 소재, 마지막 양도
3	호찌민박물관 제5군구(軍區) 지부	다낭(Da Nang)		중부 소재
4	호찌민박물관 자라이-꼰똌م(Gia Lai - Kon Tum) 지부	자라이 성, 플레이꾸(Pleiku)	1984	남서부 소재
5	호찌민박물관 빈투언(Binh Thuan) 지부	빈투언 성, 판티엣(thi xa Phan Thiet)	1986	중남부 소재
6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시 분관	호찌민시	1979	남부 소재
7	호찌민박물관 꾸우롱(Cuu Long)텔타 지부	컨터(Can Tho)		남부 메콩델타 소재
8	팍보(Pac Bo) 유적	카오방 성, 카오방 (thi xa Cao Bang)		1941년 호찌민이 중국 국경을 넘어와 혁명을 지도하던 베트남 서북부 지역
9	48 항응앙(Hang Ngang) 유적	하노이시, 항응앙(Hang Ngang)		1945년 독립선언 작성처
10	호찌민 주석의 전국항전 호소 담화 작성처 유적	하띠아(Ha Tay) 성(하노이로 편입), 하동(thi xa Ha Dong), 빈푹(phuong Van Phuc)		1946년 12월 18~19일 공산당 중앙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국항전 호소 담화 통과
11	김리엔(Kim Lien) 유적	응에안(Nghe An) 성, 남단(Nam Dan) 현, 김리엔(xa Kim Lien)		호찌민 탄생지
12	호찌민 주석 상념(想念)지구	엔바이(Yen Bai) 성, 응이아로(thi xa Nghia Lo)		하노이 소재 호찌민 집무실 모방 설비
13	포방(Pho bang: 副榜) 응웬신삭(Nguyen Sinh Sac) 상념지구	동탑(Dong Thap) 성, 까오라인(xa Cao Lanh)		호찌민 부친 사망지 [포방은 會試에서 舉人과 進士 사이 등급]

자료: 35 nam Bao tang Ho Chi Minh, 78-79; www.baotanghochiminh.vn.

이 가운데 하노이 소재 호찌민박물관만 국가급 박물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하에 있고, 나머지 12곳은 각 성(省) 또는 시(市) 인민위원회 산하 문화체육관광처의 관리 하에 있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여타 박물관 및 유적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1)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5월 19일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재설비를 거쳐 베트남 현대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1970년 11월 25일 베트남노동당(베트남공산당, 이하 공산당으로 약칭)⁵¹⁾ 비서국 의결 제206호(206-NQ/TW) “호찌민박물관(Vien bao tang Ho Chi Minh) 건설책임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결”로부터 비롯된다(35 nam~, p. 16). 이 의결에서 건설책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후이 지압(Ha Huy Giap), 부위원장으로 황퐁(Hoang Tung), 위원으로 부끼(Vu Ky)를 선임하였다. 공산당 정치국이 1977년 9월 12일 제4호 의결(04-NQ/TW) “호찌민박물관 설립에 관한 의결”로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부 직속으로 호찌민박물관을 설립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정부가 1979년 10월 15일 제375호 의정 “호찌민박물관의 직능,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정부의장”을 공포하여 건설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35 nam~, pp. 24~25).

건설책임위원회는 호찌민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호찌민의 일생과 혁명사업에 관한 연구발표회, 토론회를 1981~87년간 13회나 개최하

51) 1976년 12월 제4차 노동당대회에서 베트남노동당을 베트남공산당으로 개명하였다.

였다. 동시에 소련 레닌중앙박물관 참관(1971, 1978년), 레닌중앙박물관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1973년), 드미트로프박물관 참관(불가리아, 1976년) 등을 주관하였고, 드미트로프 전람회(1983년), 레닌의 평화외교정책 전람회(1985년) 등을 개최하였다(35 nam~, 27, 35, 38). 박물관의 착공은 1985년 8월에 있었으나, 1985~87년간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자 박물관 건설이 지체될 상황이었다. 지도자들은 1990년 5월 19일 호찌민 탄생 100주년 이전에 박물관 건설을 완료할 것을 독려했고, 소련이 물자, 장비, 전문기대를 지원하여 협력하였다(35 nam~, 29~33).

2).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시 지부는 1979년 9월 “호찌민 주석 기념지구”(Khu Luu niem Chu tich Ho Chi Minh)로 출발하여, 1995년 10월 호찌민박물관

▮ 그림 7-1.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외관 ▮



관 호찌민시 지부(분관)로 재편되었다. 이 건물은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인 1863년에 운송회사 건물로 지어졌는데, 베트남전쟁 시기에는 미군원조처 본부로 쓰였고, 1979년에 호찌민 유적지구로 지정되었다. 건물 상단에 두 마리의 용이 달을 물고 있는 형상이 있어 ‘용의 집’(Nha rong)이라 칭한다. 이 건물은 호찌민의 본명이었던 응웬땃타인(Nguyen Tat Thanh) 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호찌민이 1911년 배를 타고 ‘구국의 길’을 떠났던 부두가 보이는 바로 건너편에 있다. 박물관 정면에 ‘구국의 길’을 떠나는 청년 호찌민의 동상을 배치해, 그가 출발했던 부두를 바라보게 하였다(그림 7-1 참고).

다. 운영조직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의 운영조직은, 감독 1명, 부감독 2명(3명인 경우도 있음)과 함께, 수집실(Phong Suu tam), 정리보관실(Phong Kiem ke - Bao quan), 진열실(전시실, Phong Trung bay), 선진교육실(Phong Tuyen truyen Giao duc), 자료실(Phong Tu lieu - Thu vien), 기술실(Phong Ky thuat), 행정-조직-대외실(Phong Hanh chinh - To chuc - Doi ngoai), 관리실(Phong Quan tri), 재무실(Phong Tai vu), 보위대(Doi Bao ve)로 구성되어 있다(35 nam~, 56~57; www.baotanghochiminh.vn).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운영조직도 작은 규모이지만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다.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 묘, 생전 호찌민의 집무실과 함께 호찌민 경배의 세 축을 형성한다(Tai 1995, p. 275). 그 사이에 하노이의 상징인

‘쭈어 못 꼳’(Chua mot cot: 一柱寺)이 있어 역사적 전통을 품에 안고 있는 지형이다. 호찌민박물관 건물은 베트남 국화인 연꽃의 형태를 띤 20m 높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박물관은 10만 점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료는 호찌민의 활동과 관련한 필적자료, 예술작품, 사진, 음성테이프, 다큐멘터리 필름 등이다. 또한 국내외로부터 호찌민에게 증정된 선물과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의 회고록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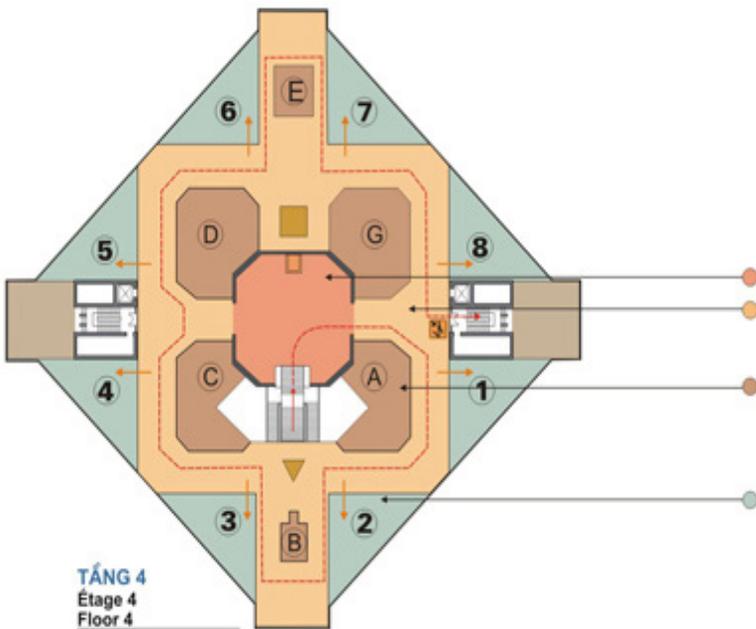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검색대를 통과하여 메인홀이 있다. 메인홀은 3.5m 높이 3톤 무게의 호찌민 동상이 태양과 보리수(banyan) 나무를 뒤로 하고 우뚝 서 있다(그림 7-2 참고). 이 호찌민 동상은 소련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Tai 1995, p. 282). 메인 홀의 양면에 있는 황금빛 예술작품, 즉 100개의 알과 용은 베트남의 탄생과 건설, 말과 검을 문 거북은 조국수호를 나타낸다.

■ 그림 7-2.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메인홀 ■



전람회장은 2층에 있으며, 주 전시실은 4층에 있고 2,000여 개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주 전시실에서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는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주 전시실은 (1) 가장자리에 호찌민 주석과 베트남 인민에게 영향을 준 세계적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배치하고, 그 안에 (2) 베트남과 베트남 인민의 투쟁과 승리에 관한 전시물과 함께 (3)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호찌민과 베트남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활동은 8개 시기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3 참고).

■ 그림 7-3.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전시실 구조 ■



1) 호찌민의 유년, 청소년 시절(1890~1911)

이 부분은 호찌민의 고향,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호찌민의 품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호찌민의 맑스-레닌주의 수용과 혁명 활동(1911~20)

이 부분은 호찌민이 반바(Van Ba)라는 가명으로 1911년 6월 베트남을 떠나 ‘구국의 길’을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919년 베르사이유 회의에 제출한 “안남 인민의 요구”(Revendications du Peuple Annamite), 1920년 프랑사회당 뚜르(Tours) 회의 참석 시 사진, 프랑공산당 당원증 등을 통하여 호찌민의 혁명 활동과 사회주의 수용과정을 보여준다.

3) 식민지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테제 채용(1920~24)

사진들과 함께 응웬아이꾸옥(Nguyen Ai Quoc) 명의의 <프랑스 식민지 심판>(Le Procès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르 파리아>(Le Paria: 勞動癡) 등을 통하여 호찌민의 프랑스에서의 혁명 활동상을 보여준다. 1923년 6월 이후 호찌민의 소련에서의 활동상에 관한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다.

4) 베트남공산당 창당까지의 시기(1924~30)

1924년 11월 호찌민이 광저우에 도착하여, 베트남 청년혁명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1930년 베트남공산당을 창립하기까지의 활동상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그가 1925년 6월 ‘청년(Thanh Nien) 조직을 창설하고 발간한 기관지 『청년(Thanh Nien)』이나, 1927년 발간한 『혁명의 길(Duong Kach menh)』 같은 저술은 대표작이다.

5) 호찌민, 8월 혁명의 조직자와 영도자(1930~45)

이 부분에서는 농민봉기 시 사용했을 법한 죽창 모형을 전시하여, 1930년을 전후한 농민운동의 고조기를 설명한다. 또한 호찌민이 1931년 홍콩에서 체포되고 풀려난 후, 소련으로 돌아가 교육을 받고 1938년 10월 중국으로 다시 파견되어와 1941년 1월 베트남으로 귀국하기까지의 관련 자료들을 보여준다. 또한, 1941년 독립운동 당시 거주했던 팍보(Pac Bo)의 동굴 형태 모형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1942년 8월 중국 여행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일기』가 전시되어 있다. 1944년 12월 베트남해방선전대(인민군대의 전신)의 창설, 1945년 8월 12일 전국 총 봉기 결의, 8월 16일 베트남민족해방위원회 설립,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선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6) 프랑스에 항전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베트남 인민들의 지도자 호찌민(1946~54)

이 부분은 호찌민의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부분으로, 국내적으로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의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속해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1954년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에서의 승리, 하노이 해방일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7) 북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영도하고 미국에 저항하여 남부 해방, 조국통일 달성(1954~69)

북부에서 전후 복구과정과 사회주의 전환과정을 영도하는 호찌민을 반추 상징적 작품으로 표현하거나, 남부 투쟁과 함께 하는 호찌민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동시에 호찌민의 집무 모습을 담은 사진과 1969년 9월

2일 사망하기까지 호찌민의 활동과 그의 유서를 전시하고, 그의 사망에 따른 국내외적 애도의 물결을 보여준다. 더불어 분향할 수 있는 추모대를 설치하였다.

8) 호찌민의 길을 따라

1975년 4월 전쟁의 승리와 통일을 달성한 과업을 표현한 화려한 조형물과 호찌민의 혁명 사업을 이어받겠다는 베트남인들의 결의를 적은 피라미드를 설치해 놓았다.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情感, tinh cam)⁵²⁾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 집중하고 후자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단지 각 종족(소수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베트남 민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만,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남북 간의 화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또 다른 특이점은 1층 입구 별도의 제실(祭室)에 호찌민의 제단을 두어 분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박물관 1층은 제단과 함께, 호찌민에 대한 남부 사람들의 정감을 표시하는 전시실과 남부 각지의 호찌민 기념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2층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5개 시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하노이 호찌

52) 베트남어로 정감(tinh cam)은 격의 없는 매우 가까운 사이에 가지는 감정을 말한다.

민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의 8개 시기를 5개 시기로 압축하여 전시하고 있다.

- 1) 호찌민의 유년, 청소년 시절과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으로 베트남 혁명의 길을 확장하는 과정(1890~1920). 호찌민 생가의 축소 모형도 유리관 안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 2) 호찌민이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을 위한 레닌의 노선을 받아들여 베트남공산당을 창립하는 과정(1920~30)
- 3) 호찌민이 8월 혁명을 지도하여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설립하고 프랑스에 항전하는 과정(1930~54)
- 4) 호찌민이 북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남부를 통일하는 과정(1954~69)
- 5) 베트남 인민들이 호찌민의 유언을 수행하여 남부해방, 민족통합, 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과정(1969~현재)

이처럼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에서 보여주는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대한 전시는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의 전시체계와 자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시기구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남부에 대한 호찌민의 애정과 남부인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표시하여 남북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호찌민이 남부의 혁명지도자 톤득탕(Ton Duc Thang)과 손을 맞잡은 장면과 그 뒤에 새겨진 “사랑스럽고 귀한 남부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다”(Mien nam Yeu qui Luon luon o trong Trai tim Toi)는 호찌민의 문구는 남북단합의 요구를 대변한다(그림 7-4 참고).⁵³⁾

53) 톤득탕(Ton Duc Thang, 1888~1980)은 1888년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의 안장(An Giang) 성 롱수엔

그림 7-4.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내부: 호찌민과 톤득탕 간 남북 단합의 악수



(Long Xuyen)에서 태어나, 1910년 호찌민을 만났다. 그는 1920년대 사이공-쩌런(Saigon-Cho Lon)에서 프랑스 식민지배 하 첫 번째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체포되어 1945년까지 폴로 콘도르 섬의 감옥에 갇혔다.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 탄생 이후, 그는 1955년에 국회 상무위원회 위원장(국회의장), 1960년에 국가부주석을 역임하였고, 1969년 호찌민이 사망하자 국가주석이 되었으며,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주석이 되었다(Duiker 1998, 238).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1) 상설전시와 대중교육

대중교육은 상설전시를 통한 관람, 출장특강 등으로 이루어진다.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 전시기능이 대표적일 것이다.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1990년 개관한 이후 관람자는 1990년대에 연간 10만명 전후였다가, 1999년부터 연간 15만명 전후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7-3 참고). 관람자는 일반인, 각급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 표 7-3.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관람자 수 ■

(단위: 천 명)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참관인	1,000	507	636	637	1,022	992	766	751	992	1,464	1,668	1,465	1,471	1,291	1,368	1,154

자료: 35 nam Bao tang Ho Chi Minh, 63.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는 호찌민 묘, 생전 집무실과 함께 하노이 시내 관광의 필수 코스로 들어 있어, 관람자수의 증가는 국내 관람자뿐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다른 예로, 호찌민 시에 소재한 베트남전쟁증거박물관은 2002년부터 350만 명의 관람자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외국인이었다(Trung Chau 2010, p. 28).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경우,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참관은 항상 있으며, 특히 방학 때 단체로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Chi와의 면담). 2010년 7월 방문시에도 “푸른 여름”(Mua he Xanh)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박물관을 참관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동통신회사 모비폰(mobifone)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는 자원운동(volunteer movement) 프로그램이다(그림

7-5 참고). 또한 방문 당시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 탄생 120주년 기념 어린이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그림 7-6 참고).

■ 그림 7-5.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참관 ■



■ 그림 7-6.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전 ■



2) 웹사이트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웹사이트(<http://www.baotanghochiminh.vn>)로 호찌민박물관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3) 국내외 교류

예컨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한국과 협력한 사례로 2005년 말에 호찌민 탄신 115주년 및 한-베트남 수교 13주년 기념 “호찌민 옥중일기 서예잔”, 2010년 6~7월에 제2회 서예전 개최를 들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 사례는, <류저우에서의 베트남 호찌민>(越南胡志明在柳州), <호찌민과 광시>(胡志明與廣西) 같은 서적을 발간한 것이다.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호찌민박물관 설립의 근거규정이 되었던 1977년 9월 공산당 정치국 제4호 의결은 호찌민박물관의 기능을 “호찌민의 혁명적 삶과 혁명사업에 관련된 유적, 자료, 현물 등을 통하여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였고, 1979년 10월 제375호 정부의정(政府議定)은 “호찌민박물관은 위대한 호찌민 주석의 혁명투쟁과정에서 그의 생활과 활동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 현물 및 유적의 연구센터이며, 그 역사적 자료, 현물 및 유적을 통하여 그의 사업, 사상, 교육, 및 작품(作風 행동방식)을 대중에게 선전, 교육하는 센터이다”라고 규정하였다(35 nam~, pp. 24~25). 또한 호찌민박물관이 박물관 지부(chi nhanh, 분관)와 호찌민 주석의 유적지 체계를 기획하고, 이들의 건설과 업무를 지도,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호찌민박물관은 자료 수집, 보관, 전시 및 교육을 통하여,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과정에서 호찌민 개인의 업적을 숭상하고 베트남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베트남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호찌민사상에 대한 강조가 이전에 비해 부쩍 늘었다. 호찌민사상이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헌법에 삽입된 것은 1992년에 이르러서다. 헌법에서 호찌민사상의 공식화과정은 1980년 지도자로서 호찌민 개인의 강조와 1992년 호찌민사상의 도입으로 전개되었다. 1992년 헌법은 전문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호찌민사상의 빛 아래에서 사회주의 과도기의 국가건설 강령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호찌민사상을 공식화하였다. 헌법 제4조는 “베트남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호찌민사상에 따른,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전위대이고, 노동자계급, 노동인민 및 각 민족의 권리를 충성스럽게 대표하는, 국가와 사회의 영도역량이다”고 언급하였다. 지도자로서 혁명을 이끌고 독립과 통일을 달성한 그의 업적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대다수 베트남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였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등장한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념에서 호찌민사상의 강조는 많은 문헌 속에 나타나지만, 시각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장소는 역시 박물관이다. 호찌민박물관은 동시에 바로 옆에 세워진 호찌민 묘와 함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호찌민 묘는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묘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져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나타내는 한편, 호찌민 박물관은 소비에트식과 베트남식이 결합된 건축양식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내부구조를 보여준다(Tai 1995, pp. 282~283). 내부는 호찌민의 사회주의 혁명사업과 민족독립의 여정을 베트남의 현대사 속에

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 묘, 생전 호찌민의 집무실과 함께 호찌민 경배의 세 축을 형성하며, 그 사이에 하노이의 상징인 ‘쭈어 못 꽃’(一柱寺)을 품고 있어 베트남의 역사적 전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시에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호찌민은 사회주의 지도자인 동시에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며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서 현재에도 지도자들의 정통성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5. 결론

베트남은 오랫동안 주변 강국 및 프랑스, 미국에 저항하여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독립과 통일을 달성해낸 국가답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베트남에서 특히 박물관을 통하여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려는 의도는 두드러진다. 각 박물관은 베트남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외국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역사적 근거들을 전시해놓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정체성을 갖도록 동원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간의 역사에서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지켜온 베트남 민족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고,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근현대사에서의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의 단합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 개인이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며 국가와 민족의 대표자로서 베트남 민족과 그 운명을 함께 해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찌민은 호찌민박물관을 통하여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로서 민족

과 국가의 대표자로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권의 지도자들이 호찌민사상을 강조해온 것과 결부되어 호찌민이 정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고,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한다.

제8장

결론

역사기는 사료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사관에 맞게 역사를 서술한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전시될 유물이나 시각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설명된다. 선택된 유물의 전시를 통해 시각 문화가 형성되고, 박물관의 성격이 규정된다. 국가 단위의 박물관에서는 대개 각 나라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이 전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시각화되고 강화된다. 박물관의 관람객들은 각종 유물과 멀티미디어, 디오라마들을 통해 박물관이 표상하는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된다. 박물관에서는 각종 특별전과 사회 교육을 통해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학습시키고,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국가와 국민 구성원의 일체감을 고양시킨다. 각국의 박물관과 전시관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킨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

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각 나라에서 박물관과 전시관, 기념물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규정 양상은 국립박물관, 국가기념물 등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한 후 국가통합 및 정체성 확립을 고심했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러므로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 혹은 민족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은 새로 세워진 동남아 각국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현재진행형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방안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혹은 신생국가로 재탄생했을 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그러므로 국가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문화적 공간인 박물관과 국가 기념물을 통해 국가정체성 규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동남아 각국의 현재를 국가 단위로 이해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서 살펴본 동남아 국가들은 국기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 싱가포르처럼 다민족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통합하거나 태국처럼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상징물, 기념물, 박물관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처럼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독립국가 싱가포르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

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의 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유대감을 공유해온 상태가 아니었다. 공동체 사회를 형성한 시간이 짧았던 신생 싱가포르의 국민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머라이언을 비롯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기념물과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로써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는 일은 새로운 국가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머라이언과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아시아 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의 여러 전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시아 문명박물관을 현 수상인 리셴룽이 주도하여 개관했다는 점이나 그의 아버지이자 전 수상인 리관유가 머라이언 제막에 참여하여 축하연설을 했다는 점, 박물관에 대한 고척동의 관심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대적인 관광 진흥 사업 중 하나인 센토사에 대형 전망대인 머라이언을 건립하고,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전시관을 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다민족 통합국가로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기 위한 계획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싱가포르의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유물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싱가포르 국민은 ‘국민’의 일원으로 싱가포르라는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캄보디아의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되고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

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 정체성 = 크메르 정체성 = 앙코르 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 등을 통해 대내적,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 연구에서는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한 이 박물관이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사실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했고, 그로써 동남아 정부들은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이는 식민시기를 17세기까지 소급한 박물관 전시에서 또 한 번 그 실재가 은폐된다. 식민시대는 유럽이 들여온 과학 발명품 등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 보다는 타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박물관에서는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의 도래에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 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박물관을 이어받아 국민국가의 도구로 활용해야 할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박물관 전시형태를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과 신생독립국가의 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태국 방콕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태국의 국가 정체성의 세 기둥인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펴보면 태국 왕실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의 국가정체성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나, 태국 국민들에게 영속 불변한 태국의 국가정체성으로 교육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왕실 유물 컬렉션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위치가 왕실의 터이고, 왕실에서 사용한 유물들이 주 전시대상이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곧 박물관 앞쪽에 위치해 있는 타이역사전시관이다. 또 타이족의 중심이 된 집단이 바로 왕실임을 이 전시관은 드러낸다. 왕실은 난세를 극복한 영웅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근대화를 이룬 개혁의 기수로, 근대국가의 체제를 닦은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되어 있다. 오늘날 태국을 있게 한 집단이 곧 왕실이라는 것을 그 전시관은 내세우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소수 집단의 역사적인 유산과 현재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곳이 방콕국립박물관이다.

베트남의 민족학박물관 연구는 베트남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집단(ethnic group)들의 ‘전통적인’ 물질문화가 베트남의 국립박물관에서 소개되는 양상을 통해 베트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고찰할 것이다.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사회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다문화적 사회 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어서 국가정체성 및 국민 통합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 고찰하는 데

적절하다.

베트남은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개혁 개방 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베트남식 문화의 뿌리지키기가 결합된 결과이다. 한편으로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의 긴장이 박물관에서도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

베트남에서 호찌민을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민족의 독립에 헌신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통하여 현재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호찌민의 도구적 성격은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개편과정을 통하여 밝혀 볼 수 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 소재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개편과정, 죽은 호찌민이 살아 있는 호찌민으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탐색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호찌민이 베트남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이자, 국가통합의 기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특징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tinh cam)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시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근현대사에서의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의 단합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한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정책적으로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지만 실제 자국의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다. 특히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을 현대화하고 국민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과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문화적, 교육적 의미에 대한 관심도 나라마다 다르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시책들은 나라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세척에서, 혹은 각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라는 목표에 도달하려 한 과정을 추론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

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영문자료

제1장 서론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rnoldi, Mary Jo. 1992. "A Distorted Mirror: The Exhibition of the Herbert Ward Collection of Africana." In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edited by Ivan Karp, Christine Mullen Kreamer and Steven D. Lavine, pp. 428-57.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Bennett, Tony.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Bodemer, Margaret Barnhill. 2010. *Museums, Ethnology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Contemporary Vietnam*. Dissertation of PhD in Anthropology, University of Hawai'i.
- Clifford, James. 1997. "Museums as Contact Zones." In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p. 188~21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 Eric. 1994. "Museums and the Politics of Social Control in Iraq." In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edited by John R. Gills, pp. 90-10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noways, Hugh H. and Mary Anne Andrei. 2008. *Museum Origins: Readings in Early Museum History and Philosophy*. California: Left Coast Press.
- Gomez-Pena, Guillermo. 1992. "The Other Vanguard." In *Museums and*

-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edited by Ivan Karp, Christine Mullen Kreamer and Steven D. Lavine, pp. 65-75. Washington, D.C. Smithsonian Press.
- Hinsley, Curtis M. 1985. "From Sheell-Heasps to Stelae: Early Anthropology at the Peabody Museum." In *Objects and Others: Essays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edited by George W. Stocking, pp. 49-74.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mpey, Oliver, and Arthur MacGregor eds. 2001. *The Origins of Museums: The Cabinets of Curiosities in Sixteenth-and Seventeenth-Century Europe*. 2nd ed. London: House of Stratus.
- Jacknis, Ira. 2002. *The Storage Box of Tradition: Kwakiutl Art, Anthropologists, and Museums*, pp. 1881-1981.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Kaeppler, Adrienne. 1994. "Ali'i and Maka'ainana: The Representation of Hawaiians in Museums at Home and Abroad." In *Museums and the Making of Ourselves: The Role of Objects in National Identity*, edited by Flora Kaplan, pp. 19-44.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 Kaplan, Flora S. ed. 1994. *Museums and the Making of Ourselves: The Role of Objects in National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Leicester University Press.
- Karp, Ivan. 1992. "Introduction: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In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edited by Ivan Karp, Christine Mullen Kreamer and Steven D. Lavine, pp. 1-17. Washington, D.C. Smithsonian Press.
- Karp, Ivan, Christine Mullen Kreamer, and Steven D. Lavine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Washington, D.C. Smithsonian Press.
- Karp, Ivan and Steven D. Lavine. 1991.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Kreps, Christina F. 2003. *Liberating Culture: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Museums, Curation, and Heritage Preservation, Museum Meaning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vine, Steven D. 1992. "Audience, Ownership, and Authority: Designing Relation between Museums and Communities." In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 edited by Ivan Karp, Christine Mullen Kreamer and Steven D. Lavine, pp. 137-56. Washington, D.C. Smithsonian Press.
- Pala, Chrispopher. 2008. "Paradise Almost Lost: Hawaii's Bishop Museum Grapples with NAGPRA." *Museum(AAM)*, pp. 44-53.
- Scott, James C. 199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ocking, George W., 1985. "Essays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In *Objects and Others: Essays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pp. 3-14.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Thompson, Eric C. 2006. "Regional Frames of Reference in National Museums." A Paper presented to the 7th ASEAN Inter-University Seminars, Hanoi, 19-21 July 2006.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谷澤慎一郎. 원철희 옮김. 1986. 『싱가포르의 성공』. 정음사.

이상수. 2006. 『이광요의 국가경영리더십』. 한국학술정보. PDF.

팬, 조이스. 2006. 『싱가포르: 아시아적 모던아트와 예』. 『아시아 20세기 미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예』. 국립현대미술관 · 덕수궁미술관 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Bishop, Ryan, John Phillips, and Wei-Wei Yeo ed.. 2004. *Beyond Description: Singapore Space Historicity*. London and New York: Taylor & Francis.

- Drysdale, John. 1984. *Singapore, Struggle for Success*.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 George, T. J. S. 1973. *Lee Kuan Yew's Singapore*. London: Andre Deutsch.
- Hooper-Greenhill, Eilean. 1992. "What is a Museum?"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2. "The Disciplinary Museum." *Museums and the Shaping of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n Fook Kwang, Warren Fernandez and Sumiko Tan. 1998. *Lee Kuan Yew, The Man and His Ideas*. Singapore: Times Editions.
- Haque, M. Shamsul. 2004. "Governance and Bureaucracy in Singapore: Contemporary Reform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5, No. 2, pp. 227-240.
- Helen Khoo. 2000. "A New Home for the Merlion." *Skyline*, 3rd Qtr, pp. 6-9.
- Information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ingapore. 1984. *Singapore, An Illustrated History, 1941-1984*. Singapore: Information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 Josey, Alex. 1979. *Singapor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_____. 1980. *Lee Kuan Yew: The Struggle for Singapore*. 3rd ed. London: Angus & Robertson.
- Kong, Lily. 1993. "Negotiating Conceptions of 'Sacred Space': A Case Study of Religious Buildings in Singapor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Vol. 18, No. 3, pp. 342-358.
- Lee, Kuan Yew. 1998. *The Singapore Story: Memoirs of Lee Kuan Yew*. Singapore: Prentice Hall.
- Régnier, Philippe. 1991. *Singapore, City-State in South-East Asia*, trans. Christopher Hurs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avage, Victor R., Shirlena Huang and T. C. Chang. 2004. "The Singapore

River Thematic Zone: Sustainable Tourism in an Urban Context."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 3, pp. 212-225.

Tarulevicz, Nicole. 2004. "Between Forgetting and Remembering: Singaporean History and the Singapore History Museum." Fiona Kerlogue eds.. *Performing Objects-Museums, Material Culture and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 London: The Horniman museum and Gardens.

Times Books International. 1980. *The Best of Times: Singapore in Newspictures, 1940-1980*.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Turnbull, C. M. 1989.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88*. Singapore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2. "Regionalism and Nationalism." edited by Nicholas Tarling.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 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Volume F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웹사이트

<http://www.sentosa.com.sg/en/attractions/imbiah-lookout/images-of-singapore>

<http://app-stg.stb.gov.sg/asp/form/form01.asp>

http://infopedia.nl.sg/articles/SIP_938_2004-12-27.html

<http://www.biotechnics.org/1nomerlion.html/>

<http://www.yoursingapore.com/content/traveller/en/browse/see-and-do/family-fun/attraction/merlion-park.html>

<http://www.nationalmuseum.sg/>

http://www.acm.org.sg/the_museum/about_acm.asp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Ahmad, Abu Talib and Ee, Tan Kiok ed. 2003. *New Terrains in Southeast Asian History*.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Singapore: Singapore

- University Press.
- Albanese, Marilia. 2006. *The Treasures of Angkor*. Singapore: White Star Publishers.
- Bennett, Tony.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lanchard, Pascal et Bancel, Nicolas. 2005. *Culture post-coloniale 1961-2006. Traces et mémoires coloniales en France*. Paris: Editions Autrement.
- _____. 2008. *Culture coloniale en Franc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nos jours*. Paris: CNRS Editions.
- Cort, Louise Allison and Jett, Paul eds. 2010. *Gods of Angkor. Bronz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Singapore: Smithsonian Institution.
- Dagnes, Bruno. 1989. *Angkor. La forêt de pierre*. Paris: Gallimard.
- Edwards, Penny. 2007. *Cambodge. The Cultivation of a Nation, 1860-194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e.
- Forest, Alain. 2008. "Pour comprendre l'histoire contemporaine du Cambodge." Alain Forest dir. *Cambodge contemporain*. Paris: les Indes savantes; Bangkok: IRASEC.
- Glaize, Maurice. 1944 (2005). *Angkor*. Saïgon.
- Groslier, Georges. 1931. *Les Collections Khmères du Musée Albert Sarraut à Phnom-Penh*. Paris: Les Editions G. Van Oest.
- IRASEC dir. 2009. *L'Asie du Sud-Est 2000*. Bangkok: IRASEC.
- IRASEC dir. 2010. *L'Asie du Sud-Est 2010*. Bangkok: IRASEC.
- Jacques, Claude. 2008. "L'histoire enfouie: Angkor et le Cambodge du VIIIe-XXIe siècle". Hugues Tertrais éd. *Angkor VIIIe-XXIe siècle. Mémoire et identité khmères*. Paris: Editions Autrement.
- Jammes, Jérémy. "Cambodge". 2010. *L'Asie du Sud-Est 2010*. Bangkok: IRASEC.
- Jarrige, Jean-François préf. 2001. *Album.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Paris: Editions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 Jennar, Raoul Marc. 2010. *Trente ans depuis Pol Pot. Le Cambodge de 1979 à 2009*. Paris: L'Harmattan.
- Jessup, Helein Ibbitson. 2006. *Masterpieces of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An Introduction to the Collection*. Hong Kong: Friends of Khmer Culture.
- Mikaelian, Grégory. 2008. "Pour une relecture du jeu politique cambodgien: le cas du Cambodge de la reconstruction (1993-2005)." Alain Forest dir. *Cambodge contemporain*. Paris: les Indes savantes; Bangkok: IRASEC.
- Richer, Philippe. 2009. *Le Cambodge de 1945 à nos jour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Samen, Khun. 2002 (2007). *Le Nouveau Guide du Musée national Phnom Penh*. Phnom Penh: Département des Musées.
- Tertrais, Hugues. 2004. *Atlas des guerres d'Indochine 1940-1990*. Paris: Editions Autrement.
- _____. 2008. "Introduction. Angkor au présent." Hugues Tertrais éd. *Angkor VIIIe-XXIe siècle: Mémoire et identité khmères*. Paris: Editions Autrement.
- Toan, Thach. 2009. *Histoire des Khmers: L'Odyssée du peuple cambodgien*. Paris: L'Harmattan.

● ● 언론보도

- 연합뉴스. 2003. 2. 3. 「캄 주재 태 대사관 난동 피해 540억 원」.
- 포커스 인 아시아. 2009. 11. 10. 「태국-캄보디아, 고대 사원 놓고 전쟁 벌이나?」
- 연합뉴스. 2010. 6. 9. 「태-캄보디아군, 국경서 총격전」.
- 연합뉴스. 2010. 7. 29. 「캄보디아-태국 국경갈등 다시 격화」.
- 연합뉴스. 2010. 8. 10. 「태-캄보디아, 유엔서 국경분쟁 '외교전」.

연합뉴스. 2010. 8. 11. 「태 총리, ‘사원 영유권 분쟁 외부 개입 불필요」」.
연합뉴스. 2010. 8. 13. 「캄보디아, 반 총장에 태와 국경분쟁 중재 의뢰」.
Le Monde. 2010. 6. 27. Le Cambodge, entre pauvreté et capitalisme débridé:
premières impressions.

● ● 웹사이트

캄보디아국립박물관 <http://www.cambodiamuseum.info>
양코르 · 시엠립 보호 · 운영 관청 <http://www.autoriteapsara.org/en/apsara.html>
캄보디아 문화부 <http://www.mcfa.gov.kh>
캄보디아 관광청 <http://www.tourismcambodia.com>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http://www.guimet.fr>
<http://www.devata.org>
http://www.crwflags.com/FOTW/FLAGS/kh_hstry.html

● ● 인터뷰

CHAN Somnoble, 언어학 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부원장, 국립고등교육회의 의원
(차관급), 2010년 6월 25일.
IV Chan, 역사학 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국어연구소 소장, 2010년 6월 25일.
ROS Chantrabot, 문학 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교수, 2010년 6월 26일.
Hugues Tertrais, 역사학 박사, 프랑스 파리1대학교 현대아시아사연구소 소장, 2010년
7월 16일.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Anderson, Benedict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 Antlöv, Hans. 1996. "The Revolusi Presented - Contemporary Indonesian Images of 1945." *Indonesia Circle*, No. 68.
- Bodemer, Margaret Barnhill. 2010. *Museums, Ethnology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Contemporary Vietnam*. Ph.D. Diss. University of Hawai'i.
- Damais, Soedarmadji. 1992. "Pusaka in Times of Change." *Pusaka, Art of Indonesia*, ed. Didier Millet.
- Klaus, Schreiner H. 1997. "History in the Showcase: Representations of National History in Indonesian Museums." *Nationalism and Cultural Revival in Southeast Asia: Perspectives from the Centre and the Region*. ed. Sri Kuhnt-Saptodewo, Voker Grabowsky and Martin Großheim. Wiesbaden: Harrassowitz.
- Kreps, Christina. 2004. "The Idea of 'pusaka' as an indigenous form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erforming Objects: Museums, Material Culture and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 ed. Fiona Kerlogue. London: Horniman Museum.
- Lucas, Frederic A. 2008. "Purposes and Aims of Modern Museums." *Museum Origins: Readings in Early Museum History Philosophy* ed. Hugh H. Genoways and Mary Anne Andrei, California: Left Coast Press.
- McGregor, Katharine E. 2004. "Museums and the Transformation from Colonial to Post-Colonial Institutions in Indonesia: A Case Study of the Indonesian National Museum, formerly the Batavia Museum." *Performing Objects: Museums, Material Culture and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 ed. Fiona Kerlogue. London: Horniman Museum.
- Rufaedah, Dedah, Sri Handari and Trigangga ed. 2010. *'Gedung Arca' Museum Nasional*. Jakarta: Museum Nasional Indonesia.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chreiner, Klaus H. 1997. "History in the Showcase: Representations of National History in Indonesian Museums." *Nationalism and Cultural Revival in Southeast Asia: Perspectives from the Centre and Region*. Sri Kuhnt-Saptodewo, Volker Grabowsky and Martin Grossheim ed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Sedyawati, Edi ed. 1997. *Treasures of the National Museum*. Jakarta: Buku Antar Bangsa.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홍스봄, 에릭 외. 박지향 · 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서울: 휴머니스트.

- Anderson, Benedict R. O.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Cary, Caverlee Sturges. 1994. *Triple Gems and Double Meanings: Contested Spaces in the National Museum of Bangkok*.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Fine Arts Department. 2002. *Guide to the Gallery of Thai History*. Bangkok: Fine Arts Department.
- Fine Arts Department. 2008. 44 *National Museums of Thailand*. Bangkok: Fine Arts Department.
- National Museum Volunteers Group. 1987. *Treasures from the National Museum Bangkok*. Bangkok: Thai Watana Panich Press.

● ● 웹사이트

태국국립박물관. www.thailandmuseum.com

● ● 인터뷰

덴다오 실파논(Dendao Silpanon), Head of Curational Section, 2010년 7월 1일.

솜차이 나 나콘파놈(Somchai Na Nakhonphanom), Senior Expert on Research and Museum Development, 2010년 7월 2일.

위산타니(Wisanthane), Head of Museum Promotion and Development, 2010년 7월 2일.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김용진. 2003.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종족범주화와 문화재현에 관한 연구: 박물관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논문.

최호림. 2003. 『북부베트남의 민간의례개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권 2호, pp. 183-220.

최호림. 2007. 『베트남의 문화정책 담론: 전통의례와 ‘민족화’』. 『아세아연구』, 50권 3호, pp. 64-92.

Bodemer, Margaret Barnhill. 2010. *Museums, Ethnology and the Politics of Culture in Contemporary Vietnam*. Dissertation of PhD in Anthropology. University of Hawai'i.

CPV (Party Central Committee). 1970. "Guidelines on Vietnamese Cultural Policy in 1943." *Documents of the Party and State on Culture from 1943 to 1968*. Truth Publishing House.

Hobsbawm, Eric & Ranger, Terence eds. 1983. *The Inventing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guyen Thi Thu Huong. 2002. *Redefining the Museum in Modern Vietnam: A Case Study of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Dissertation of MA i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Columbia University.

Nguyen Van Huy and Margaret B. Bodemer eds. 2008. *Faces, Voices, and Lives: Experiences of a Director in Building a Museum for Communities*. Hanoi: Vietnam Museum of Ethnology.

Truong Chinh. 1994. *Selected Writings*. Hanoi: The Gioi Publishers.

Vo Quang Trong, Amareswar Galla eds. 2009. *Museum and Urban Anthropology*. Hanoi: Vietnam Museum of Ethnology.

●● 베트남어 문헌

Bui Dinh Phong ed. 2001. *Tu Tuong Ho Chi Minh ve Xay dung nen Van Hoa moi Viet Nam* [베트남의 새로운 문화 건설에 관한 호찌민의 사상]. Hanoi: NXB Lao Dong.

Cuc bao ton bao tang. 2000. "So lieu tong hop Nghanh Bao ton bao tang [보존박물관 영역의 종합 통계자료]."

www.cinet.vnnews.com/chuyende/55vhtt/vanhoe/baotslth.htm.

Dinh Xuan Lam & Bui Dinh Phong. 2001. *Ho Chi Minh: Van Hoa va Doi Moi*. [호찌민: 문화와 도이며이]. Hanoi: NXB Lao Dong.

Luu Hùng and Vi Văn An (Bao Tang Dan Toc Hoc Vietnam). 2006. *Bao Tang Dan toc Hoc Vietnam. 10 nam: Xay Dung va Phat Trien 1995-2005*. [베트남민족학박물관 10년: 건설과 발전, 1995-2005년]. Hanoi: Vien Khoa Hoc Xa Hoi Vietna,m.

Ngueyn Van Huy et al., (Bao Tang Dan Toc Hoc Vietnam) eds. 1999. *Cac Cong Trinh Nghien Cuu cua Bao Tang Dan Toc Hoc Viet Nam I*.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연구프로젝트, 제1권]. Hanoi: NXBKHXH.

Nguyen Van Huy. 2005. *Tu Dan Toc Hoc den Bao Tang Dan Toc Hoc, Tap I*. [민족학에서 민족학박물관으로, 제1권]. Hanoi: NxbKHXH.

Nguyen Van Huy. 2005. *Tu Dan Toc Hoc den Bao Tang Dan Toc Hoc, Tap II*. [민족학에서 민족학박물관으로, 제2권]. Hanoi: NxbKHXH.

Nha Xuat Ban Thong Tin ed. 2008. *54 Dan Toc Vietnam* [Ethnic Groups in Vietnam]. Hanoi: VNA Publishing House.

Pham Mai Hung, Nguyen Van Huy et al. eds. 2001. *Cac Bao Tang Quoc Gia Viet Nam [National Museums of Vietnam]*. Hanoi: "Vietnam Museum of Ethnology" pp. 369-389.

Truong Chinh. 1985. *Ve Van hoa va Nghe thuat Tap II* [문화와 예술에 관하여 II]. Hanoi: NXB Van Hoc.

Vo Quang Trong, Amareswar Galla eds. 2009. *Bao Tang va Nhan Hoc Do Thi*. [박물관과 도시인류학] Hanoi: Bao Tang Dan Toc Hoc Vietnam.

●● 법규 및 정책자료

"Chi Thi so 2760-VHTT/OT ngay 19-10-1979 ve Xay Dung Bao Tang Tinh, Thanh Pho" [지방 성-시의 박물관 건설에 관한 제2760호 지시 (문화정보부령 지시)].

Cong Bao 1956/07/18. "Thong Tu so 954-TTg ngay 3-7-1956 ve viec bao ve nhung di tich lich su" [역사유적의 보존에 관한 제954호 행정안내].

Cong Bao So 4, 1966. "Thong Tu Hoi dong Chinh phu so 81-CP ngay 29-4-1966 ve viec bao ve di tich lich su, di tich nghe thuat va hang dong duoc su dung vao cong tac so tan phong khong [방공대피 작전에 활용 가능한 역사유적, 예술유적 및 동굴 보호에 관한 제 81호 행정안내]." Phu Luc Cong Bao So 4-1966.

Cong Bao So 13, 1966/10/31. "Chi Thi so 188-TTg/VG ngay 24-10-1966 ve viec bao ve va phat huy tac dung cac di tich lich su, trong thoi gian chong My cuu nuoc [항미구국 기간 중 역사유적의 보호와 발휘에 관한 제 188호 지시]."

Prime Minister's Decision 689/TTg, "베트남민족학박물관 설립에 관한 수상의 제689호 결정"(1995년 10월 24일)

Sac Lenh So 65, "호찌민 베트남민주공화국 임시정부 주석의 65호 책령"(1945/11/23)

Van Hoa 391. 1999/08/16. "Nghị quyết Hội nghị lần thứ năm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oa VIII: Về xây và phát triển nền Văn hóa Việt Nam tiên tiến, đậm đà Ban sac Dan toc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

보적인 베트남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안 (1998년 7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5차 대회)]."

VASS President's Decision 956/QD/KHXH, "VME의 역할, 과제, 지위, 조직등 주요 원칙에 관한 VASS의 원장의 제956호 결정"(2005년 5월 30일)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가네코 아쓰시, 박광현 외 역. 2009.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홉스봄, 에릭 외. 박지향·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Cac Bao tang Quoc gia. 2001. "Bao tang Ho Chi Minh: Ho Chi Minh Museum." *Viet Nam: National Museums of Vietnam*. Hanoi.

_____. 2001. *Viet Nam: National Museums of Vietnam*. Hanoi.

Duiker, William. 1998. *Historical Dictionary of Vietnam*. 2nd ed. Lanham, Md.: The Scarecrow Press.

Ho Chi Minh Museum Ho Chi Minh City Branch. 2009. *Instructed Book for Sightseeing*. Transport Publishing House.

Ho Chi Minh (T. Lan). 2009. *Stories told on the Trail*. Hanoi: Ho Chi Minh Museum & The Gioi Publishers.

Luong, Hy V. 2007. "The Restructuring of Vietnamese Nationalism, 1954-2006." *Pacific Affairs*, Vol. 80, No. 3.

Roszko, Edyta. 2010. "Commemoration and the State: Memory and Legitimacy in Vietnam."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Vol. 25, No. 1.

Salomon, Matthieu & Vu Doan Ket. 2007. "Doi Moi, Educa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Contemporary Vietnam."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37, No. 3.

Tai, Hue-Tam Ho. 1995. "Monumental Ambiguity: The State Commemoration

of Ho Chi Minh." K. W. Taylor & John K. Whitmore eds. *Essays into Vietnamese Pasts*.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1946-1959-1980-1992. Hanoi: The Gioi Publishers.

The Ho Chi Minh Museum. 2003. *A Guide Book for Visitors*. Thanh Nien Publishing House.

Trung Chau. 2010. "City Looks To Promote Tours To Museums." *The Saigon Times Weekly* July 3.

Vickers, Edward. 2007. "Museums and Nationalism in Contemporary China."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37, No. 3.

● ● 베트남어 문헌

35 nam Bao tang Ho Chi Minh. [호찌민박물관 35년]. Ha Noi: Bao tang Ho Chi Minh, 2005.

Bao tang Ho Chi Minh (Sach huong dan tham quan) [호찌민박물관 (참관 가이드북)]. Nxb Thanh nien, 2006.

Bao tang Ho Chi Minh Chi nhanh TP. Ho Chi Minh (Sach huong dan tham quan) [호찌민박물관 호찌민시 지부 (참관 가이드북)]. Nxb Giao thong Van tai, 2008.

● ● 웹사이트

<http://www.baotanghochiminh.vn>.

● ● 면접

Nguyen Thuy Duc.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부관장, 하노이, 2010. 7. 30.

Chi. 익명.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직원, 호찌민시, 2010. 7. 23.

Nations in National Museums and Monuments: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in Southeast Asia

Yoon Hwan SHIN, Heejung Kang, Eun-Young Kim, Seung-Won Song, Sang Kook LEE, Hanwoo LEE, and Horim CHOI

This book explores how national museums and monuments in Southeast Asia have constructed national identities. The book identifies the museums and monuments as cultural and political texts that have been used for certain purposes throughout history. At first colonial regimes made use of museums as means to construct the colonial territories and impose colonial identities on the governed peoples and also to promote themselves as benevolent preservers of the heritages of the colonies. Later, the modern nation-states inherited the colonial museum practices and have employed museums to realize and embody imagined communities.

The book comprising six case studies in major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an outcom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at involves historians, anthropolog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who shared their research methods and theoretical viewpoints developed in each discipline.

The first case study is concerned with Singapore. The Singap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Merlion, a half-lion and half-mermaid figure, as its national symbol along with various museums. The Merlion, an "invented" national symbol, came into being in reflection of explicit political intention. When the notion of "nation" was alien in newly independent Singapore, the government paid a close attention to create its own history in an attempt to mould various ethnic groups into the "Singaporeans." Through the displays of historical and cultural objects in the museums, the government intended to invent a "long" history of Singapore, as if it had enjoyed some hundred years of "collective" history. The museums in Singapore have been employed to plant such an image that Singapore is an old country. Exposed to the imagination, the Singaporeans are expected by the government to have a collective identity as Singaporeans.

The second case deals with the National Museum of Cambodia. This museum, established in 1920 when Cambodia was a French Protectorate, inherited both harms and benefits from colonial modernism. This legacy continues even today. Given that tourism is the most important income source for Cambodia, cultural policies concerning historical monuments are directly translated into national identity. It means that the Cambodian government's commercial promotion of the country as a legitimate heir of Khmer civilization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projection of national identity. Thus, Cambodia identifies its national identity with Khmer identity, both identities not being separable. Indeed, this Khmer identity was a product of colonial scholarship. Later, the Khmernization of Cambodian identity was once again emphasized and strengthened under the Khmer Rouge regime (1975-1979). The current government also attempts to project the equation of the "Cambodian national identity = Khmer identity = Angkor civilization" and employ it as a political and diplomatic tool to build up national identity and

increase international attraction.

The third case engages in the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Unlike other museums in Southeast Asia, this museum represents the colonial discourse in its display. Established as a colonial museum, this museum still sustains colonial views on the indigenous society. The republic utilized the images constructed by the colonial force to identify its newly-defined national territory. However, in transferring the colonial museum to the modern one, the Indonesian republic failed to decolonize the museum display patterns. For instance, while the display emphasizes the Hindu-Buddha period, there are few displays regarding the Islamic period, when the archipelago experienced another internal development. In addition, another main emphasis of the display is focused on the "colonial era," which was defined in the museum display as a period spanning from the 17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is time depiction is erroneous as the real colonial period just started after the 19th century. What draws our attention is that the items categorized as artifacts of the colonial period include European-made scientific objects and furniture. This exhibition pattern gives the visitors an impression that during the period the scientific Europe was the only figure and in contrast indigenous initiatives remained absent. In sum, the museum display accounts for the archipelagic history with a few points: first, the archipelago once had a high civilization in the ancient Hindu-Buddha period; second, the archipelago lost its dynamics and inner energies to develop society afterward; and third, the loss of inner dynamics inevitably invited European colonial control equipped with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failure of decolonization of museums was attributed to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inability and mismanagement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people in running the museum. It tells us that not every museum or monument project

aiming to construct national identities resulted in success.

The fourth case explores the Bangkok National Museum in Thailand. The case focuses on how the museum intensifies three pillars of Thai national identity, namely "monarchy", "Buddhism," and "nation." The display of historical artifacts legitimizes the formation of Thai national identity. The salience of the monarchy-related artifacts comes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monarchy was deeply involved in the initiation of the museum. It is also prominent that the Bangkok National Museum displays a number of Buddhism-related artifacts. It shows how Buddhism has been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ai national identity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monarchy: Buddhism was declared as the state religion during the reign of Rama V. However, the form of national identity relying on Buddhism contradicts religious reality in Thailand. Indeed, Brahmanism has been accommodated in various royal ceremonies throughout history. Furthermore, Buddhism has become syncretic, influenced by Brahmanism and animism. Despite the fact, the museum emphasizes only Buddhism, dismissing other religions such as Islam and Christianity both of which take some portions in southern Thailand and among hill tribes respectively. Above all, the museum heavily focuses on ethnic Thai cultural artifacts, paying little attention to other ethnic groups' ones. The history of Thailand in the museum is evidently equal to the history of the ethnic Thais; in contrast, the histories and cultures of other ethnic groups are not represented at all. The Bangkok National Museum displaying only the three pillars' related artifacts is limited in representing the whole reality of Thailand. The problem with Thai national identity in representation is clearly evident in the museum.

The fifth case deals with th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VME). This museum exhibits cultural artifacts of 54 ethnic groups in Vietnam, which

were officially categoriz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post-1954 period, Vietnam launched socialist reform, declaring the elimination of feudal practices and colonial influences and the rehabilitation of Vietnamese tradition. In addition, the accommodation of various ethnic groups was another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For the purpose, the government launched various program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VME to intensify national identity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ethnic groups. The VME's priority is to represent the cultures of the 54 ethnic groups in their "original" forms to the public. It is also targeted to meet the need to attract foreign tourists by promoting the Vietnamese tradition of harmony and co-existence. However, the VME reflects certain dilemmas in its exhibition. First, the government faces an unsettling task to emphasize uniformed national identity among the ethnic groups and demonstrate the variety of numerous ethnic cultures at the same time. Second, while the museum emerges as an important tourist destin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a socialist stance in the management of the museum. The solution to these dilemmas is to describe the ethnic cultures as their "original" forms, without reflecting their dynamics or changes over time.

The last case investigates the Ho Chi Minh Museum in Vietnam. This museu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ife of Ho Chi Minh, represents a series of historical processes that Vietnam has experienced, including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The project of venerating Ho Chi Minh as the father of nation is initiated not only as a credential to his dedication to nation but also as a tool to gain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s rule. Emphasis on Ho Chi Min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the legitimacy of the current regime has been weak as economic reform has been intensified.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Ho Chi Minh Philosophy" officially

emerged in the early 1990s and it has been employed as a legitimate ideology since then. Various objects showing the life of Ho Chi Minh particularly emphasize how Ho Chi Minh became the symbol of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of Vietnam. In addition to the sections introducing the life and revolutionary projects of Ho Chi Minh, the museum installed two sections displaying Ho Chi Minh's affection for the southerners and in turn southerners' affection for Ho Chi Minh. Although this museum appears to exhibit a life of one man, indeed it displays the history of Vietnam since Ho Chi Minh is the personification of national destiny and history.

We make sense of some overarching issues through the cases explored in this book. First, there remains a gap between the displays and actual histories. The Southeast Asian nation-states' attempts to make use of the museums to create nationalistic narratives often result in widening the gap between them. Second, the discourse of colonial modernism is still evident in present-day Southeast Asia. The museums in Southeast Asia directly or indirectly inherited colonial legacy. Third, the degree to which the building up of national identities through museum-monument projects is successful is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cognize museums as useful political texts and exploit them for the purpose of nation-building.

This book will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and thus increase mutu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The book also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that would engage in the issues of decolonization in museums and cultural policies in Southeast Asia.

신윤환(辛尹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남아시아연구회 회장,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역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
(現, E-mail: yhshin@sogang.ac.kr)

저서 및 논문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2001), 『동남아문화 산책』(2008) 외

강희정(姜熿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미술사 전공)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역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esvara@sogang.ac.kr)

저서 및 논문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2006), 『푸난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2009) 외

김은영(金恩英)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대학원 역사학박사
프랑스 국립고문서학교 고등연구사, 시카고 뉴베리도서관 방문연구원 역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kim.eunyoung@ymail.com)

저서 및 논문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예화(例話)와 조선, 그리고 프랑스 - 전형적인 텍스트에 대한 비전형적인 독서』(2009) 외

송승원(宋承媛)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대(Ohio University) 역사학 박사
인도네시아 및 전략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역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swsong@hotmail.com)

저서 및 논문

『인도네시아 아찌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역사해석: 유누스 자밀과 알리 하쉬미, 그리고 하산 디띠로를 중심으로』(2010) 외

이상국(李相國)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인류학 박사
한국동남아학회 국제이사, 출라롱콘대학교 객원연구원 등 역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skleesea@sogang.ac.kr)

저서 및 논문

Transborder Issue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공저, 2008)
『백인 구원자와 카렌족: 현실이 된 카렌족 신화』(2010) 외

최호림(崔昊林)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박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전남대학교 연구교수, 호주국립대학교 객원연구원 역임
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hrchoivn@sogang.ac.kr)

저서 및 논문

『베트남 전쟁과 관광: 과거의 체현과 진정성의 경합』(2009)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공저, 2010) 외

이한우(李漢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등 역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現, E-mail: asia@sogang.ac.kr)

저서 및 논문

『협력에서 공동체로: 동아시아공동체의 동향과 과제』(2009, 공저)
『탈사회주의 이행기 베트남에서 국가-노동 관계』(2010) 외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Nations in National Museums and Monuments: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ies in Southeast Asia

Yoon Hwan Shin, Hojung Kang, Eun-Young Kim, Seung-Won Song,
Sang Kook Lee, Hanwo Lee, and Horim Choi

본서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과 국가기념물에 초점을 두고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규명하였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실증적 이태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역, 군사통제 등 다양한 지
표들을 통한 건조한 접근을 넘어서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기원, 이념적 기초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어
는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유기적 구조체로서 표출되는 문화적
공간과 이를 마련해준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물관이 단일로 국가 문화 프로젝트의 압축
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각국의 국가정체성이 박물관과 기념물을 통해 국민에게 내면화되고 재생산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은 동남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KIEP 대한국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cy

137-7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1로 108
137-8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6호
T.02-3460-1001, 114 F.02-3460-1122, 1189
<http://www.kiep.go.kr>



이대출